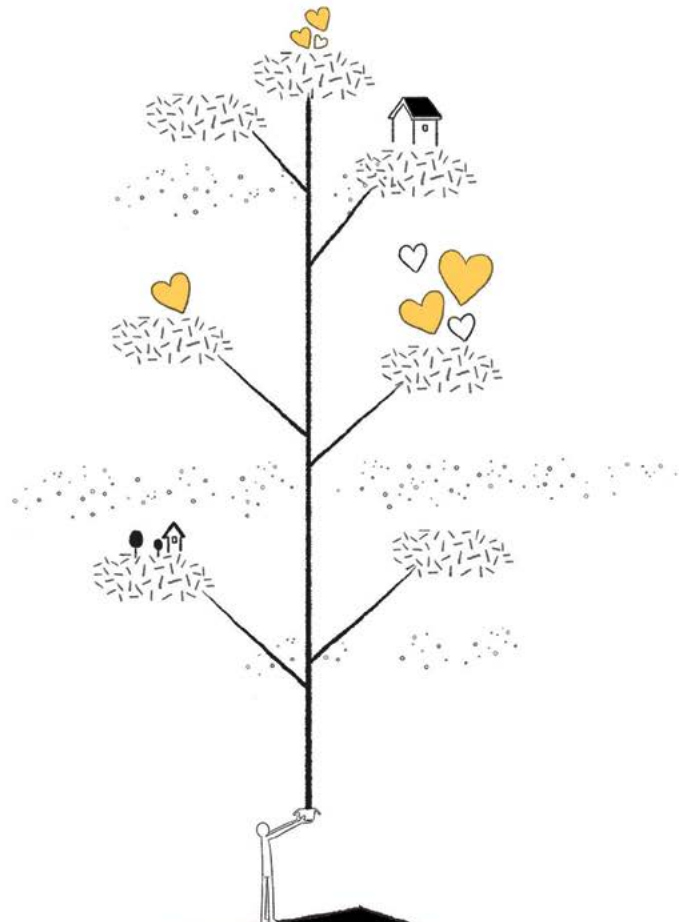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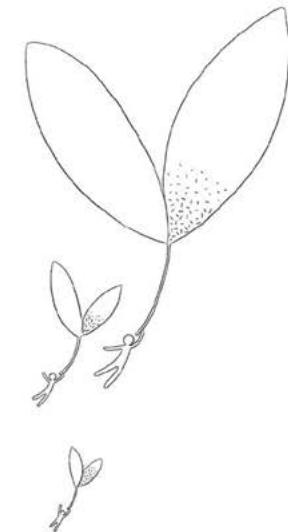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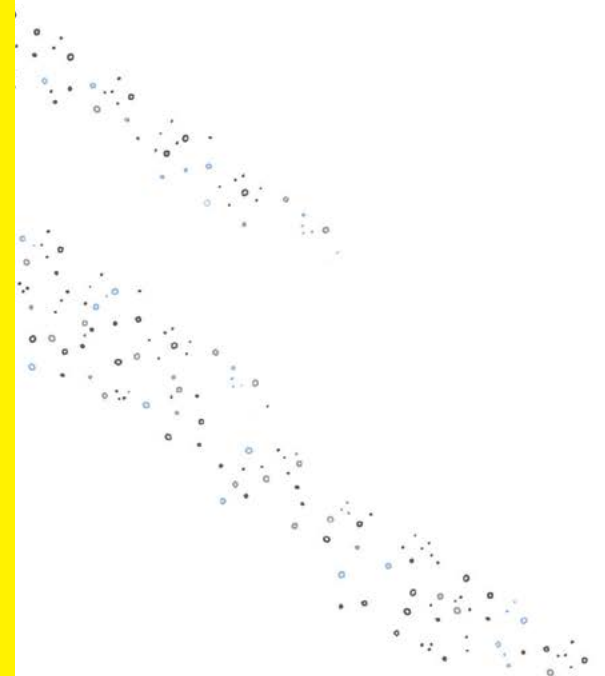
발행인	정은숙
편집인	이영진
기획총괄	박지훈
기획진행	이종필, 김응탁
주민작가	박지선 (마을커뮤니티 따숨) 정상영 (꿈광리 마을센터) 전인옥 (섬마을함께하는모임) 김시형 (서현1동행복마을회의) 윤혜선 (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김희진 (예끼컴퍼니-금빛마을)

디자인/인쇄	고려칼라
발행일	2016. 4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art.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Contents

태평동

- 1. 시작 10
- 2. 가족이 있어 든든한 우리마을 14
- 3. 생기발랄 소모임으로 생기있는 우리마을 33
- 4.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와글와글 우리마을 43
- 5. 마을의 미래를 생각한다 69

금광1동

- 1. 꿈광리 이야기 76
- 2. 꿈광리 문화마을 80
- 3. 꿈광리 문화마을 뒷이야기 88

도촌동

- 1. 2015년 “자연, 사람, 그리고 섬마을 이야기” 102
- 2. 섬마을의 다문화 이야기 103
- 3. '다문화 가족과 책이야기', 북 콘서트 107
- 4. 이효석 문학촌 가족문학기행 110
- 5. 두물머리 가족 생태기행 112
- 6. 가족생태이야기 114
- 7. 나는 꼬마 정원사 116
- 8. 나는 마을 활동가 118
- 9.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 120

서현동

- 1. 서현1동의 소개 126
- 2. 서현1동의 마을커뮤니티 130
- 3. 성남문화재단과의 만남 134
- 4. 마을커뮤니티 활동 136
- 5. 종합평가 및 비전 146
- 6. 행복마을회의 대표 인터뷰 148

상대원동

- 1.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소개 154
- 2. 상대원 소개 156
- 3. 함께하는 우리 158
- 4. 2015년의 새로운 시작을 돌아보며... 190

금광2동

- 1. 마을 커뮤니티 교육 198
- 2. 선정 그리고 활동의 시작. 2015년 여름... 첫 만남, 어려움을 겪다. 200
- 3. 2015년 가을... 방향 전환. 201
- 4. 2015년 늦은 가을... 마을 기획단의 작은 발걸음. 202
- 5. 2015년 겨울의 문턱에서 ... 결과 발표회. ‘시작’이라는 또 다른 이름. 111
- 6.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의견들 213
- 7. 마치는 글 218
- 8. 금빛마을문화공동체 [징검다리] 공연 대본 219



태평동

Seongnam-si
Taepyeong-dong

골목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 만들기

1. 시작
2. 가족이 있어 든든한 우리마을
3. 생기발랄 소모임으로 생기있는 우리마을
4.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와글와글 우리마을
5. 마을의 미래를 생각한다

시작



1년 동안 마을 사업을 통해 달라진 게 있을까?

2014년 다섯 여자가 뭉쳐 새로운 마을을 꿈꾸면서 태평동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이게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숲으로, 탄천으로, 운동장으로 골목길 사이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조그만 모임들을 몇 개 만들어도 전혀 표시 나지 않은 일이 바로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싶다. 매 순간 난생 처음 해보는 새로운 일이 헉헉 댔으며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뭐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해내면 세상을 얻는 것처럼 설레었다. 사람들이 와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마음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며 힘들어야 하는 거지? 까지..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녹아들며 새로운 마음들이 꿈틀댔던 것이 2014년 태평동 마을 만들기였다. 거기에 더 새롭고 더 완숙한 경험을

녹여내어 못 하고 아쉬웠던 순간을 만회해 보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 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 년 동안 마을 만들기 한다고 뭔가 많이 변했을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우리는 엄마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살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는 각각의 이유들이 우리를 한 번 더 밀고 간다.

마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을은 회색이었고 건물 이었고 언덕이었다.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지금도 옆집, 앞집 사람과 잘 모른다. 일주일이 가야 얼굴한번 본적 없이 지낸다. 무슨 일이 일어나 한참이 지나도 전혀 알 길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하면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지난 일년 간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며 뒷산 앞산 풍경도 좋지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마을이 만들어 지는 건가??

같은 건물에 58세대가 살았지만 고시원 주민들도 황씨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고시 준비를 위해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각자의 목표에 집중하느라 주변 이웃들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황씨가 숨지고 보름이 지난뒤에도 황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뒤에도 고시원은 황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2015.12.17.>



옆집, 뒷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건 크나 큰 불행이다. 사람들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원하지만 참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무엇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낯선 모임은 나가기가 두렵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피곤하다. 적응 하는데도 꽤 시간과 노력이 들것 같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아이를 통해서,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같은 입장에 서서, 기행이나 여행, 또는 술친구라도... 혹시 아는가?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일지... 다양한 소모임, 다양한 만남의 열개를 짜고 알리고 제공한다.

이웃과 공통된 주제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편안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 이런 정도를 창작하고 제공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보람된 일이다.

마을 만들기!! 그 다음은 주민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자.



2015, 이번엔 가족이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다섯 여자들이 만나 이론 일이다 보니 주 대상을 여성과 아이들로만 생각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2014년을 돌아보며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마을만들기 뿐 아니라 문화센터 등 이곳 저곳에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히려 일하는 아빠들이야말로 마을에서 소외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아빠들은 직장만 다녔지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2015년은 더 친취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보자 하는 고민 끝에 2015년은 가족을 주제로 사업계획을 진행했다. 홍보를 하다보면 태평동 뿐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온다. “태평동 주민들은 정말 좋겠어요!” 하는데 막상 우리 동네 주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사업명 : 골목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리는 태평동 마을 만들기

비 전 : 아이들이 뛰놀고 생명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행복한 숲골

- 가족이 있어 든든한 우리 마을 (가족 미술관 나들이, 영장산 숲놀이, 가족 영화제)
- 생기발랄 소모임으로 생기있는 우리 마을 (도자기 교실, 손바느질 모임, 연극놀이)
-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와글 와글 우리 마을 (벼룩시장, 마을 축제, 그림책 작가강의)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세부기획안을 짜고 세세한 시간들을 정하고 강사 섭외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붙이고 2015년도 이제 시작이다. 처음엔 마음만 앞서서 주민들의 이해와 닿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나 보다. <아빠와 함께 하는 목공교실>, <발도르프 미술교육>, <가족이 함께 하는 비폭력 대화> 같은 프로그램은 취지와 내용이 훌륭했지만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를수도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은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발도르프 미술 같은 경우는 강의실을 다음 날 까지 빌려야 했다. 흠뻑 젖은 그림을 다음날 까지 그대로 말려야 한다고... 우여곡절 끝에 위 세 강의는 사업변경을 신청했다. 상상은 무한대, 하지만 실행까지 가려면 시간, 장소, 사람, 객관적 조건 등 여러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발도르프
젖은수채화 그리기**

발도르프 젖은 수채화는
습식수채화란 젖은 종이에 상채색 (빨강, 노랑, 파랑)만을 사용하여 색깔의 번짐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색채의 본질, 자연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색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어 보세요 ^^ (그림을 잘 못그리시는 분도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강의계획	강사 강우태
1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2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3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4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5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6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7강 색채학의 발견과 표현	발도르프 미술 교육의 이해와 실천

6월 18일~7월 30일 (목) 총 7회 10:30~12:30
장소: 구서정 아파트 2층 2호실 성남 예술의 전당 강하실
참가비 : 5만원 (재료비 포함, 회화 2명)
문의: 박지선 010-7363-5555
비율: 100% 환불
후원: 성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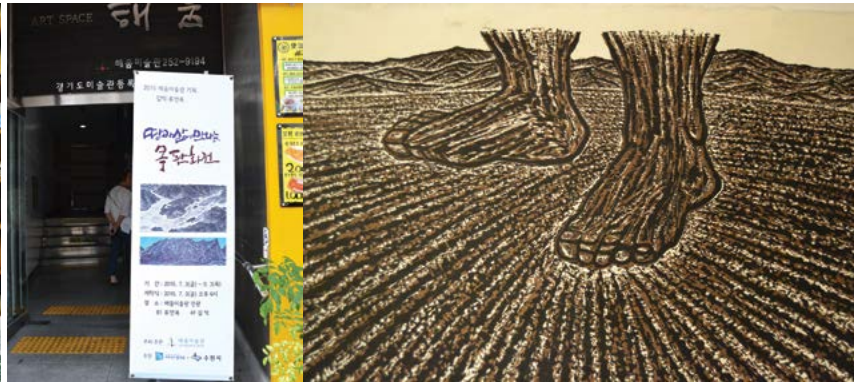
우리동네 벼룩시장
성남구시장 아래 분수대
매일 첫 토요일 오후 2시~5시

4월 4일	5월 2일	6월 6일
7월 4일	8월 1일	9월 5일

참여비: 1000원 (회원비 500원, 후원비 500원)
문의: 박지선 010-7363-5555



가족이 있어 든든한 우리마을



가족 미술관 나들이

류연복 작가 작업실 방문 & 수원 해움 미술관

2015. 8. 30.(일)

가깝고도 먼 미술관, 좋다는 건 알지만 나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평생 몇 번 가볼 일 없는 것이 미술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을에서 가까운 미술관에 함께 간다면? 작가를 만나 직접 작품 세계에 대해 듣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가슴 두근거리는 즐거운 상상이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은 사람이 모여서 풀면 의외로 빨리, 쉽게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을이 하려는 일도 그런 일이 아닐까?

지인의 소개를 받아 류연복 작가님께 전화를 걸었다. 두근 두근~~

마을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작업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에 흔쾌히 “언제든 오세요~” 한다. 작업실이 안성이고 8월 말 현재 수원 해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작업실 들어서 구경하고 점심 먹고 수원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대학시절 미술을 전공하면서 걸개그림, 벽화그림을 그리다가 판화를 선택하셨다는 류연복 작가. 직접 그림을 한 장 한 장 마음을 담아 설명해 주셨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꽃 한송이, 한줌의 흙에도 애정과 사랑, 시가 담겨 있는 듯 하다. 굵고 강한 선이 매력적인 판화의 처음과 끝을 만난 느낌 이랄까.. 단순한 기술이 아닌 작가의 철학이 어떤 표현 방법을 만나 대중의 가슴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함께 간 엄마들도 아이들도 작가님의 살뜰한 설명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미소덕에 작품이 주는, 작가의 노력이 주는 감동속으로 풍덩 빠질 수 있는 하루였다.

돌아오는 차에 타는 시인이 엄마의 두 손에 미술용품이 가득 들려있다.

“미술관 앞에서 샀어요. 오늘 작가님 만나니까 그림 그리고 창작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집에 비치해 두고 싶어요” 창작 욕구가 샘솟는 그런 하루 ^^

2015년 8월 30일 (일)

류연복 판화가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작업실과 선생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수원 해운 미술관에 갔다.

먼저, 버스를 타고 대략 1시간 30분을 달린 뒤 10분정도 시골길을 걸을 땀 붙게 핀 맨드라미, 길가에 이름 모르는 꽃들, 고개를 숙인 벼를 보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 작업실에는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과 판화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다. 작업실은 깨끗했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시골에 있어서 경치가 좋고, 우리가 사는 곳 보다 공기도 참 맑았다. 우리는 선생님 주위에 둘러 앉아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다. 선생님이 말하시길 판화 종류엔 도둑새김, 석판화, 볼록 판화, 목구 목판 등 이 있다 하시고, 목판화는 소멸법 합판 등 이 있다하셨다. 선생님은 판화 작품을 만들 때 작은 실수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 적도 있다 하여 깜짝 놀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인내심이 깊다고 느꼈다. 판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판화도 손으로 만져 볼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판화 작업에 필요한 도구는 삼각 칼 창 칼 조각 칼 나무 칼 등이 있다. 그 외 많은 설명을 듣고 밥을 먹은 뒤 2시간 정도 달려 선생님 작품을 전시 하고 있는 수원 해운 미술관을 갔다.

사계절로 나타난 금강산의 모습,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계곡, DMZ를 동물 발자국으로 표현한 그림, 마을 앞 느티나무, 누워서 바라본 대나무 그림등..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 하나 들어서 작품에 대해 더 이해가 되었다. 류연복 선생님을 만나 판화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하나 조각한 정성이 들어간 판화의 매력을 많이 느꼈다. <금빛초 5학년 이다윤>



<페르난도 보테로 전> 김성수 작가와 함께

2015. 10. 3.

두 번째 미술관 기행으로 정한 곳은 한가람 미술관의 <페르난도 보테로전>. 성남 민미협 김성수 작가와 함께 였다. 그림이 어렵지 않아 아이들도 함께 하기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다. 일단 플랭카드를 다섯 개 만들어 동네 여기 저기 붙여 보았다. 속속 신청이 들어온다. 문의는 하셨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가겠다는 분들도 따로 시간을 내서 다녀왔다고 연락을 주셨다. 정보가 없었는데 따숨을 통해 이렇게 있는지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신다. 지난 류연복 작가님께 함께 갔던 분들, 플랭카드와 문자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 가까운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 미술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여기 저기서 유모차를 끌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나타난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남미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로 살아있는 거장으로 꼽힌다. 보테로의 그림은 풍만함, 양감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식탁위의 포크와 나이프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뚱뚱하고 꽃이나 악기같은 정물도 크게 부풀려 있고, 모든 인물을 풍만하게 그린다.

〈우리는 실제 사물보다 그려진 그림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는다. 희한 작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적인 촉각을 자극하여 눈에 보이는 대상을 통해 이미지의 린은 상상력 촉각을 통해 상상 이상의 것을 가져온다.〉

과장된 양감의 이미지들이 보테로의 라틴 아메리카적 시각으로 재구성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

을 만들어 낸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끝없는 뚱뚱한 이미지에 깜짝 깜짝 놀라게 되며 솔직하고도 유쾌한 그림에 웃음짓게 된다.

영뚱하고도 기발한 재미있는 보테로의 그림을 만나고 나와 동그랗게 모여 서로 소감을 발표 하였다. 친정어머니와 정말 오랜만에 미술관에 온다는 주민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참여한 주민까지..

알 듯 모를 듯 보테로의 작품을 보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니 내가 혼자 본 것과는 다르게 아~ 저런 시각도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하며 몇 배쯤 깊이가 더 해 진다. 역시 사람은 모여서 뭔가를 하면 서로 나누고 얻어지는 것도 많다.

두 번의 미술관 기행을 통해 겨울에는 꼭 미술관 기행을 한번 가자~ 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요즘은 미술관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설명도 있으니 겨울 방학에는 미술관 번개 모임을 한번 해야겠다.

숲놀이 친구들

2015년 새봄을 여는 기지개~ 3월

2014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영장산 숲놀이는 2015년 들어 두 개 반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유치원 반, 초등학교 저학년 반. 이제 완전히 자립되어 마을 만들기 지원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마을의 새 봄 같은, 들꽃같은 모임이 되었다.

엄마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 놀게 하면서 키우고 싶지만 혼자서는 잘 안되었던 마음이 모이니 웬만한 일에는 마음을 잘 합친다. 그저 함께 산과 들을 뛰 놀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하다.

환경운동연합 선생님들과 함께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숲 놀이는 첫 시작을 남한산성에 올랐다. 산책로 옆으로 오르다가 오른쪽 샅길로 들어서면 잘 조성된 들꽃 정원이 나온다. 이 위로 쭉욱 올라가다 보면 작은 연못도 나오고.. 3월 아직은 추웠는데 올라가 보니 개구리, 도롱뇽 알들이 연못 가득 차 있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과 조금은 징그러운 알도 구경하고 알속엔 벌써 꼬물거리는 아이들도 보인다. 도토리도 줍고 아직 털옷을 입고 있는 겨울 눈도 관찰하고... 일찍 깨어난 들꽃들도 만나고.. 세상만물이 활짝 몸을 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아이들도 이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영장산에 오르면 고라니 똥이 보인다. 4월

지난 겨울 환경운동 연합 선생님들과 함께 맛난 고구마, 콩, 굴, 감자 등을 가지고 곳곳에 숨겨 두었다. 산속에 사는 짐승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2주후에 가보니 산짐승들이 쏙쏙 흔적도 없이 먹고 예쁜 똥을 남겨두고 갔다. 고라니똥이었다.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생각에 어깨를 으쓱했다. 망원경을 가지고 산새를 살펴보기도 하고 소원나무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코를 훌쩍거리며 올랐던 영장산에도 봄이 왔다. 아이들은 산속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산에 사는 새들의 집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까치집이 나뭇가지가 1,000개쯤 된다고 하니 동물들의 모습에서 참 배울게 많다. 아이들은 곳곳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온다. 좀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힘을 합쳐 나뭇가지를 주워 나르는 모습이 예쁘다.

산속을 헤매다 적당한 돌을 찾아 놓는 아이들... 아이들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니 저 구름은 토끼를 닮았고 저 구름은 꽃을 닮았고.. 구름찾기 놀이 삼매경이다.

늘 바쁘게 정신없게 살면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있었던가.. 싶다. 그저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맥주도 한잔씩 하면 좋겠다. 하며 너무나 아쉬워한다. 엄마들이 본격적인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아버님이 오늘의 사진기사가 되어 주셨다. 온통 초록색상이 된 탄천에서 풀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쓴 아이들이 마치 요정처럼 빛난다.

중간 중간 울음소리도 터져 나오고 여섯 살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애를 먹게 하기도 한다. 오늘은 선생님께, 아버님께 말기고 엄마들은 소풍 온 여고생이 되어 신이 났다. 우리 다음주엔 먹을 걸 꼭 싸오자~ 맥주도 한 캔씩 하고 돛자리도 넓은 걸 가져 오자 하며 계획을 세우며 신이 났다.

5월 넷째 주

엄마들의 가방은 요술 보따리다. 한껏 신이 난 엄마들은 소각장 바로 앞 숲길에 돛자리를 폈다. 커피, 떡볶이, 과일, 맥주 풀어도 풀어도 계속 나올 것만 같은 간식 보따리.. 남편이야기, 아이들이야기를 한번 풀어 놓으면 하루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 2박 3일은 되어야 좀 이야기 좀 했다 싶지 않을까? 날씨도 선선하고 눈부신 5월.. 엄마들은 맛난 간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탄천의 꽃길을 따라 멀리 마실을 가셨다. 탄천은 어느새 달라

탄천의 비밀의 화원 - 생태체험학습장

5월 둘째 주

십년을 살아도, 이십년을 살아도 성남에 이런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5월. 탄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찾아오라는 선생님의 미션을 듣고 한명 한명 모여 들었다. 다른데 인 줄 알고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 저쪽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 첫날이라 시간이 모이는데 오래 걸렸다. 수업 때 옆에서 아이들을 조금씩 거들던 엄마들이 이젠 선생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물이 오른 버드나무, 살랑 살랑 피어있는 개망초, 들꽃 풀꽃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탄천.

잔잔한 연못아래 돛자리를 펴고 모여 앉은 엄마들.. 이럴 줄 알았으면 먹을 것 좀 많이 챙겨올걸...



진 모습이다. 유채꽃이 가득 피어나고 오디가 열매를 맺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먹을 수 있는 오디를 보았다고 알려주었다. 아직 안 익었는데 < 먹을 수 있는 열매가 길에 열려있다는 게 > 신기한 것 같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긴 하다. 뭘 ‘따’먹는다는 것을 도대체 경험해 보지 않은 도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다음주, 그 다음 주에도 오디가 익었나 가보고 싶다고 했단다. 아이들은 익은 오디를 보았을까?

숲놀이에 메르스 불청객..

2014년 6월을 강타한 메르스. 중동에서 집중 발생하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5월 20일 첫 감염자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총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사망하게 하면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됐던 사람만 총 1만6752명이었더니!! 학교도 최대 2주간 휴교하기도 해서 대한민국에 몰아닥친 공포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다. 6월 예정되었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 아이들과의 숲체험도 6월부터 8월까지 쉬게 되었다.



강우근 작가와의 만남

<사계절 생태놀이>, <열두달 자연놀이> 강우근 작가를 만나려던 날은 6월 둘째주 토요일 이었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해 9월 둘째주로 미루게 되었다. 6월은 메르스로, 7-8월은 무더위로 세달이나 쉰 아이들이 다시 모였다. 강우근 작가님은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선수다.

“선생님! 저희는 평소에 영장산에서 노는데요... 산에 별 특별한건 없고 그냥 동네 뒷산이에요” 하고 문의 드렸더니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흠파고 놀면 되죠!” 하신다.

작가님은 영장산으로 올라가면서 도토리를 주우셨다. 주워서 열매는 버리고 도토리 뚜껑으로 피리 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오호 ~ 이런 방법은 처음인데..아이들도 엄마들도 열심히 따라한다. 쉽게

되지는 않은지 얼굴이 빨개지도록 불어도 겨우 모기만한 소리다. 침당굴에서 이 파리를 따서 주먹 쥔 손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 팡 내려치면 팡~ 터지는 나뭇잎 폭탄을 만들기도 하였다. 중턱에 오르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움푹 패인 곳이 나타났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여기서 미끄럼 타고 싶다고 난리다. 강우근 작가는 여기 저기 둘러 보더니 침당굴을 끌어와서 아이들 풀썩매를 태워 주셨다. 생각해 보면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얻고 그 자리에서 직접 해보는 간단한 방법인데도 엄마들은 아이들과 산에 가서 놀자고 하면 어렵게 느껴진다.

오늘은 산에서의 놀이가 쉽고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같다.

산위로 올라 가시 풀썩이 나온다. 작가님은 배낭에서 옷걸이를 구부려 양파망을 썩은 잠자리채 머리를 몇 개 꺼내셨다. 대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나뭇가지를 주워 테이프로 붙여서 만든다. 똑딱 만든 잠자리채로 풀썩을 휘저었더니 메뚜기 몇 마리가 잡혔다. 섬서구 메뚜기란다. 책을 꺼내서 보여 주셨는데 메뚜기의 종류가 엄청 많다. 주로 여기서는 초록색 섬서구 메뚜기, 방아 찹는 방아깨비, 몸이 거무스름해서 송장이라고 불리 우는 송장 메뚜기등이 잡혔다. 아이들은 두셋으로 나눠 메뚜기를 잡으로 다니느라 바쁘다. 한 마리도 못잡은 여섯 살 친구는 와앙~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한참 메뚜기와 벌레들을 잡았던 친구들과 산 위로 더 올라가니 작은 정자가 나온다. 아이들에게 돌아다니며 예쁜 돌멩이를 주워 오라고 한다.

작가님은 테이블 위에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더니 주워온 돌멩이로 과녁 맞추기를 하였다. 100점, 50점, 30점 ~ 아이들 얼굴이 희비가 엇갈린다. 한바퀴 돌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두 시간이 순식간에 하호호 웃으며 지나간 것 같다. 엄마들은 차분하면서 아이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강우근 작가님을 만나며 우리도 그냥 모여서 놀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음 달부터 강우근 작가님 책 보면서 그냥 놀까요? 놀이에 꼭 선생님이 있어야 할까요?



축제 참가 & 굴렁쇠 놀이

9월에 강우근 작가님 만나고 10월 축제까지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아이들은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자는 의견에 두 번 모여서 따숨에서 연습을 했다. 노래는 <선물할게>, <감홍시>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헐파얌 불러줄게. 맑은 너의 눈 보며 맨날의 너 보며 내마음도 깨끗해 저요, 우건 너무나 먼곳에 한참을 달려도 너 만나 행복해 졌어.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아이들의 웃음 소리는 묘한 힘이 있다. 골목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는 세상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웃으면 부모도 웃고 부모의 마음이 편하면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그런 세상. 세상은 너무 바쁘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편히 대화하거나 놀 만한 시간도 없고 아이들은 벌써부터 할 일이 많다. 누구 위해서 무얼 위해서 우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잠깐이라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10.17일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은 반짝 반짝 예쁘게도 노래를 불렀다. 노래 하기 전엔 운동장을 다 쏘고 다녔다. 흙투성이가 되어 노래 하자니까 겨우 일어나 무대에 나아간다. 사실 노래 하는 것보다 운동장 흙놀이가 더 재밌었다고 ^^ 일년 동안 숲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은 어느새 많이 친해져서 운동장에서도 골목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잘 뛰어 논다.

마을에서 만난 이 아이들... 계속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축제 때 굴렁쇠를 멋지게 굴리시던 마을 할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을 드려 굴렁쇠를 한번 배우기도 했다. 아이들은 아무리 굴려도 1미터도 못가는데 운동장 한바퀴를 엄청 여유있게 굴러 가시는게 아닌가~!!! 가르쳐 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른 일정도 많으신데 미루어 두시고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나셨다.

제목: 굴렁쇠 굴리기

금빛초등학교에서 굴렁쇠의 달인 샘이 오셨다. 우리가 있는 쪽에서 운동장 거의 반 바퀴를 굴렁쇠를 안 떨어뜨리고 레구르르 굴리면서 다시 우리쪽으로 와서 말하셨다. “굴렁쇠에 정신을 집중해!” 굴렁쇠는 엄청 어려웠다. 엄마가 선생님께 말했다. “굴렁쇠가 너무 빨리 돌아요” 나는 시작하자마자 금방 떨어졌다. “굴렁쇠는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나도 굴렁쇠의 달인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야지 <성남초 1. 강보름>



운동장에서 굴렁쇠를 열심히 굴리고 있으니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한명씩 다가와 저도 해봐도 되요? 하면서 시도해 본다. 태웅이 엄마는 초등학교 때 굴렁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씩스럽게 말씀하시며 여유 있게 굴려 보신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굴렁쇠 상, 제기 상 등등 ^^ 그래도 엄마들은 영 감이 없었는데 배우니까 조금씩 감각을 살아난다. 금방 툭 떨어지던 굴렁쇠가 제법 모양을 갖추어 10미터, 20미터 달려간다. 마음은 저만큼인데 이 몸은 왜 이리 무거운지... 굴렁쇠를 따라 달리지를 못하겠다. 이런건 역시 몸이 가벼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건가? 굴렁쇠 다이어트를 시도 해 볼까 하면서 하하 호호

아이들이 크는 일년은 참 빠르다. 사진을 보면 일년동안 얼마나 컸는지 몇 뼘씩 쑥 커져 있는 듯 하다. 마을에서 알게 되어 숲놀이, 운동장 놀이, 노래 공연등 재미있는 일도 많이 했다. 내년에도 영장산은 넉넉하게 우리 아이들을 품어 줄 것이다. 6월 이후 3개월이나 쉬면서 많이 못했지만 내년에는 환경운동연합, 작가 강연을 통해 더 짜임새 있게 잘 놀아보도록 하자~~



한여름밤의 가족 영화제



2014년 태평동락에서 1회 <60만번의 트라이> 영화제를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는 이번엔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내는 안정감이 있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영화를 보기에 적절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한정되게 오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야외 상영을 하니 가벼운 블록 버스터 영화를 보는게 어떨까? 영사막으로 할까?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까? 영사막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얼마나 커야 할까? 너무도 복잡한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기에... 당일 날씨도 너무나 걱정되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영사막과 스크린은 상권활성화재단 차량을 빌리는 것으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화를 정하는 것도 진통이었지만 <쥬라기 공원 4>, <박물관이 살아있다> 같은 영화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쥬라기 공원이 선정되어 홍보물을 붙이고 했지만 당일 까지 DVD가 출시되지 않아서 당일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로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영화를 틀었다간 법적으로도 문제

가 있을 것 같고 개봉한지 6개월이 지난영화, 상업적 목적이 없을 때 괜찮다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공부 되었습니다.

금빛초와 태평4동 주민센터, 태평2동 주민센터에 배너를 세우고 플랭카드를 곳곳에 달고...

그래도 오겠다는 신청을 따로 받는 게 아니어서 당일까지도 행사가 어찌 될지 몹시 두근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화제를 한다는 문자를 받고 강냉이 장사를 하시는 따숨 회원분이 강냉이 큰 봉지를 하나 후원해 주셨습니다.

당일, 행사 차량이 들어오고 차량 옆에서 강냉이를 나눠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깜짝 놀랄만큼 와서 강냉이를 한봉지씩 들고 자리에 앉아 한 시간 전부터 영화를 기다립니다. 마을의 할머니들도 맥주 한 캔씩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계신다.

행사 시간이 되자 속속 여기저기서 돛자리와 김밥 맥주 과자를 들고 자리에 펴고 앉아 영화를 관람합니다. 우와!!! 성공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자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스크린이 좀 먼 것도 같고 주최하는 사람들은 이러 저러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행사가 끝나고 돌아다니며 소감을 물어 보니 다들 만족스러웠다 답해 주신다.



“이런 행사가 자주 없는데 가까운데서 이렇게 하니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나와서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니 너무 좋다.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신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태평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왜 금빛초에서만 하는지... 우리 학교에서도 좀 해주시면 안되요? 하신다. 주민들이 이렇게나 좋아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다리실 줄은 몰랐다. ^^ 내년엔 금빛초와 수진초에서 두 번 해볼까요?

경험이 생기니 영화제 전에 인사말도 하고, 노래도 한곡 부르고 하면 더 풍성할 것 같다.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해서 영화도 선정하고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이제 주민들의 준비도, 준비 하는 사람들의 준비도 무르익었다. 올해를 시작으로 일년에 한번 영화제 연중 행사를 자리 잡아 보자!

생기발랄 소모임으로 생기있는 우리마을



도자기 교실

6월

<흙은 어머니다> 흙의 감촉은 좋다. 맨 발로 흙 위에 서서 보드랍거나 거친 느낌을 좋아하고 미끈한 흙을 만지며 노는 것도 좋아한다. 흙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미술 재료이다.

태평동 아이들은 따숨이 시작될 때부터 한 달에 두 번 자그마한 도자기 모임을 가져왔다. 조물락 조물락 흙을 빚어 그릇도 만들고, 비누곽도 만들고 얼굴도 만들고..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반짝 반짝 평생 간직 할 수 있게 구워져서 나오니 더 특별하다. 이렇게 일 년, 이년을 다쳐온 경험으로 이제



엄마들의 모임에 도전해 보았다. 엄마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본인의 취향과 좋아하는 것은 뒷전이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이를 보여주고 싶고 아이에게 시켜주고 싶다. 핸드 프린팅 도자기교실을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보는 문의가 많았다. 성인이 하는 거라고 하면 난 그림은 못 그리는데... 하며 자신 없어 한다. 맨날 아이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엄마는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엄마가 당당히 나서 숨겨진 예술적 본능을 일깨워 보자!

메르스가 한창인 6월 도자기에 그림 좀 그려본 여성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쑥스럽게 한 분, 두 분 모인 엄마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다. 만들어진 접시에 연필로 스케치를 한다.

(연필자국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색칠을 잘 하면 된다.) 그 다음 붓으로 색칠을 해주면 된다.

엄마들은 미리 준비한 도안을 살펴 보기도 하고 열심히 스마트 폰으로 마음에 드는 도안을 찾기도 하고 시작하기에 앞서 한참 머뭇거린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도안 찾기와 그림 그리기가 다 스스로 해내야 한다. 실로 너무나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본다.

한참이 지난 후 공방 안은 너무나 조용하다. 모두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있다. 예쁜 캐릭터 그림, 단순한 선으로 표현한 그림, 그림책을 펴놓고 아이에게 선물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엄마, 냅킨을 이용해 두드리며 그림을 그리는 분, 자연의 한 장면등 .. 망치면 안 되고 구워져서 평생 쓸 나만의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긴장된다. 두 시간 정도를 꼼짝없이 그림에 몰입해서 인지 다 완성하고 나서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창작의 고통과 기쁨이라고나 할까? .. 이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작품이 완성되어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한 핸드프린팅 교실

7. 25(토)

평일 오후에 핸드 프린팅 도자기 교실을 가졌더니 엄마들이 아이들과도 함께 하고 싶다는 꼭 주말로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모임은 토요일 오전까지 직장에는 나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여름이라 아이들은 바닷속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1회 때 완전 몰입하여 꼼꼼하게 두 시간을 그렸던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의 붓은 쑥쑥 거침없습니다. 해찬이는 얼마 전 이중섭 미술관을 다녀와 게와 물고기를 가득 그렸습니다. 엄마와 딸이 세트로 바다를 그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본 분은 아쉬운 부분을 이번엔 더 보완하여 그리기도 합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나의 고뇌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은 애정이고 손길이 갑니다. 접시로 완성되면 여기에 많은 음식이 담기고 그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가 담기고 세월이 담기겠지요.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생활속에서 창작되는 살아있는 예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손바느질 모임

“저 바느질은 처음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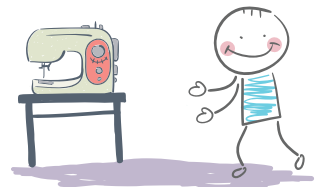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바느질은 처음 해보는 여성들, 늘 하고 싶다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

혼자서는 시작할 수가 없었던 여성들이 모여 간단한 손바느질 교실을 열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생활에서 손이 많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들을 기획하였다.

첫 시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나 둘 맛난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모이는 동네 아낙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설레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 시간엔 우리 생활



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드지갑 만들기다. 세 가지 디자인으로 각자 선택해서 재단을 하였다. 패치 워크는 조각천을 이어 붙여 각각의 천들이 가지고 있는 아기자기함과 다양함을 하나의 작품에 담아 내는 기법으로 여성들의 심성과도 비슷하다. 꽃무늬, 줄무늬, 민무늬등 다양하고 조그만 천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모습에 벅글 벅글 신이 난다.

“난 아무래도 감각이 없나봐”, “색을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쁜데... 다들 예쁜데 나만 이상한 것 같애” 서로 주고받으며 한 땀 한 땀 완성하다 보니 꽤 멋진 작품들이 나온다. “만들어놓고 나면 다 이쁘네~ 하하” 작품 이야기와 아이들 이야기, 서로 소개,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본 여섯시간이다. 한번 앉으니 완성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도 수다만 떨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 앉아 있을 것 같다. 손에는 바느질감...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뿌듯함,, 이걸 다 만들어서 내가 할까? 선물 할까? 하는 설레임 등 여러 마음들이 교차한다. 아~ 헤어지기 아쉽지만 우리 다음주에 맛난 간식과 커피와 바느질감을 가지고 만나요!

차시	내 용	준 비 물
1차시	카드지갑 패치워크, 바느질	천, 초크펜, 바늘, 실, 다리미, 다리미판, 심지, 접착슌
2차시	카드지갑 - 완성	단추, 실, 방수 천, 초크펜, 자, 지퍼, 핀
3차시	방수 파우치 완성하기(재봉틀) 호박핀쿠션 만들기	재봉틀, 천, 초크펜, 가위
4차시	방수 파우치 완성하기 핸드백 재단하기	초크펜, 가위, 재봉틀, 레이스, 린넨천
5차시	핸드백 완성하기	초크펜, 가위, 재봉틀, 레이스, 린넨천
6차시	핸드백 완성하기	셸케이스, 천, 접착슌, 본드
7차시	셸케이스 만들기	천, 자, 재봉틀

둘째 시간



처음 하는 바느질은 더디기만 하다. 간단해 보이는 게 막상 하면 세 네 시간이 걸린다. 나만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하려면 못하지만 같이 모여서 하니 이야기 하며 그 시간들이 견뎌 진다.

함께 하니 어렵고 못할 것만 같은 일이 의외로 쉬워 지는 것처럼..

지난 시간 패치워크 한 천에 솜을 대고 다리미질, 속에 카드 넣을 두 장의 속지를 만들고 전체 바느질을 한다. 가운데 창을 내어 뒤집어서 다듬은 다음 단추와 가죽라벨을 달면 완성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창작품이 완성되었다.

“와~ 이 색과 이 무늬도 괜찮네”,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굳이 네 조각이 아니라 두 조각만 이어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 품평하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 한 땀 한 땀 몇 시간씩 정성을 들여서인지 만들어 놓고 보니 내 작품에 정이 간다. 와! 이렇게 바로 창작의 기쁨이구나!

셋째 시간

방수 파우치.. 손바느질만 하다가 이번엔 재봉틀로 파우치를 만드는 시간. 재단만 하루종일이 걸린다. 두꺼운 종이로 재단을 해왔으면 좀 쉽게 그랬을 텐데 네 귀통이가 직각이 되

게 네모나게 그리고 자르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하루 내내 재

단만 하기도 했다. 조금만 실수 하면 직각이 안 맞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치수로 두 장을 각각 다르게 그려 넣고

지퍼를 먼저 달아준다. 아무리 봐도 완성이 될 것 같지

않는데 신기한 이 구조는 나중에 무엇이 될까?

이 방법은 안감과 지퍼가 달린 파우치와 가방에 많이

이용된다. 한번 배우면 앞으로든 무한 응용이 가능

하다. 천이 방수 천이라 너무 두꺼워서 손바느질로



는 어림도 없다. 처음으로 재봉틀을 배워보기로 했다. 손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핀으로 지퍼를 고정해 박음질을 하기 시작한다. 평소 재봉틀을 배우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도전은 늘 무섭기도 하고 신이 난다. 재봉틀도 드르륵~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거의 손바느질과 마찬가지로 속도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래도 무서운 재봉틀을 만져보고 응용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다. 보들 보들 방수천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의 파우치를 만드니 기분이 좋다~ 파우치는 많아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많으니까. 이걸로 뭘 담고 다니면 좋을까? 화장품? 수영복? 바느질 용품? 다 만들어 갖고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넷째 시간

지난시간 내내 재단한 사람도 있고 앞뒤 지퍼를 달았지만 이것을 어찌 해야 할지, 어떻게 변신하는지 상상이 안 된다. 지퍼를 요리 조리 달아주고 옆선을 잘 만들어 박고 창구멍을 내어 뒤집는다. 이



것도 사실 여러 번 해봐야 손에 익는다. 천이 두꺼워 뒤집기가 힘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 손에 착 붙는다.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넉넉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은 늘 짐이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 두고 두고 내 손안에서 사랑받는 소품이 될 것 같다. 방수 파우치 다 만든 분은 부지런하게도 린넨 핸드백으로 들어간다.

바느질은 재단이 80%는 되는 것 같다. 바늘로 꿰매는 시간보다 재단에 시간과 공이 더 많이 든다. 빨리 바늘과 실로 잇고 싶지만 지루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재단을 완성해 놓아야 한다. 일단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재단을 해 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빠르고 경쾌하다. 고급스러운 린넨으로 핸드백을 만들 차례.. 과정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고난이도였다. 잘 완성할 수 있겠지?

다섯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재단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은 벌써 저기까지 가있는데 손길은 더디기만 하다. 혼자 했으면 아마 포기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다. 안감, 겉감에 사선으로 주름을 잡아 주고 겉 부분에 예쁜 레이스도 붙여 주고 전체 빙 둘러 박아 준 다음 뒤집어서 지퍼를 달고 가죽끈을 달아 준다. 가죽 끈을 달 때는 두꺼워서 실수도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재봉틀이 벌써 저만큼 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땀 한땀 완성으로 나아갔다. 린넨의 촉감도 좋고 가죽 끈의 보드라운 손에 닿으니 기분이 좋다. “다시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애.” 하는 분도 계셨지만 모두들 여름 동안 멋스럽게 어깨에 걸려 있을 핸드백이 완성되어 간다.

휴가철이 끼고 7말 8초라 드문 드문 결석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다 못하신 분은 2주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완성을 계획해 본다. 다음 시간에 못나오는 분은 오늘 다 완성을 해야 해서 다 만들 때 까지... 바느질이란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내기가 어렵다. 각각 다른 얼굴, 다른 취향으로, 다른 속도로...우리 삶이 그렇듯이



여섯째 시간

“원래 바느질은 잇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완성이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하다 보면 완성이 되요~! 강사님의 말이다. 한번 바늘과 실을 잡으면 완성할 때까지 무아지경이 이른다. 온갖 시름과 고민들이 싹 사라지고 생각이 단순해진다. 거기에 창작과 완성의 기쁨까지~~ 그게 바느질의 매력인지도 모르겠다. 자신 없는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한발 한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섯째 시간은 핸드백 완성 안한 사람 완성하는 일, 또 다 완성한 사람은 쉼 케이스를 만드는 일을 시도 했다. 쉼케이스도 조그만게 손이 아주 많이 간다. 겉과 안에 천 두장씩, 솜 두장씩, 플라스틱 판 한 장씩.. 세 면을 만들어 이어 붙인다. 조개 모양 같고 손으로 벌려서 쓰는데 이어폰과 같은 조그만 소품을 담기에 그만이다. 속달되면 한두시간 안에 하나 만들수는 있지만 처음 접한 거라 물어보며 하느라 재단에만 하루가 간다. 괜찮다. 원래 바느질은 그런거니까~!



일곱째 시간

“언니! 바느질 하면서 어땀어요?” 하는 질문에 “새로운 분 많이 만나서 좋고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아요~ 아이들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게 뿌듯하다고 할까? 뭔가 여기는 마음 놓고 편안히 올 수 있는 건전한 모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한정된 사람들이 모이면 말도 좀 조심해야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편안해요!~ 하신다.

어느덧 쉼 케이스도 완성되어 가고 린넨 핸드백도 완성되어 간다. 일곱 번 만나는 동안 많게는 다섯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작품을 완성했다. 언니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했으면 못 했을것’이라 말한다. 같은 시간, 같은 힘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모여서 하면 더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인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 금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비용상 스스로 자립하여 일단은 지금 만들던 것 복습, 각자 아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되기로.. 그리고 그 모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엔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와글와글 우리마을

벼룩시장

2014년 벼룩시장이 떠오른다. 평일에 신경아파트 모래 놀이터에서 한번, 신동아 아파트에서 한번 하려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길목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구시청 앞 분수 공원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학부모 밴드에 홍보하고, 판매할 사람들 모으고 처음으로... 그 두근 두근 순간들... 벼룩시장 당일 소박하게 팝콘과 달고나를 나눠 주며 먹었는데 큰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게 작은 쓸쓸한 재미를 주는 것도 좋았던 것 같다. 뭔가 해냈다고 생각하며 마을 만들기 참여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던 벼룩시장. 벼룩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미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플랭카드만 몇 개 달고 문자 발송만 해도 이제 어렵지 않게 사람이 모인다. 처음엔 돗자리도 다 사서 나누어 드렸는데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소박하고 재미있는 마을의 벼룩시장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2015년 벼룩시장을 준비하면서 4월부터 10월까지 6회를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열기로 했다. 처음부터 벼룩시장의 목표는 준비 주체가 따로 없어도 매달 첫 주엔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 시키고 마을의 고유한 품물시장처럼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다. 근방의 수진초, 금빛초, 태평초, 성남초 학부모 밴드모임을 통한 홍보, 플랭카드, 문자 홍보등 다양한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4월 4일 첫 벼룩시장

“새봄이 왔어요! 성남문화재단 지원으로 태평동 마을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벼룩시장을 구시청 아래 분수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 4월~10월까지 월 1회정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첫 벼룩시장은 4월 4일 (토) 2시~5시 열립니다. 판매금액의 10%는 기부해 주시는 거구요 아이들과 함께 할 나무 목걸이 만들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벼룩시장에 참가했던 사람들, 여성회 회원들, 다른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주민들에게 문자 홍보를 했더니 문자를 받자마자 신청이 들어온다.

겨울을 나고 이제 막 따뜻해지려는 순간이다. 아이들의 작아진 겨울옷을 정리하고 싶고 아이들도 훌쩍 큰 것 같아 장난감도 한번 치우고.. 겨울동안 묵은 살림 정리도 하고 산뜻하게 봄을 맞이 하자는 마음이었나 보다. 아직은 구 시청 앞 분수공원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조그만 충전용 앰프를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 놓고 책상 하나 의자 두 개를 놓고 나무 목걸이 만들기를 진행했



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마을 여기 저기서 커다란 여행가방을 끌고 나타나신다. “엄마! 이제 내 옷 작아지면 절대로 버리지마~ 나 이제부터 벼룩시장에 팔거야!” 500원이에요~ 1,000원이에요~ 외치는 어린 사장님들.. 구경만으로도 눈과 귀가 흡족한 벼룩시장.

작아진 아이 옷을 여기저기서 한가득 500원, 1,000원을 주고 사왔다. 오늘도 이상하게 가져온 짐보다 가져가는 짐이 더 많은 것 같다. 앗싸~ 아이들 봄 여름 옷 해결이다! 하는 엄마들.

올해부터 이익금의 10%를 기부받아 이로운 재단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이로운 재단에서도 재미있는 모금함을 들고 나오셨다. 이로운 재단 홍보도 함께 하고.. 동전을 넣으면 빙그르르 돌다가 들어가는 모금함은 보는 것 만으로도 재미있어서 쉽없이 동전이 들어간다. 역시 모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여~~

6회를 다 치르고 나면 기부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사 당부 드렸다. 올해 첫 수익금은 5만원 가량..



5월 6일 벼룩시장

5월 5일부터 연휴라 그런지 신청자가 많이 없었지만 약 20팀 정도 들어와 진행되었다. 처음에 첫 달 토요일에 진행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잘 되든 안 되든 날짜에 맞춰 일단 진행을 해보자는 의견이었다. 마을 만들기 참여자들도 개인적인 약속이 있고 주로 주말에 하는 일이다 보니 가족 행사 등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번갈아 가며 책임을 지자고 의견을 모았다. 매달 첫 주에 모두들 와서 있기도 사실 버거운 일이다. 이번 행사는 대표가 빠지고 김진주, 김지선, 윤명희 셋이 맡았다. 짐을 나르고 옮기고 하는 것도 회원의 남편들이 도와주기로 했다.

역시 행사엔 음악이 있어야 한다. 충전용 앰프를 빌려왔는데 밧데리가 닳아 버려 음악이 없으니 심심한 분위기... 그래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구경하는 사람, 파는 사람 장이 만들어 졌다.

항상 북적대고 흥성거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냥 꾸준히 간다는 게 때론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

6월 6일 벼룩시장

5월에 이어 6월도 연휴다. 빨간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아서 밖으로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 예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여기 저기 더 홍보하고 플랭카드 붙이고.. 마을 만들기 참여자들은 벼룩시장 성사를 위해 노력을 다한다. 다행히 날이 다가 오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벼룩시장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전 벼룩시장에서 다 팔았다며 이젠 팔게 없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새로운 신청자도 생기고 ^^

이번엔 특별히 씨앗 던지기 게임을 진행했다. 도꼬마리 씨앗을 곰돌이 모양이 그려진 천에 던져서 세 개 이상 붙으면 자두 한 알 선물 ^^ 아이들이 순식간에 긴 줄을 선다. 한 봉다리 준비했던 자두가 금방 떨어졌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게임이다. 다음엔 자두를 한 박스 정도 준비해야 겠다.

수정구청장님이 방문해 주셔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다. 그동안 벼룩시장 준비를 하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전기, 사용 허가등 수정구청에서 관할하신다고 한다. 사용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간을 써서 마을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다. 매달 여는 행사이니 전단지를 만들어 수정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벼룩시장을 마무리하고 바로 전단지를 만들어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했다. 역시 사람은 모이고 대화를 나누니 지혜가 생긴다.

전단지에 날짜를 꼭 박아 댄으니.. 7월부터 10월까지도 신나게 가는거다!!!





7월 4일 우리동네 벼룩시장

7월4일 태평동의 피아노계단의 분수에서(박가네 빼다구 감자탕 앞) '우리 동네 벼룩시장'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 보통 마트에서는 30,000원 하는 것이 벼룩시장에서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다. 책을 200원에 파는 곳도 있었다. 참여한 사람들은 "아이들과 와서 매우 좋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 쥘 귀엽고 재미있었어요."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했다.

벼룩시장은 벼룩이 다닐 정도로 오래된 물건을 판다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직접 가 보면 거의 새것 같은 물건(책, 살림, 옷, 등등)들이 많다.

행사를 주최한 마을커뮤니티 '파숨'의 박지선 대표는 "작년부터 시작한 골목골목 웃음소리 들리는 골목 만들기 의 하나로 올해 4, 5, 6, 7, 9, 10(7번)매월 첫째 주 토요일2시부터5시까지(오후)에 진행됩니다. 나에게 필요 없고 버리는 물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어요. 마을에서 물건이 순환되고 아는 동네 형, 언니들이 입었던 옷,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9월,10월에도 우리동네 벼룩시장에서 태평동 주민들을 만나보고 함께 참여해보자. <금빛초등학교 5학년 황태웅>



날씨가 더워지면서 벼룩시장 운영에 심각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다. 시청이나 다른 곳처럼 우리도 천막을 치자하는 의견들.. 천막을 치려면 운영에 최소 50~100만원이 들어간다. 100만원 들여서 벼룩시장 치러서 10만원 후원금 받을 일을 해야 할까? 이려고도 환경과 지역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황성현 국장이 올해부터 마을 만들기를 같이 했는데 환경이 주된 직업이라 그런지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다. 결론은 천막을 치지 말자. 대신 시간대를 2시~5시에서 5시~8시로 옮기자!

최대한 해주는 것 없는 벼룩시장을 진행하자! 지원금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 말고 최소한의 경비로 벼룩시장을 지원하면서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게 지속가능한 힘을 기르자! 로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결론이 났다. 그래서 7월 4일에는 5시부터 여름밤 벼룩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대신 천막을 치려고 배정해 두었던 금액은 주민들을 위해 좋은 공연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섹스폰연주자, 기타 연주 동아리를 섭외하게 되었다. 공연을 하자면 좋은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것도 역시 성남 문화재단 미디어 센터 회원들에게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다.

벼룩시장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해! 하는 틀 같은 건 없다. 약속된 날짜와 장소라는 큰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위한 참여 놀이등 자율성을 주면서 변화 무쌍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점점 벼룩시장을 하는날 학교 복지 센터에서 홍보 하러 와도 되요? 여성의 전화에서 함께 해도 되요? 라는 문의가 들어 온다. 내년엔 더 많은 단체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커다란 틀이 만들어 졌다. 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함께 나눌수 있는 광장과 마당이 만들어 진 것 같다.



9월엔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로 한 달 쉬었더니 오려고 했던 참여자들이 아쉬워 한다. 우리가 왜 벼룩시장을 토요일로만 고집했을까? 원래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술관 프로그램 때문에 강사님 시간상 조절이 안 되어 벼룩시장을 하루 늦게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마지막 벼룩시장이라는 홍보 때문인지 다른 때 보다 참여 문의가 많다. 7월에 공연을 통해 좋았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 저기 섭외를 알아보았다. 수정청소년센터에서 첼로 공부하는 학생을,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 연주자를 섭외했다. 이번엔 구청에서 협조를 받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험’을 너무 믿으면 안 되지만 경험이 쌓인다는 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앰프, 전기가 원활하니 행사가 몇 배는 풍성해 지는 느낌이다.

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지막 벼룩시장을 빛내 주셨다. 사실 일 년 동안 여섯 번 벼룩시장을 한다는 게 아무리 힘을 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플랭카드 맞추고, 문자 보내고, 밴드 홍보하고 앰프 빌리고 공연자 섭외하고... 신청이 안 들어 오면 발을 동동 구르고.. 많이 힘든 일이다. 그 힘들었던 시간을 해소해 주는 느낌일랄까.. 행사 주최측이 해주는 것도 많이 없는데 재미있어 하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 하고 아이들 웃이며 장난감을 아주 싼값에 내놓고도 좋아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시기에... 2016년은 더욱 힘을 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해 볼 힘이 불끈 생긴다.

책과 친해지는 우리동네



마을 커뮤니티 따숨에는 4년 정도 모임하고 있는 책 읽는 엄마모임 <꿈보파리>가 있다. 작년엔 마을 만들기를 해도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계속 모임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책과 친해지는 우리동네>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맡았다. 마을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도 만나고 관심이 없었지만 책읽기의 재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계속 공부를 원하고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꿈보파리에 남아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성남에 살고 계시는 허은미 작가님과 통화하고 고민을 말씀 드렸더니 흔쾌히 반가워 하시며 작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강사비를 벌어서 신인 작가, 발굴하고 있는 작가, 수입이 많지 않은 작가와 함께 공동으로 쓰신다고 하셨다. 그림책 작가 협동조합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작가들로 추천을 해주셔서 의외로 빨리 내용이 만들어 지고 진행되었다. 목표는 마을 주민 40여명. 강의신청은 40명이 했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란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 차	작가	내용	주요저서
1강	서정오	옛 이야기의 힘과 매력	옛이야기 들려주기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등
2강	허은미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	우리몸의 구멍 달라도 친구
3강	강무홍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를 왜 배울까? 역사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괴물들이 사는 나라 번역 마법의 두루마리
4강	박정선	지식 정보 그림책, 어떻게 읽어줄까?	그림자는 내친구 열려라 문

첫 번째 강의 - 서정오 선생님 옛이야기의 힘과 매력

대별왕, 할랑궁이, 감은장아가가 누군지 들어 보셨어요?

반쪽이, 강림도령은요?

우리 신화,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백설공주나 피터팬이 더 친숙하지는 않은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옛이야기를 먼저 듣고 자라지 남의 나라 이야기를 더 먼저 듣고 자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뭔가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골골이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수백년 이어온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가득인데 말이죠.. 여기 서정오 선생님이 계십니다.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옛이야기를 전국을 다니며 모으고 입말체를 그대로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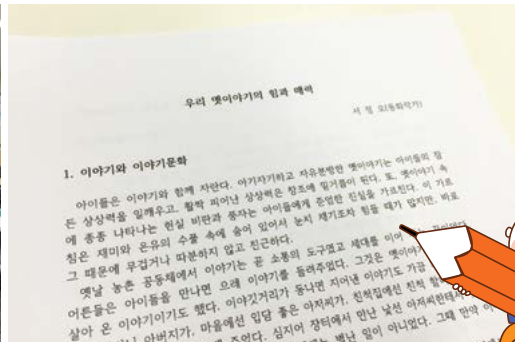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전해주려 애쓰고 계시는..

옛날 농촌 공동체에서 이야기는 소통의 도구였고 세대를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나면 으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것은 옛 이야기 이기도 하고 살아 온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소박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야기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이야기보다 지시와 명령과 평가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이어주지만 지시와 명령은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소통을 가로 막지요. 이야기 문화의 부활은 어른과 아이가 평등하게 소통하며 위로 받는 몇안되는 길 중의 하나요, 답답한 현실이 숨통을 틔우는 거의 하나뿐인 길이라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해 놓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늘 비교를 당하고, 엄친아들에 의해서 죽어 살아갑니다. 왜 어른들은 모든 걸 다 잘 하라고 할까요? 옛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같이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반쪽이는 몸이 반 밖에 없는 아이이고 형제가 셋이라면 셋째가 주인공이죠. 가난한 나무꾼, 힘이 약한 토끼, 게으름뱅이, 바보, 느림보등 약점을 가진 인물들이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약한 주인공은 언제나 강한 상대를 이깁니다. 어린이들은 약자를 자신으로 인식하면서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 하여 이야기를 즐길 수 있지요. 어수룩하고 모자란 인물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줄거리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옛사람의 귀한 생각을 만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옛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쪽이, 강림도령보다는 백설공주나 피터팬을 더 먼저 접하고, 더 많이 익숙해한다. 하지만 우리 옛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며, 남과 어울려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이러한 옛이야기를 20년 전부터 우리 옛이야기를 되살리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서정오 작가님을 만났다. 서정오 작가님은 성남에 오셔서 옛이야기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다. 작가님은 옛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서양 동화와는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들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서정오 작가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옛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 주었다.

옛이야기 주인공은 항상 약자다. 어딘가 모자라고, 집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하지만 주인공은 항상 강자를 이긴다. 이러한 전개는 자신이 약자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주고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교과서에 실리기 전까지는 전해 내려온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던 주인공이 복을 받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흔하다. 그 당시 힘들게 일하던 백성들에게는 게으름 피우지 말자. 보다는 게으름 조금 피우면 어때? 하는 말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옛이야기는 오늘날 경쟁하며 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이야기다. 옛이야기는 이렇게 관용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옛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할까?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아이들이 옛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나도 몰라~ 하며 넘어가는 게 좋다. 아이들은 옛이야기를 들으며 상상력을 키우는데, 내가 생각한 내용과 다르면 아이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것만 지키면 충분히 좋은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

옛날, 옛이야기는 소통의 도구이고, 세대를 이어 주는 끈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옛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금빛초 6 유지혜>

“전래동화가 좋다고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몰랐는데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올라오며 내가 왜 이런 것을 못하고 살았을까? 나를 되돌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통한 많은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다.” <태평동, 안미영>



둘째 시간, 허은미 작가

<백 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해>

가족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난 아이가 집을 나가기 전하는 말이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툭하면 화를 내는 엄마,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아빠, 맛있는 건 혼자 먹으면서 잘난 척은 혼자 다하는 언니 때문에 아이는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생각한다. 이제 부터는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기르고 싶은 동물도 기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따라 보며 가족들이 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화내고 집나가고 서로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빨간 끈으로 이어진 가족은 그야말로 평범한 가족이다.

작가는 그림책 강의를 다니다 보면 교육열에 달뜬 엄마들을 많이 만난다고 한다. 지식편향 위주의 교육열, 성공 위주의 아동관.. 그저 즐기고 느끼기만 해서는 불안하다. 뭐라도 하나 가르쳐야 하고 그림책도 그저 선행학습의 도구이자 눈술의 부교재나 참고서쯤으로 인식하는 부모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허은미 작가는 엄마와 아이가 그림책을 통해 만나는 하루 30분을 이야기 한다. 온전히 아이 이야기를 들어 주고 기다려 주고 눈 마주치고 기다려 주고 아이의 귀와 나의 입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그림책을 읽어 나가는 시간..

<착한 엄마가 되어라 얍!> <가족의 탄생>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엄마들은 나를 엄마

로 만들어준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착한 엄마가 되어라 압! 에서는 착한 엄마를 바라는 주인공이 나레이션을 통해 착한 엄마에 대한 로망을 말한다.

“착한 엄마는요... 입이 아주 커서 언제나 하하하 잘 웃어 주고요... 품이 아주 넓어서 안기면 폭신 폭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웃이 그게 뭐야? 엄마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했어? 자꾸 이럴거야??? #\$\$^^

눈물과 웃음 탄식으로 범벅이 된 강의실에서는 ‘진정한’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끓어 올랐다. 다른 건 못해도 하루 30분 아이와 책을 읽으며 눈을 마주치자~~

“오늘은 동화작가 허은미 선생님의 그림책 강의를 들었다. 다른 건 못해줘도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하루 30분씩 만이라도 동화책을 읽어줘라. 아이를 맘껏 사랑하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언제까지나 니 편이다 라고 말해줘라. 눈으로 보는 그림책이 아닌 귀로 듣는 그림책이어야 한다. 편견은 그것에 대해 접해 보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오늘 강의도 너무 감동이고 좋았다” <태평동 송창숙>



세 번째 만남 강무홍 작가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를 왜 배울까? 역사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햇살과 나무꾼의 주간이신 강무홍 작가님은 '아이들에게도 완벽한!!!', '어렵게 느낄 자유, 지루해 할 자유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외국의 그림책과 문학작품을 완벽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열악한 시장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은 좋은 외국의 어린이책을 번역해서 알리기도 하십니다. 엄마들에겐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번역하신 분으로 더 유명하지요. 번역뿐 아니라 직접 책도 많이 쓰시구요.

이번에 <마법의 두루마리> 라는 역사책 18권을 내셨구요~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역사책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엄마들과 함께 역사공부 좀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왜 배울까? 역사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리동네 엄마 들은 역사가 무엇일까? 떠올려 보라 했더니 고리타분, 과거, 장희빈, 사약, 자객 같은것이 떠오른다 합니다. 사약... (!!!!) 드라마에 나오는 ^^ 강무홍 작가님은 왕이나 지배층의 시각과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역사 보기로 각도를 달리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왕조의 역사가 아닌 경제의 역사, 생활의 역사, 문화의 역사 등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 아빠가 일구어온 역사에 대해 자궁심을 갖고 살았으면 한다며 작가님도 울컥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도 눈물이 왈칵~ 여성들은 보통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역사 책을 읽어 라 읽어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공부하기가 어렵죠. 역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여성들이 듣기 참 편안하고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박지원은 “옛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으니 어린이가 어른에게 길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네 번째 만남 - 박정선 작가

어린이는 채워져야 할 그릇이 아니라 점화 되어야 할 불이다

강의 제목은 '지식 그림책, 어떻게 읽어줄까?'였는데 작가님은 지식그림책이라는 말보다 논픽션 그림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신다고... 먼저 이런 제목을 제안하셨는데 지식 그림책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솔깃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일단 강의에 오시면 앞뒤 자세한 의견, 설명과 함께 Information (정보)그림책과 , Knowledge (지식)그림책, Nonfiction (논픽션) -<사실의 문학> 그

림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논픽션 그림책으로 불러 주길 원한다고 하신다. 아이들의 세상에 대한 탐구심과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존재이다. 논픽션 그림책은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실'에 작가의 철학이 더해져 문학작품으로 구성된 그림책. 아이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다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책.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글과 함께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이라고.. 생각이 반짝이게 이끌어주는^^ 작가님의 구수한 입담과 수학, 과학, 철학을 치밀하게 녹여낸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셔서 많은 책들을 소개받았다. <즐거운 이사놀이>, <생태일기>, <열려라 문>, <누구나 논다>, <우린 동그란 세포였어요>, <형은 크다, 나는 작다>. 진화론을 담은 책 두 권을 비교 분석 해주시면서 어떤 책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충실하면서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는지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했다. 지적 욕구가 넘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는 공부를 결코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그림책은 그 문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좋은 책이 참 많다. 몰라서 못 읽지~ 동화읽는 엄마모임을 4년째 하는데 작가님이 소개 해주신 책 대부분을 몰랐다는.. 흠~~ 마지막 강의라서 개근하신 분들께 특허받은 때수건을 선물로 드렸다. "아이와 책을 읽는 시기도 다 때가 있다!!!" 라는 설명과 함께.. ㅎㅎㅎ





1회 하루 종일 태평동 마을축제

어느덧 마을 만들기의 각 프로그램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슬슬 축제를 준비할 시간이다. 가능한 빨리 축제를 치르고 싶어서 10월 10일로 잡고 주민센터에 상의를 했더니 10월 9일~10일은 동 체육대회로 이틀간 금빛초등학교를 예약했다고 한다. 24일은 숲골축제가 있고 17일은 새마을 부녀회가 바자회가 있으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사전에 주민센터와 논의를 하니 날짜를 조율하고 앞 뒤 행사를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 17일로 금빛초에 예약을 해 놓고 새마을 부녀회를 만나보았다. 바자회는 부녀회의 행사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는 행사로 이마트에서 물품 후원을 받고 먹거리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런데 먹거리 식기류를 다 나르기가 어려워서 같이 하기는 어렵고 같은 날 주민센터와 금빛초에서 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금빛초 학부모 회장님과는 따로 만나서 오전엔 금빛 초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준비하는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오후 2시부터 체험마당, 오후 5시에 공연마당을 진행하기로 프로그램을 짰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라 축제 이름이 <하루종일 태평동 마을 축제>가 되었다. 과연 잘 할 수 있겠지?

축제 일을 잡아 놓고 홍보물이 나오고 하니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체한 느낌이 든다.

광활한 운동장에 과연 사람들이 올까? 너무 썰렁하면 어떨지? 혹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한달 전부터 준비 하고 회의 하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계획서 쓰고.. 변경하고.. 계획서 쓰고..

시간	내 용	주요저서
9시 ~ 12시	금빛초 운동장 가족 벼룩시장 & 먹거리 마당	금빛초 학부모회
2시 ~ 5시	체험마당 -신주옥 작가와 얼굴 그림그리기 -도자기 물레 돌리기 체험 <빛다공방> -천연 방향제 만들기 -전래놀이 체험마당 (굴렁쇠, 딱지, 제기, 쌍쌍이, 고누, 비눗방울 등) -캘리 컵등에 소원담기 -색깔이 변하는 UV팔찌 만들기 -성남 여성의전화 <성폭력 방지 캠페인> 열쇠고리 만들기 -가족사진 찍기	마을 커뮤니티 따숨 성남 여성의 전화 성남 여성회
5시 ~ 6시30분	공연마당 -더 맑음 -비눗방울쇼 -여성 직장인 오카리나 공연 -숲놀이 아이들 노래공연 -어린이 오카리나 공연 -어린이 장구 공연 -박신원 어린이 노래 -태평4동 최정숙 강사님 노래 공연	마을 커뮤니티 따숨





홍보, 홍보, 홍보~ 홍보만이 살길이다.~

금빛초 전체 학생들에게 전단지가 돌아가고 각 주요 골목에 플랑카드 걸고 포스터를 뽑아 회원들과 함께 시간대별로 날을 잡아 붙이러 다녔다. 박지선 대표의 가방에는 2주 동안 포스터와 테이프가 언제나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든지 좋은 장소가 보이면 양해를 구하고 붙이고 붙이고.. 축제 며칠 전에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다 집에다 맡겨 놓고 총 동원되어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다. 이 마음이 잘 받아들여 지고 부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참가를 따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서 그날 당일의 행사에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전혀 짐작도 되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알리는 수 밖에...

청소년 봉사활동의 조직과 구성

페이스북에 축제 소식을 알렸더니 분당 구미동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본인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보내 봉사활동도 시키고 어떻게 마을 축제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다. 성남시 자원봉사 센터에 올리기도 전에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완료 되었다. 태평동에 살고 있는 중학생을 둔 회원들의 자녀, 마을의 아이들이 총 동원되었다.

아이들은 10월 17일 오전에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축제 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들은 다음 각자 선전물을 들고 나가 주민들을 만나 한 장 한 장 나누어 드리며 안내를 하였다. 처음이라 봉사활동에 대한 비중이 좀 적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미리 미리 마을의 청소년들에게 공지하여 뽑고

교육 시키고 홍보하게 하고 준비 자체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이 장이 아니던가...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 2명~3명씩 체험 활동 부스로 투입되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을 축제를 이끌어간 또 하나의 보물 들이다.

드디어 17일! 하루종일 태평동 마을 축제 - 금빛초 벼룩시장

금빛초 학부모회에서는 10월 17일 가족이 함께 하는 벼룩시장을 진행했다. 사용했던 물건 중 이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와 펼쳐 놓은 팀은 60팀 정도가 된다. 가족들이 그늘막을 펼치고 운동장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정겨운 풍경이었다. 금빛 초 학부모회에서는 학부모들이 그동안 재능기부, 예절교육을 진행했고 메르스로 인한 2주간의 발열체크, 두 달 동안 주말동안 지저분해진 운동장을 월요일에 청소를 하는 등 아이들이 즐겁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봉사해 왔다. 남은현 금빛초 학부모 회장님은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하는 모습,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고 귀여웠어요! 고학년들은 먹거리도 사먹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겐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평했다. “아이들이 문구





나 작아진 옷, 생활용품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일 년에 한번 벼룩시장에서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을 시작으로 금빛초의 꾸준한 연례행사가 되어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가져 본다.

구름떼 같은 체험 마당

처음이라... 모든 것이 용서되는 하루 ^^ 전문적인 행사 진행하는 업체도 아니고 엄마들이 처음으로 하는 대형 행사라 오랜기간 준비 해도 어쩔 수 없는 어설픈 점이 많았다. 2시에 체험 행사 시작해야 하는데 천막은 길이 막혀 늦게 오고... 당장 아무것도 시작 할 수도 없고 벌려 놓지도 못하고 애타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 보며 천막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천막업체가 전화도 안 받고 속을 썩였는데 (혹시나 안 올까 봐 덜컥 겁이 나기도...) 길이 엄청나게 막혀 늦게 도착했다며 막상 아저씨가 도착하니 화가 나기 보단 눈물겹게 고맙기 그지 없었다.

예정 시간보다 30-40정도 늦게 시작된 체험마당 πππ 만약 안 나타 나셨다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그동안 준비 했던 모든 일이 다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 저기서 아이와 함께 기다리던 가족들이 천막이 쳐지자 금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체험마당은 회원들이 그 동안 경험했던 것들 중 엑기스를 뽑아 구성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너무 도식화 되지 않는 체험, 자연스럽고 즐길 수 있는 또 문화 예술적 감각이 높은 체험들로만 구성해 보았다. 민예총의 저항예술제에서 만나 바로 섭외한 신주옥 작가의 얼굴 그림그리기. 굵은 선으로 얼굴선을 명쾌하게 그리고 단순한 색으로 똑딱 그려내는데 신기하게도 주인공을 절묘하게 닮아 있다. 작가는 세시간 내내 화장실도 못갔다고 하신다. 그래도 마을의 작은 체험 행사가 즐겁다며 다음에도 또 불러 달라 하신다.

아이들과 2년 전부터 도자기 체험을 해온 빛다 공방의 물레 돌리기... 선생님도 역시 화장실도 못하고 세시간을 물레에 매달려 있었다. 줄이 길었지만 성심껏 지도해 주셨다.

천연 방향제 만들기는 오랫동안 문화센터에서 강의해 오신 서향수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천연 재료가 듬뿍 들어간 두툼한 방향제는 집집마다 걸려 향기를 전하며 그 가을의 금빛초등학교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전래놀이 체험마당은 따로 지도 선생님이 없이 여성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고생해 주셨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비눗방울의 비눗물은 금새 닳아 없어지고 굴렁쇠는 4개를 샀는데 턱없이 모자랐다. 마을의 박건화 어른신이 멋지게 운동장 한바퀴를 굴렁쇠로 굴리는걸 보고 바로 강사 섭외를 하게 되었다. 열심히 굴리지만 아이들의 굴렁쇠는 금방 금방 떨어져 버린다. 처음엔 좀 배워서 연습하는게 좋을 것 같다. 색색으로 제기도 만들어 보고 썩썩이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역시 전래놀이의 힘을 발견한다. 다음엔 여기서 놀이마당까지 열어봐야 겠다. 캘리 컵등에 소원담기도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물푸레 도서관의 김영신 관장님이 고생해 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건강 해요!" 등 가족의 염원을 담은 글귀를 캘리로 쓰고 컵 아래에 등을 꽂아 밤에 밝히면 무드등이 되는 컵등이다.

만들기 간단하면서도 과학적 원리를 알 수 있는 UV팔찌 만들기는 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못해 150개를 준비 했는데 너무 빨리 동이 났다. 아쉽다.

성남 평화연대의 김미라 강사님의 가족사진 찍기도 인기 있는 부스였다. 별도의 장비 없이 자연광이랑 반사판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사진을





뿔아 드렸다. 스마트폰도 많고 사진기도 흔하지만 전문 작가가 찍어주는 가족사진은 훨씬 멋지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표정의 가족사진은 이렇게 오늘도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긴다. 마을 축제를 한다고 하니 태평 2동에 소재한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문의 전화가 왔다. 요즘 <성폭력 방지 캠페인>을 하는데 마을축제에 와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다.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 주민들을 찾아 열쇠고리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설명도 해주신다니 감사하다. 축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프고도 절실한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 여성의 전화 관계자 분들이 모두 나와 선전물도 세워 주시고 내용을 담아 주셨다. 마을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더 밀접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이외에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태평2동 복지회관에서 연락이 왔다. 올해는 서로 모르기도 했고 늦었지만 내년엔 꼭 한번 같이 준비해 보자고...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되면 관심있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내년엔 놓치지 말고 하나 하나 엮어 내고 올해 놓쳤던 것들을 잘 주워 담아 더 성숙한 마을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을의 작은 공연... 작아서, 소박해서 좋다.

5시가 공연 시작이었다. 체험마당을 끝내고 공연으로 사람들이 그대로 공연으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꼭 그런건 아니었다.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마을 축제는 하루종일 이니까! 오전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벼룩시장을 오면 되고, 오후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체험마당, 공연 마당에 오면 된다. 10월이 되자 급속도로 해가 저물어서 걱정이었다. 행사비를 최소로 하다 보니 해가 있을 때 끝내려고 조명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순서는 여성들의 오카리나 공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저녁에 모여 오카리나 연습을 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고 한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님과 함께>, <딱따구리 폴카>가 흥겨움을 돋구었다. 지난 2년간 영장산에서 숲체험 활동을 한 아이들의 무대도 예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탬버린, 캐스터테츠 같은 리듬악기와 함께 <선물할게>, <감홍시> 노래가 울려 퍼지자 어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 보았다. 아이들은 노래를 잘 해도, 잘 못해도 귀엽고 예쁘다. 이어 지는 예인 음악학원의 아이들 오카리나도 멋졌다. 학원에서 매일 같이 배우는 만큼 단정하고 정갈한 소리가 난다.

처음 공연 마당을 준비할 때 준비 주체들은 메인 공연을 무엇으로 할지 가장 크게 고민했다. 사자춤으로 할까? 풍물로 할까? 버나 공연으로 할까? 며칠 고민 끝에 가장 대중적이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버블쇼로 정했다.

역시 버블쇼가 열광의 하이라이트. 버블쇼 담당자가 안전요원을 배치 해 달라고 했다. 아이들이 어찌나 열광을 하면서 물려나오는지 자칫하면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아이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어른들도 얼굴도 싱글 벙글.. 아이들의 공연이 끝나고 이어서 이어지는 어른들을 위한 무대. 태평 4동 최정숙 노래강사님의 노래가 이어지자 수강생들이 멋진 꽃다발을 들고 환호해 주셨다. 마을의 인기스타 신가 보다. 이번에 새로 노래를 받아 본인의 노래를 부르신다는데 유명해 지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부대로 더 맑음의 가야금과 함께 하는 버스킹. 동네에서 이런 젊은 친구들의 버스킹을 보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만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에 빠져 본다. 공연 마당은 다행이 해가 지기 바로 전에 끝이 났다. 축제가 끝나고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





왔다. 그림책 사진 찍기 부스 짐도 싸야 하고 각종 체험 행사에 쓰인 준비물 챙기기,

무대 해체, 쓰레기 수거 등 자원봉사자들과 커뮤니티 따
숨 회원들의 멋진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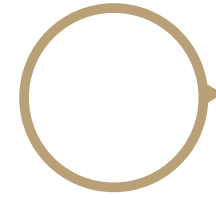
하루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가족사진도 찍고, 체험하면서
여러가지 만들어보기도 하고, 멋진 공연도 보고 ~~ 하루면
다 끝나는 일.. 한달 넘게 준비하며 준비 주체인 사람들은 너
무 힘들어서 내년엔 안해! 를 연발했다. 생전 처음 하는 일들
이라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라까..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
니었다. 편하게 이벤트 회사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
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쪼개고 쪼개어 알뜰하게 쓰면서 최대
한의 효과를 살리고 이런 혜택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자
함이었다.

작년에도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었는데 작년은 판교 환풍구 사고로 축제들이 다
취소되면서 마을 만들기 2년차 이지만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일이었다.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참여한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해 했다.

체험학습에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심각하게 토론했다. 다만 1,000원이라도 받아야 너무
많이 물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적당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야 한다는 의견.. 축제에 가서 돈 받고 그러면 부담되기도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참여했
다가 덤탕이 쓰는 느낌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일단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
께 하기 위해 가능한 무료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 졌고 실험적인 단계를 거쳤다.

“학생들이 그렇게 자원봉사도 하고 마을에서 그렇게 봉사하는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
되요. 평소에 체험해 보지 못한 체험도 하고 재기 만들기 같은... 재기, 굴렁쇠, 물레체험이 좋았구요
~ 그냥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논다는거 자체가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6살, 8살 이다보니 비
눗방울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만족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동
하는 마음을 많이 배울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태평동 김성미>



마을의 미래를 생각한다

"천막이 너무 늦게 왔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책임 소재가 대표에게 너무 몰려 제제하게 체크가 안된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엔 복지회관이란 같이 하자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잘 꾸려서 초기부터 준비하고 분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대 꾸밀 때 풍선도 좀 달고 만장이나 풍물 행사도 하면 어떨까요?

재료가 너무 부족했어요. 체험 마당의 종류를 줄이면서 400명 분량으로 넉넉히 준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조끼를 입는 건 어떨까요? 누가 참가자고 누가 자원봉사인지 구분이 안되더라구요.. 자원봉
사는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몇 일 정도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해요. 마을 만들기의 후대를 양성한다는 마
음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에 임해야 할 것 같아요.

뒷정리 할 때 빗자루랑 쓰레받이 장갑이 부족했어요. 뒷정리까지 담당을 정해서 용품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엔 마을의 아이들, 장기자랑 등 더 풍성하게 모아 봐요.. 숲놀이 아이들도 좋았는데 예인 음악
학원 아이들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주어 좋았어요. 그런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 보면 많을 거예요.
축제 준비 위원회를 꾸리는 게 좋겠어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일단 한번 보셨으니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밤 늦도록 끊이지 않고 나오는 평가 회의.. 아쉽고 모자란 것만 많이 보인다. 벌써 내년엔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며 저절로 떠오른다.



일 년 동안 태평동 마을만 생각하며 달려왔다. 간혹 돈도 안되고 떡도 안나

오는 일에 무에 그리 열심히냐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
다. 운영을 함께 했던 팀장들은 내가 능력이 모자란
건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이 것밖에 못하는 건 아닌
가? 아무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애 늘 초조해 하면
서 뒤돌아보고 옆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사람이 정을 나누며 사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와글

와글 들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기에 모든 어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을을 함께 하는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수영장의 쌀 한 톨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살아가기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힘들고 각박해진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버티기 힘들지도 모른다. 소득이 1만불이 넘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회의 고른 소득과 질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어느덧 국민 소득 2만불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삶의 질보다는 양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웃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한다.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 초등학생의 행복도가 꼴찌인 나라.. 노인들의 행복도가 꼴찌인 나라. 비정규직 천만, 유일한 사다리인 학벌 위주의 사회..

“여기는 마음이 놓이고 건전한 곳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모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선종연님의 이야기가 귓가에 머무른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마음 편이 이야기 나누고, 정을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같이 추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이게 행복이다 라고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면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젠 나 말고 이웃을 바라 보자! 함께 손을 잡자! 우리를 움직이는 세상에 함께 손을 잡으며 작은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나 혼자 잘 사는 게 무슨 재미 있겠는가?

“마을들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땅값이 비싼 평야 지대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젊음과 활기와 모험 정신을 불려익혔다. 길에서는 건장한 남자들과 여자들, 다시 시골 축제를 즐기며 웃게 된 소년 소녀들을 볼수 있었다. 즐거운 생활로 몰라보게 달라진 토박이들과 새로 온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예제아르 부피에 노인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단 한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만으로 이 불모지에서 가나안이 솟아날 것을 돌이켜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아무래도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

나무를 심은 사람 중에서.



금광1동

Seongnam-si
Geumgwang1-dong

금광1동 마을 커뮤니티 **꿈광리이야기**

꿈광리 이야기

1. 꿈광리는?
2. 2년차 사업에 즈음하여
3. 꿈광리 마을센터
4. 주민자치센터 활동

꿈광리 문화마을

1. 인재를 키우는 꿈광리 마을학교
2. 별을 헤는 꿈광리 별밤캠프
3. 모두가 하나되는 꿈광리 마을축제
4. 역사를 이해는 청소년여름방학캠프
5. 하나되는 도·농 교류활동

꿈광리 문화마을 뒷이야기



새성남교회

101

108

109

장미골

꿈광리이야기

- 금광2동에서 바라본 꿈광리 -

꿈광리이야기

1. 꿈광리는?

금광동의 명칭 유래는 ‘금광리’라는 자연취락의 이름을 살려서 동명으로 한 것이다. 금광리에는 고려 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김약시(金若時)가 은거하여 살다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광산 김씨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라 칭하였다.

• **일반현황** : 9,451세대 인구수 21,703명(남 11,137명, 여 10,566명) [2015년 11월 30일 기준]

2. 2년차 사업에 즈음하여



꿈광리 마을센터장 박 준 후

2년차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커다란 벽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멋도 모르고 시작한 1년차 사업을 미흡하지만 무사히 마무리 짓고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는 더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2년차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많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마을의 특수환경(재개발)과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여 논의 끝에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내년이면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가 시작되는 동네 여건상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입주 후에도 마을을 기억할 수 있는 무형의 사업에 부합되는 여건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했다. 특히 전년도 판교 참사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꿈광리축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올 한해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뒤돌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내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각오를 여백으로 남겨두고 싶다.

끝으로 올 한해도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꿈광리 마을만들기'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꿈광리 마을센터

재개발추진지역(2016년 8월 이후 이주 예정)이며 높은 언덕과 비탈진 고갯길이 대부분이며 문화공간이 없는 작은 마을이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기도 하여 꿈광리 마을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였다. 주민들이 화합과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 후에도 꿈광리 마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을만의 문화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언제나 해가 뜨는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목표

금광1동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동네 문화자원 발굴과 찾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사업을 하며 발굴한 자원을 활용하여 재개발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4. 주민자치센터 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2015년 한해는 주민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예, 에어로빅 등 35여개 프로그램이 일 교육을 진행되어 마을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움과 나눔의 장이 펼쳐집니다. 2016년에도 35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강생과 함께하는 작품발표회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한 교육생들의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가 펼쳐졌습니다. 300여명의 손님들이 찾아 주셨고, 서예 등의 작품전시회와 에어로빅 등의 공연 발표회를 즐겁게 관람하였습니다. 또 수강생들의 노래자랑과 초청가수의 공연도 어울어지는 나눔의 장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에어로빅(블랙폭스) : 8명 마을축제 재능기부 공연, 체육대회 응원단 및 공연 활동
- 밸리댄스(화려한외출) : 5명 사회복지시설 재능기부 공연(생일잔치 등)
- 서예(송묵) : 10명 지역내 장애우시설에서 식사도우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로서 단오부채나눔 및 가훈써주기 활동

꿈광리 문화마을

1. 인재를 키우는 꿈광리 마을학교

재개발 이후 돌아오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실시한 리더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 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탄탄해져 가겠죠.



- 기간 : 2015년 8월 ~ 10월(월1회)
- 장소 : 금광1동 주민센터
- 참여 : 25가족 100명(1차 마을학교 수료자 35명)
- 내용
 -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심화과정
 - 마을의 역사 바로알기에 대한 주제토의 및 발표
 - 마을전문가 초빙 특강
- 추진성과
 - 1차 마을학교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초와 리더 양성
 -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심화과정을 통해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2015년 마을학교 운영에 멘토,멘티 활동과 주민화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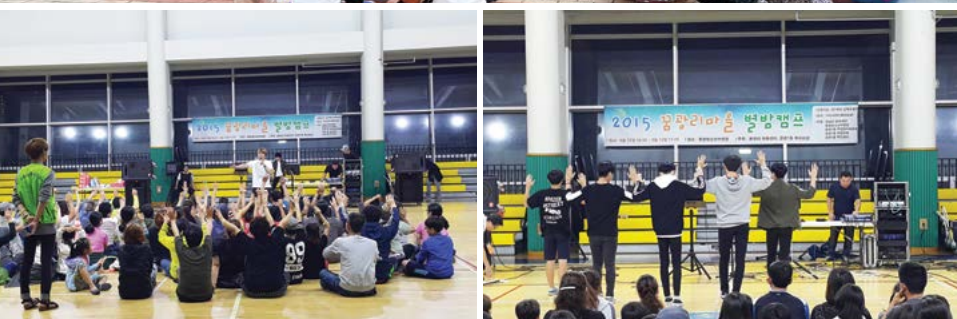


2. 별을 헤는 꿈광리 별밤캠프

전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안의 캠프로 청소년들을 위주로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는 1박2일 캠프를 행복한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작지만 큰 사랑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 기간 : 2015년 9월 12일~13일(1박2일)
- 참여 : 30가족 130명(부모와 자녀 동반 참여)
- 장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캠프장
- 내용 : 전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안의 소통 힐링캠프
 - 가족텐트 설치 및 오리엔테이션
 - 가족미션 대항전(대문 명패만들기, 요리 콘테스트)
 - 가족레크레이션, 풍등날리기
- 추진성과 : 청소년 위주의 가족캠프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회복 및 소통으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3. 모두가 하나되는 꿈광리 마을축제

주민소통과 화합하여 서로 배려하고 전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안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축제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11:00~15:00
- 장소 : 관내 마트 주차장
- 참여 : 200여명(관내주민 누구나)
- 내용 : 재능기부공연, 체험부스, 벼룩시장, 먹거리코너 운영
- 성과
 - 주민 스스로가 마을 자원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유도
 -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 강화





5. 하나되는 도,농 교류활동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 예안면을 방문하여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사과따기 행사를 실시하고 수확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유대관계를 쌓았으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간 : 2015년 10월 29일(금) 08:00~19:00
- 장소 : 안동시 예안면
- 참여 : 30명
- 내용
 - 유관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한 농산물(특산품) 직거래
 - 사과따기 농가체험 및 농산물 가공공장 견학
- 성과
 - 자매결연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특산품) 직거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4. 역사를 이해는 청소년여름방학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경복궁 및 북촌 한옥마을 탐방하였으며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기간 : 2015년 7월 29일(수) 08:00~19:00
- 장소 : 6개소 경복궁, 북촌한옥마을/생활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서울타워전망대, 트릭아이뮤지엄(박물관은 살아있다)
- 참여 : 30명(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 내용 :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체험
- 성과
 -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으로 현장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 부여



꿈광리 지난이야기

1. 별밤캠프 후기

가. “올해도 못 가?”



김 지 혜

“올해도 못 가?” 둘째 아들 녀석의 입이 쭉 나왔다.

매년 여름, 아빠와 캠핑을 계획했다가 일이 바빠 캠핑 한번 아니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 온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이들 유치원 때 까지만 해도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정작 아이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할 때는 부득이하게 계속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다 금광1동 꿈광리 마을센터에서 주최하는 꿈광리 별밤캠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집에서도 가깝고 아빠가 시간이 안되더라고 주민과 함께하는 캠프인지라 혼자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었다.

혼자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이부자리, 여벌옷, 세면도구를 챙기면서 벌써 나의 체력은 바닥. 그러나 신나있는 아이들을 보며 한 차 가득 싣고 캠프장으로 출발했다.

혼자 채비를 하느라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감사하게도 텐트까지 쳐져 있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이란 문패를 달고 상품도 타니 방전됐던 체력은 충전되어 신나게 요리대회에 출품할 ‘꽃게품은 오뎡탕’을 끓이고 준비해간 오뎡꼬치를 캠프에 참가한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이웃의 골뱅이무침, 카레라이스, 닭갈비의 맛도 일품이었다.

아이들과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강당에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었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이 끝나고 아

빠들의 신발 멀리던지기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아이들 아빠가 무대위 아빠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아닌가?

늦게라도 온 아빠를 아이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결승전까지 나가서 상품도 타게 됐다.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이 당연한 거지만 최근 몇 년 휴가까지 반납하며 바쁘게 일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감사하기까지 한 순간이었다.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각 가족들은 연등에 각자의 소망을 적어보았다. ‘요리사, 사육사, 개그맨’ 아이들의 꿈도 적어보고 ‘닌텐도, 핸드폰’ 갖고 싶은 것도 적어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요 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우리의 소망을 담은 연등을 하늘에 날릴 때 뭔지 모를 몽클함. 나 왜 이러지?

모든 일정이 끝나고 취침시간이 되었지만 저녁식사도 못한 남편과 이미 소화가 다 된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았고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삼겹살을 들고 오신 우리의 천사님.

늦은밤 빗소리를 들으며 야외에서 지글지글 구워먹던 삼겹살, 새벽까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캠프하면 캠프용품, 매끼식사, 놀잇감, 여벌옷들, 세면도구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피로감과 낯선곳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해서 사실 나는 캠프가 두려웠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감수하려고 했던 꿈광리 별밤캠프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행복을 느끼게 해 준 감사한 경험이 되었다.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과정까지 온정신, 온몸으로 애써주신 금광1동 꿈광리 마을센터분들께 감사드린다. 선물 못 가져가는 사람 한명도 없게 모두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

삼겹살과 물, 컵라면까지 준비해 주신 넉넉한 마음,

혹여 위험이 발생할까 자원봉사까지 동원하여

살뜰히 챙겨주신 섬세한 마음,

마지막까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캠핑이었다.

내년 꿈광리 별밤캠프도 예약, 광광광!!!



나. 금광1동 주민과 함께하는 꿈광리마을 별밤캠프....



박 선 희

올해로 2번째 맞이하는 별밤캠프~~~

작년 별밤캠프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축제를 하였기에 2015년 별밤캠프에 대한 의욕과 커다란 숙제가 생긴듯했다. 별밤캠프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여러번의 준비회의를 거쳐 최대한 준비를 마치고, 들뜬 맘으로 참가할 가족을 접수받았다.

아뽕싸!!! 날짜가 이리 겹칠 수가 학교의 각종 행사와 성묘가 겹치는 바람에 참가인원이 저조했다. 작년 별밤캠프엔 너무많은 가족의 호응으로 올해는 넘치는 인원 조절을 신경쓰며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잔치를 시작해볼까요~~~~

중원구청소년수련관 캠프장에 도착하여 다시한번 텐트 및 참여자 체크를 끝내고 푸짐한 경품을 바라보며 설레임에 들떠 별밤가족맛이를 준비했다.

첫 번째 가족 입성과 함께 줄지어 다른 가족도 합류하였다.

텐트 및 준비물을 나누어주며 행복한 이웃사촌을 예약해 주었다.

배정받은 텐트로 집을 짓고 나만의 멋진 문패달기, 요리자랑,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을 끝내고 보슬비가 내렸지만 소원을 담은 등도 무사히 띄울 수 있었다. 허락된 외박을 하며 모처럼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뜻깊은 밤을 보냈다. 1박2일 다소나마 진행과정은 미흡했지만 사고없이 무사히 별밤축제를 마쳤다.

별밤캠프에 참석해주신 많은 가족들과 캠프를위해 애써주신 금광1동 꿈광리 마을센터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늘 수고해 주시는 동장님 및 총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과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를 마치고



장 미 영

꿈광리 마을 행사로 1박2일이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입구를 장식한 텐트의 행렬이 낮설고 어설퍼 보였다. 여러동의 텐트 주인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 속에 나의 맘도 포근한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다.

각 텐트의 이름을 정하고 맛나게 요리를 뽐내는 시간(소고기김치찌름, 김밥, 떡볶이, 오뎅, 카레 등) 각각의 맛난 음식을 맛보며 이웃간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레크레이션과 가족의 장기자랑(역시 춤과 노래를 겸비한 화목한 가족의 모습) 넘 좋았다.

등에 소원성취의 글도 남기고, 등도 띄웠다. 모두모두 이루어지길....

늦은 저녁 각 가정엔 맛난 삼겹살 파티를 하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에 일어나 마무리하며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현황을 체크하며 많은 상품들을 한아름 안을 수 있는 기회들도 접했다.

빠른 경제의 흐름 속에 대부분의 가정들이 맛별이를 하며 학교와 학원에 지쳐 가정의 소홀함이 느껴지는 시점에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내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든다. 나 또한 나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흡족한 미소를 띄우며 집으로 귀가했다.

끝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추진해 주신 금광1동복지관, 꿈광리마을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2016년에도 더 활기찬 별밤캠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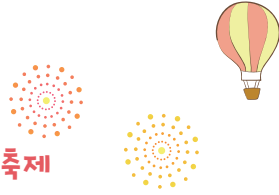
꿈광리마을, 꿈이 빛나는 마을.

금광1동 최고로 사랑합니다.



2. 마을축제 후기

가. 넓은 주차장에서 열렸던 꿈광리마을 축제



벨리댄스 김 원 재

푸른 물이 똑똑 떨어질것 같은 가을 하늘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날 마트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체험부스가 시골 장터처럼 정겹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살갑게 인사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동네 주민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시식코너 돌며 장보듯이 체험부스를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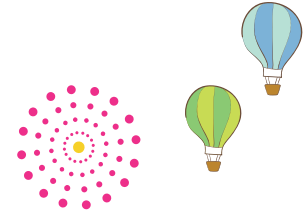
우리 가족이 입을만한 옷도 벼룩시장 부스에서 찾아보고, 양증맞은 액세서리 부스도 돌아보고, 조그만 가방에 그림도 그려서 꾸며보고, 무료로 가훈도 써보고, 꼼꼼히 돌아보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김밥, 떡볶이로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화려하고 열정적인 공연에 웃고 박수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습니다.

드디어 경품추첨의 시간 귀를 쫑긋 세우며 열심히 번호적인 종이를 보았지만 빈손이네요^^ 하지만 당첨되신 분들의 환한 웃음에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어느새 나누어 주신 생수도 거의 비워지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치는 시간이 되었네요. 이런 흥겹고 즐거운 마을잔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나는 동네 금광1동 꿈광리마을 파이팅!!!



나. 꿈을 꾸는 금광동! 꿈을 이루는 금광동!



에어로빅 정 복 희

“에헤라디여~~~~” 국악으로 시작한 ‘꿈광리마을’축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초입인데 유난히 덥던 토요일 오전에 ‘꿈광리마을’축제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뛰고 걷기를 반복하며 축제에 장소에 도착하고, 어르신들은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마을 축제 장소에 입장을 하신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어 좌석은 어느덧 가득차고 흥겨운 축제가 이어진다.

한 쪽에선 페이스 페인팅, 비즈 공예 등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준비하게 늘 어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을 끈 것은 당연 페이스 페인팅! 얼굴과 손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으로 수를 놓은 아이들이 무엇이 즐거운지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 또 다른 쪽에선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떡볶이, 어묵, 잔치국수 등 간식들이 선택을 기다리 듯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수강생들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등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환호성이 온 마을을 뒤덮는 듯하다. 마을 축제를 위해 다른 동에서 온 취미교실 수강생들의 발표회도 신선하게 다가오고.....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가 이어질 때마다 마을 어르신들이 흥에 겨워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신다.

발표회 사이사이 상품권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두근두근 하는 마음은 기쁨의 환호성과 아쉬움의 탄식으로 나누어지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무슨 마을 사업이야’ 하던 생각은 꿈광리 마을축제, 별밤캠프, 세미나 등을 통해 바뀌게 되었고 부정적이던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참여하는 마을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꿈광리마을 사업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내가 사는 동네를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3. 주민들의이야기

꿈광리 마을 2016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수엄마

마을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나 탐방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노엄마

타동 거주자지만 관내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주민센터 이용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무

마을만들기를 리더하시는 분들은 타단체와 지니치게 중복되게 가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채엄마

내년에도 한다면 별밤캠프 시기를 잘 조정하고 홍보하여 더 많은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영예

우리 금광1동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라져가는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자료를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직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니 소식을 전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희

거점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행사 추진에 대한 토론 및 회의 등 의견을 나눌 수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으니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을 정확히 정했으면 합니다.

김진태

우리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비탈길(언덕길) 등 사진콘테스트를 꿈광리축제에 담았으면 합니다.

지윤,무겸,규리

제 아이에 엄마입니다. 별밤캠프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리 경연대회를 하면 어떨까요?

정복희

해돋는 마을, 친절한 마을, 행복한 마을, 깨끗한 마을을 꿈꾸는 금광리 마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쉬워요!!!

방선희

학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체험하고 싶고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었는데 그런 문화체험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준호맘

아이들이 TV속에 나오는 만화속 주인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아이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해요. 다음 기회에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4. 감사의 글



가. 해뜨는 꿈광리 마을



금광1동 행정팀장 김 진 태

대부분 20평 분양지로 이루어진 서민층 주거밀집지역으로 굴곡진 비탈길로 이루어진 정감있는 마을로서 겨울철 강설로 인한 미끄럼과 주택재개발로 인한 도시 재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민의 손때 묻은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재개발 후에도 옛 사람들의 삶의 정취를 담아 후세에 알려 이 땅위에 정과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잠시 이주했다 다시 찾아올 마을, 새로운 사람들의 이주로 동화하여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 지금의 이 마을사랑이 접목되어 해뜨는 꿈광리 마을로 재탄생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벼룩시장, 노래자랑, 핸드메이트 팔찌 등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등 하나 된 주민과 함께 흥겨운 꿈광리 마을축제는 재개발 이후 다시 오고 싶은 마을로 기억될 것이다.

더 좋은 마을만들기는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며 서로 사랑하며, 참여하며 살아가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천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쓰레기는 적정장소에 버리고 내 주변 청결하게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더 나아가면 취약지나 공한지에 꽃밭가꾸기, 삭막한 곳에는 벽화그리기 등으로 밝은 마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재개발 이후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종합복지회관 같은 마을 센터가 조성되어 이웃간 세대간 차도 마시며 공연도하며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가는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희망과 꿈이 넘치는 꿈광리 마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꿈광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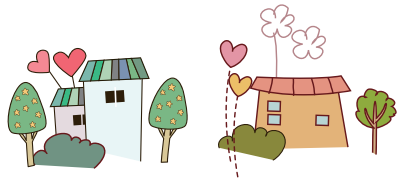
언덕위에 푸른 꿈광리 마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며,

정성껏 마을을 가꾸어가고 있는 박준후 마을센터장,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 해뜨는 꿈광리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발도장 살짝 쿵~



금광1동 주민센터 안 영 선

해뜨는 꿈광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금광1동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인수인계 받을 때 전임자의 말 한마디 저희 동 하반기에 행사 엄청 많을 거예요. 실감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이제야 조금은 안다고 해야 할까요? 발 도장만 살짝 쿵 찍으며 지켜보던 공무원도 바쁘다는 생각을 했으니 직접 발로 뛰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자고 행동으로 옮기며 실천하던 박준후 꿈광리 센터장님, 학부모 대표님, 마을만들기분과 위원님들 그 외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새삼 느껴집니다.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동 기능이 사라지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주민조직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동처럼 마을 만들기에 기초를 다진 동이 순조롭게 순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여간 진행된 마을학교, 별밤캠프, 마을탐방, 마을축제 등을 지켜보면서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이 주도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주민참여 행사시 주민이 우선시 되지 못하고 다수의 내빈과 축하 등으로 의식행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주민의 축제의 장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행사의 성격과 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마을학교는 재개발 이후에도 돌아오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바로알기, 리더 양성 등 마을전문가의 특강 등으로 꾸며지면서,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지던 문화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새롭게 입문하는 주민들에게는 멘토·멘티가 되어줄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절된 이웃 간 관계 회복을 통해 소통하고 세대 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별밤캠프 등이 개최되어, 1박 2일간의 마을 안 캠프를 통해 텐트와 텐트로 전해지는 이웃의 따뜻함과 소중함, 경쾌한 웃음이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 마을 탐방을 통하여 마을 리더의 역할, 주민들의 입장,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나고 우리 마을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지역자원을 통한 재능기부 대상자를 발굴하여 마을축제에 체험부스와 문화공연이 구성되어 서툴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재개발에 따른 주민 이주가 예정되어 마을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마을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이 넘치는 동네가 되도록, 2016년도에는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해뜨는 꿈광리문화마을 만들기 화이팅!

금광1동 복지회관 內 한사랑어린이집 관장 이 윤 주

2015년 금광1동복지관과 어린이집 근무를 시작하면서 마을만들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걸 알았을땐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고 감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며 사업을 했던 위원장님과 이은지 복지사선생님이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었고 조금씩 함께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하나가 되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정리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큰 의미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더 나은 모습으로 계속되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우 일년. 간신히 첫발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는 아이와 같은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재개발이라는 또다른 난관이 함께 하겠지만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길이기에 더 단단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금광1동 화이팅입니다!

금광1동 복지회관 內 사회복지사 이 은 지

금광1동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시작했던 마을만들기가 벌써 2년차가 되어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얻어가는게 많았던 한해 였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빛나는 마을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화이팅!



Q 2년차 마을만들기를 마치고 느끼는 소감은?

A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할 점은?

A 주민들의 참여유도가 힘들었고 지역네트워크와 연계가 미흡했으며 마을 리더들에 지속적인 교육이 보완됐으면 한다.

Q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A 재개발 제외지역에 대한 외부환경 개선사업과 이주전 주민갈등 해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거 같다.

Q 향후 계획은?

A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므로 주민갈등 해소와 남겨진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 등에 중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거 같다.



도촌동

Seongnam-si
Dochon-dong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자연, 사람, 그리고 섬마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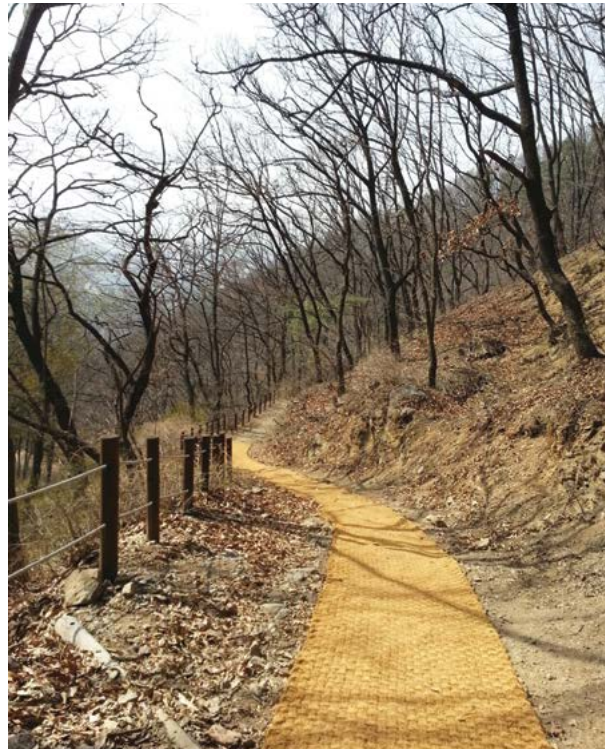
1. 2015년 “자연, 사람, 그리고 섬마을 이야기”
2. 섬마을의 다문화 이야기
3. '다문화 가족과 책이야기', 북 콘서트
4. 이효석 문학촌 가족문학기행
5. 두물머리 가족 생태기행
6. 가족생태이야기
7. 나는 꼬마 정원사
8. 나는 마을 활동가
9.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

2015년 “자연, 사람, 그리고 섬마을이야기”

올해를 뒤돌아보니 뭔가 짝 찬 느낌이 든다. 한 해 한해 조금 더 마을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나도 많이 컸구나'하며 이웃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던 내가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가까이 보이지 않는 이웃을 찾아낸 느낌이 들어 더욱 기특했던 것 같다.

작년에는 “우리문화로 하나 되는 섬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익히고 즐기며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좀 더 공동체영역을 확대하고 싶어서 작년에 했던 활동 중 지속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마을 축제와 신 문 만들기, 문학기행을 선정하여 계획하고 문화재단 지원으로 새롭게 “가족생태 이야기, 꼬마정원사, 마을활동가와 마을 소개 책 만들기,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을 계획하였다.

우선 지속사업으로 진행한 마을축제는 기존의 축제와 차별화하고 싶었다. 축제의 주제가 정확히 들어나고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연속성이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마을프로그램으로 주변의 다문화 가족과 함께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살려 우리 마을에서 몽골, 미얀마, 중국, 일본의 다문화 강사를 모셔 그나라의 문학, 도서관, 교육, 생활이라는 내용으로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좋은점은 받아들이고 비슷한 점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의 다문화 가족이 원하는 공동체 활동을 들으니 무척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짧게 한분이 2회씩 강의를 짜고 4분이 4회를 진행되어 헛수가 짧은 것 같이 생각이 들었으나 알차고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섬마을의 다문화 이야기



처음 중국수업에서는 가까이에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소수민족들의 종류를 알려 주셨고 공산주의라서 좋은점과 나쁜점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공감가는 부분은 중국은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고 가정적인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부분이었다. 그분들도 한류 드라마로 우리나라 남성을 이해했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기도 했다.

그래서 교육 참가하신분이 앞으로 중국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하시며 웃음을 주었다. 두 번째 수업에서 중국의 간식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단오

음식인 쫄즈를 만들어 보았다. 쫄즈는 찹쌀을 대추나 열매를 싸서 나뭇잎으로 싸서 삶거나 찌먹는 요리였다. 우리나라의 약밥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 개 먹으니 주먹밥 먹은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았다. 나뭇잎은 중국 상점에서 판매하는데 태평역 뒷골목에 있는 중국인 가게가 많아서 그곳에서 샀다. 중국상점들이 많아서 '성남시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성남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사실 그분들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다음 몽골 선생님은 더 우리나라 사람 같았다. 섬마을에서 몽골 분들이 모여 함께 교류를 많이 하셔서 따로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셨다. 도촌동에 사시는 분들도 7명 정도는 된다고 하셨다.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다. 내몽골은 중국안에 있는 몽골이라고 생각하니 쉽게 이해가 되었다.

아직도 게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며 게르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할까 걱정 되었는데 그곳에도 우편배달부가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안다고 한다. 옛날에는 연락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주지를 만들어 서로 연락망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는 길을 찾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가장 별이 잘 보인다는 몽골, 가면 주변에 넓은 평원만 있어서 게르와 자연 체험하고자 가족들도 많이 여행을 간다고 한다.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서 사진을 찍어주고 돈도 받는다고 하니 조금 씩씩했다. 순수하던 사람들도 주변의 영향을 받고 변하는 것 같다. 몽골 시내에는 도시화 되어 아파트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산다고 한다. 찜질방도 있단니... 대자연 몽골에 한번 가서 체험하고 싶은 곳이다. 내년엔 한번 추진해 볼까?

몽골은 음식이 많지 않다고 한다. 몽골식 만두와 우유를 끓여서 만든 차 종류가 주류인것 같다. 몽

골 만드는 소고기와 양파만 넣는 것과 양고기를 넣는 만두류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소고기간것과 양파, 소금으로 간을 해서 만두를 만들어 구워 먹었다. 만두는 우리나라의 군만두 같았지만 소고기가 들어있어서 든든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모란에 몽골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하에 있어서 술집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들어가 보니 벽에 몽골 사진이 있어서 몽골 분위기가 났다. 거기에서 양고기 만두와 우유차도 마시고 다양한 몽골 요리를 체험해 보았다. 양고기 만두는 양고기 냄새가 조금 나긴 했는데 소고기 만두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납작하게 만들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이참에 내가 몽골식당도 다 가보고...

직접 몽골 전통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신발까지 봐도 지금도 세련된 느낌이 있었다. 유목민이라 장화 같은 부츠를 신은 것 같았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원나라가 조상인 몽골인은 그들의 지리적 요건에 맞게 적응해서 슬기롭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미얀마 선생님은 약간 검게 그을린 모습이 태국 분 같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중학교 영어선생님이셨다고 했다. 한국분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로 들으니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듯 공감 많이 되었다. 미얀마는 더운 나라라서 버블티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사먹는 버블티가 미얀마에서 유래되었다니 놀라웠다. 다들 맛있는 음료를 마신다는 느낌에 적극 참여하였다. 버블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버블 재료를 사서 삶으면 되는 것이었다. 다음엔 집에서 해봐야지 생각되었다.

미얀마의 전통 옷은 지금 입어도 괜찮은 깔끔한 파티복 같았다. 평상시에 입고 다녀도 튀지않는 옷으로 몸매가 된다면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이었다. 수업하시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전통 옷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랐다.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알고 있는 미얀마는 현재 버마와 미얀마 혼용



해서 불린다고 한다. 그 나라의 정치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가까이에 봉사자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워낙 차분
하시고 예의가 바르셔서 일본 여자분 들은 모두 순종적이고 착하신 것 같은 생각
이 들었다. 그분들을 통해 전래놀이도 배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책도 일
본어 원서를 보는 것 같았다. 이슬이의 심부름 시리즈나 구리
구리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는 그림책이라
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

함께 간식으로 타코야끼도 만들어 보았다. 수내동에 일본식자재
슈퍼가 있어서 가보니 일본 요리 재료는 거의 있는 것 같았다. 그
곳에서 재료를 사서 만들어보니 밖에서 사먹는 것과 같은 맛이 났
다. 위에 파슬리와 소스까지 뿌리니 완벽했다. 다들 기계를 사다가 집
에서도 해주고 싶다며 호응인 높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간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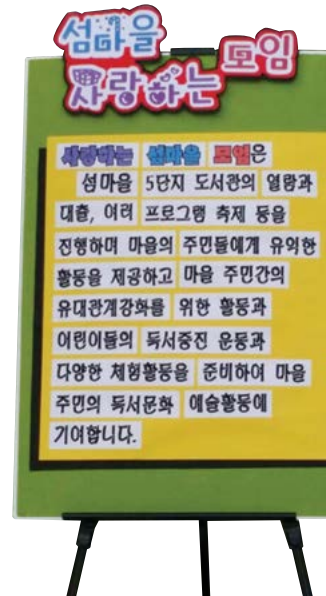


내년에는 외국어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어 보기도 하였다. 일단 중국어, 일본어는 수강자
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

'다문화 가족과 책이야기', 북 콘서트

다문화 수업을 다문화 이야기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소수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함께 즐기는 “다문화 가족과 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북
콘서트를 계획해 보았다.

6월 20일 그날이 단오라 우리나라 단오놀이 와 세계의 명절 체험, 공연을 준비한다면 더욱 의미 있
을 것 같았다. 그러나 슬픈 6월 메르스로 인해 행사는 연기해야 해서 8월 22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여름이라 단오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
램을 추가하였다. 다문화 이야기의 강사들이 모두 출동하여 다
문화 부스를 마련해 그 나라의 전통 옷, 장난감, 인형, 책, 사진
등을 전시해 주시고 전통무용 공연까지 준비해 주셨다. 중국춤
은 두분이 해 주시고 몽골과 미얀마는 한분이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음악에 맞추어 공연을 해 주셨는데 이색적이고 재미있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다른 다문화 가족도 재미있어 하시고 이웃분
이 공연하시는 모습에 놀라시는 것 같기도 하였다. 우리공연도
당연히 빠질 수 없어서 시작공연은 민요팀인 청사초롱팀을 초
청해서 진행했다. 우리소리를 마을 공연에 꼭 넣는 것은 이제 습
관처럼 되었다. 역시 선택은 탁월했다. 공연비가 작아 4분이 오
셔야 하는데 2분만 오셨다며 그래도 걱정 말라며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주셨다. 작은 공연비에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다음에는 걱정하게 준비해서 4분을 모셔서 공연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두 분이지만 네 분 이상으로 멋지게 4곡의 타령을 준비해 주셨다. 창부타령이 시원하게 울려 퍼지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도 듣고 어서 나와 참여 할 듯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합창하며 자리를 정리해 주셨다.

이 날 진행은 북 콘서트인 만큼 책 축제 기획을 많이 하신 박형섭작가님이 도와주셨다. 도서관축제를 많이 진행하시다 보니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다양했고 집중도 잘 시켜 주셨다. 박수를 잘 치는 어린이를 경품 선물을 주니 아이들의 호응이 더욱 높았다.

우리소리와 다문화 공연을 마치고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쯤마 세시봉의 기타 공연이 이루어졌다. 삼평동에

아주머니들이 프로처럼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부럽기도 하다.

스리랑 세자매의 첼로 중주로 공연을 마치고 체험시간에 작가의 방에서 아이들에게 싸인을 해주시던 김인자 작가와 진행을 맞아 주시던 박형섭 작가가 진행하는 가족책 이야기 시간 이었다. 김인자 작가가 ‘누꼬’라는 책을 읽어주고 나머지 책들도 소개해 주셨다. 김인자 작가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쓰시고 관심이 많다고 하셨다. 함께 참여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해 주셨다. 오늘 처음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웃처럼 절친하게 느껴졌다. 김인자작가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계셔서 더욱 와 다으신 것 같다.

이번 북 콘서트는 예전의 정기적인 축제인 듯 하지만 다문화 먹거리로 중국의 자단, 몽골만두, 미얀마의 버블티, 일본의 타코야끼를 준비해 다양한 다문화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다른 몽골만두는 너무 많이 준비하여 약간 눅눅하고 독특한 맛이 있어서 음식이 조금 남았지만 타코야끼는 많이 먹어봐서인지 인기가 많았다.

먹거리는 중학교 학부모회와 새마을 부녀회, 섬말 사랑방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책표지 디자인하기와 책 표지가방만들기는 도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도와주셨다. 나머지 다문화 전통옷 열

쇠고리만들기, 풍선 가면만들기, 작명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은 도촌중 하모니 봉사단이 함께 하였다. 페이스 페인팅은 오늘 첼로 중주공연을 준비한 스리랑 자매가 봉사해 주었다. 체험봉사와 공연까지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마을일을 함께 하면서 좀더 마을을 이해하고 이웃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나중에는 서로 고마워 하는 분들도 계신것 같다.

먹거리도 테마를 정해서 하니 준비할 때는 힘들었지만 다음날은 보람이 있었다. 자단은 중국 향신료를 넣고 달걀을 삶는 것이었는데 10판을 준비해서 삶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중간에 약간 껍질을 깨주어 색깔을 넣는 것이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중간에 터진 것은 저녁으로 봉사자들과 먹었다. 2개 이상은 질려서 달걀은 삶다며 독특한 향신료의 흔적을 찾아본다.

봉사자중 한명, 중국집 탕수육에서 이런 향이 난 것 같다며 우리는 그날 저녁 버블을 삶고, 보드를 만들고, 타코야끼를 만들어 보며 북콘서트날 먹거리를 체크하고 체험내용을 정리했다.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자동이다.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알고 자기 능력껏 도와준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서로에게 고마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마을 프로그램의 무형가지 일 것이다. 모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것을 실현한 섬마을의 다문화, 가족 이야기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하신분들과 참여한 이웃들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쉬웠던 점은 홍보 기간이 짧아 모르는 분도 계셨고 6월에정인 행사를 8월에 진행하다보니 여름행사를 준비하면서 얼음의 양을 조절하지 못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난다.

항상 준비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모두 보이니 끝나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다문화 요리를 많이 준비했는데 어색해서인지 몽골 만두는 많이 남았다. 모두 정리하고 도서관에 모여 남은 재료는 저녁으로 먹고 아이들에게는 파닭과 피자를 시켜주었다.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서로 수고에 고마워한다.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섬사모 회원들은 답을 안다.



이효석 문학촌 가족문학기행

작년엔 김유정문학촌으로 가족문학기행을 떠났다. 애니메이션박물관과 김유정 문학촌, 레일바이크까지 체험하고 16가족이 한마음이 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올해는 이효석 문학촌으로 계획하고 효석문학제 시작일에 맞추어 9월 5일로 계획하였다. 다행히 오전에 약간 흐리긴 했지만 허브나라와 효석문학촌 체험하기에는 좋은 날씨였다.

허브나라에서 허브비빔밥과 햄버거스테이크를 점심으로 먹고 효석문학촌에 갔다. 문학촌은 메밀꽃으로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를 버리고 친구와 언니들에게 붙어서 체험을 하고 있었다. 가족문학기행의 묘미는 다른가족과 뒤엉킬 때 즐거움을 느낀다. 2~3가족은 어울릴 기회가 많으나 16가족은 쉽지 않다. 작년에 참여하신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참여하신 가족도 있다. 새롭게 참여하신 가족은 문학체험이 무척 신기하신 듯 하다. 이렇게 새로운이웃을 알게 되는 계기는 문학만한 것이 없다.

문학관에서 서로 인증샷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너무 많이 내려서 비를 맞고 갈 수는 없었다. 1차우산이 있는팀이 먼저 메밀국수집으로 들어갔다. 평창에 오면 메밀국수는 먹어줘야지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메밀전병 골고루 시키고 가족들을 데리러 우산을 들고 나가니 벌써 들어오고 있었다. 그새 소나기가 그친 것이다. 소나기도 추억이라며 웃으며 들어오는 금속언니를 볼 때 마을에서의 갈등을 저런 메시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본고장에서 먹는 막국수는 웬지 더 맛있는 것 같다. 식사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모두 소나기가 나중에 내리서 다행이라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는 힘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오면서 잊지않는 이야기 '내년에 어느 작가 문학촌에 가나요? 꼭 알려주세요. 함께 하니 좋아요. 이웃도 알게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등등...

그래서 우리도 생각한다. 내년엔 어디?



두물머리 가족 생태기행



섬마을은 자연이 아름다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자연과 이웃은 닮아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많은 도움을 주지만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어할 때 가 있다. 그때 알게 되면 더욱 자세히 보이고 더욱 예뻐 보인다. 마을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첫 번째 수업으로 두물머리 생태수업을 하기로 했다. 5월이어서 갈때에는 조금 막혔으나 그곳에는 단체가 우리팀만 있었다. 그래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다.

7시 30분 조금은 이른 시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한 시간 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두물머리. 이곳엔 두 분의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는 두 조로 나뉘어 생태 탐방에 나섰다.

간 곳은 곤충 표본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비, 잠자리, 바구미 등과 쉽게 볼 수 없는 비단벌레,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까지 다양한 곤충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곤충의 생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분리해 내는 작업도 해 보았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그런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였다.

다음에 간 곳은 동물 체험이 가능한 곳, 그곳에는 염소, 오리, 병아리, 터 뱀, 고슴도치, 이구아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손으로 만져보고, 설명도 듣고, 뱀을 목에 감아보기도 하면서 동물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야생화 단지로 가서 꽃이름의 유래와 특징을 듣고 더욱 야생화가 예뻐보였다.

마지막으로 진흙탕에서 직접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진흙탕에 들어가길 꺼려하던 아이들도 곧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미꾸라지를 잡기 시작했다. 진흙탕에서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 온 걸 아쉬워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의 손에는 선물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야생화 단지에서 보았던 허브식물, 노루궁뎅이 버섯,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선물로 받았다. 가족과 함께 해서 더 즐거웠던,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한 뼘 더 자라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가족생태이야기

도촌동은 영장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개울물이 맑아 1급수라고 한다. 맹꽂이가 있고 두꺼비가 사는 마을.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마을.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도서관을 거점으로 주변의 자연을 알아보기로 했다. 많이 보이지만 이름도 모르는 나무, 이름은 알지만 어디서 살기시작 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식물들이 많다. 우리 주변의 자연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가족생태 이야기 수업을 만들었다. 선착순 15가족을 모았다. 유아와 저학년 가족들이 많았다.

작은도서관에는 다양한 자연을 대상으로한 그림책이 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며 자연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물머리체험후 김병하 작가와 한영식작가를 1회씩 초청해 작가강연과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김병하작가는 그림책작가로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는 작가로 유명하다. 작가님을 우리주제와 맞는 고라니텃밭이라는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텃밭에 아욱, 감자, 상추 등을 심어 수확하려는 찰나, 동물의 습격으로 밭이 엉망이 되고 만다.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보고, 철망을 쳐 보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직접 인간 허수아비가 되어 텃밭을 지키기로 한다. 그때 온 동물이 바로 고라니 형제, 고라니 형제에 마음이 약해진 아저씨는 고라니를 위한 텃밭도 남겨두기로 한다. 아저씨는 사진으로 텃밭을 만드는 과정과 텃밭이 일궈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림책으로 그려지기까지의 과정도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그밖에 작업실에 등지를 튼 새도 사진으로 직접 보여줘 생생한 강의가 이뤄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강연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엔 하얀 화분에 그리고 싶은 것을 가족의 개성을 살려 그린 후, 고추모종과 상추 모종도 직접 심어보았다. 상추와 고추모종을 직접 심고 이름도 붙여주며,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나는 꼬마 정원사



요즘 정원사자격을 따시는 성인이 많이 늘었다.

정원사는 원예사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꽃뿐만 아니라 나무와 모든 식물을 관리하고 꾸미는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정원사라고 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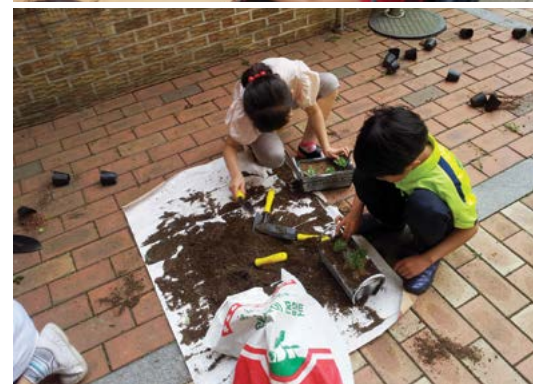
자연을 알고 자연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원사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은 마을의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성인들도 꽃과 나무의 유래와 관리방법까지 알게 되면 더욱 예뻐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꼬마 정원사는 말 그대로 마을의 정원을 이해하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업이다. 개강하자마자 마감되었고 결석률이 낮아 아이들의 욕구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다.

봄강좌 4회, 여름방학 1회 신규식물원견학, 가을강좌 4회로 계획하였다. 혹시 가을엔 잊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재등록이 이루어졌다. ‘내년에도 꼭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한 강좌중 1순위이다.

아이들이 자연을 알고 가꾸고 지나다가도 하루에 한번씩 물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자연사랑, 이웃사랑이 느껴진다. 작은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진정한 커뮤니티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진행해보면 아이들은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장을 마련하고 함께 즐기며 더불어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다.



나는 마을 활동가

도촌동은 다양한 분야의 마을 활동가들이 있다. 각자 위치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런 분들을 마을 활동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있다. 또한 저소득자녀를 위한 도촌지역 아동센터와 새날 교육센터가 있고 마을기업 섬마실과 섬마을 공동체가 있고 섬마을 5단지 작은도서관,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이들은 각기 위치에서 열심히 그들만의 색깔로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한다.

우리 섬마을 사랑하는 모임은 각기단체에 중복회원이기도 하면서 축제나 마을 행사에는 모두모여 함께 참여한다. 우리단체의 행사는 알리려 노력한 반면 다른 단체의 행사나 활동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모임의 취지는 우리행사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활동하는 행사를 하자는 의도였다. 그렇게 하려면 일정과 장소, 체험내용, 공연 등 모든 내용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바쁘신분들이 활동가 분들 이어서 첫 시간에는 선물이 될 수 있고 축제의 노하우를 알기위해 파주출판단지로 견학을 갔다. 오전 9시에 출발해 오후 2시에 도착하려니 뻘뻘하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해설사에 의해 출판단지의 내력, 출판사별특징, 지혜의 숲의 책 이용방법, 등 알게 되었고 시간이 된다면 하루종일 머물고 싶은 곳이고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고싶다는 분들도 많았다.



준비회의를 할때는 다양한 장소를 준비하기도 한다. 전시물을 볼수 있는곳이나, 풍경이 좋은곳 마을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준비하는 시간도 즐겁고 웬지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 모두 봉사활동이다보니 각자 시간을 존중하고 그시간을 알차게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만일 체험부스정하는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에게는 최종안을 바로 전화해 결정하고 진행하게 하여 참여하신분들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도촌종합복지관과 도촌지역아동센터에서는 2분씩 꾸준히 참여해주셨고, 섬마을 사랑방과 섬마을 공동체는 두 번 참여해 주셨지만 진행되는것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자료를 바로 받고 일정에 준비는 서로 도와서 하니 그분들도 만족해 하시는 듯 했다. 꾸준한 모임시간이 있으면 좋겠으나 연말, 연초,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큰 행사는 함께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활동가 모임에는 책축제 기획자인 박형섭작가를 초청했다. 박형섭작가는 현재 축제의 방향과 주변사례를 들며 잘된예와 그렇지 않은예를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고 책을 만들때의 주의점과 다른마을의 책을 보여주었다. 그책의 내용중 기억남는 내용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과 그이야기가 옛이야기처럼 와 닿는다는 점이다.

우리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이야기도 좋을 듯 했다. 어울림 한마당의 벼룩시장때 경매하는 방법이나 경품을 마을 상가사장님이 가게 상품권 증정하는 방법은 새롭게 와 닿아 모두 재미있어 했다. 이번어울림 한마당에서 복지관 과장님이 경매를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규칙은 만원이상 넘지않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즐거운시간을 갖는 팀은 많았다.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



2015년 10월 31일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을 도촌 주민센터에서 하기로 계획했다. 처음에는 예전과 같이 도촌주민센터 강당에서 예정하였으나 5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과 올해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할 행사조율중 도촌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고 강당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

작년에 설립된 도촌종합복지관은 도촌동 주민에게 많은 기대가 있는 곳이며 복지관 관계자분들은 마을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의견을 듣고 다른단체와 조율하기를 원했다.

그런면에서 작년에도 복지관과 협력하여 축제를 진행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부터는 년초부터 만남을 가졌다.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은 큰 틀은 섬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만들었지만 모든 진행은 마을 활동가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관에서는 바자회와 벼룩시장을 준비하기로 했고 우리는 모든체험마당과 공연을 총괄하기로 했다. 체험마당의 체험내용은 각기단체에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그 단체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도촌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해본 양초캘리그래피체험이었다.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중 가장 아이들이 좋아했던 미니어처 만들기체험, 몽골다문화동아리가 준비한 인형, 게르만들기와 섬마실에서 조청을 만들어 팔았고 섬마을 공동체는 타로체험과 전통놀이체험을 준비해 주었고 섬마을 사랑방과 도촌중학부모회, 새마을 부녀회, 하모니 봉사단은 섬마을사랑하는모임에서 준비한 체험을 함께 진행했다. 함께 준비할 때 각기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다음은 섬마실에서 모두 준비한다.

주민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울림 한마당에는 다양한 주민이 모두 체험과 공연을 참여한다. 활동가 단체에서 공연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복지관 실

버 하모니카, 지역아동센터의 오카리나, 로잔 피아노학원의 합창, 무림합기도의 합기도 공연은 진정한 주민공연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과 체험은 진행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번 복지관에서 준비한 바자회는 기업후원을 받아 수익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을 복지관에서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뿌듯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단체에게 경품선물을 부탁드렸다. 공연중 주민들에게 드리기로 하였고 준비한 단체도 명시해 드렸다.

피아노학원에서는 연주용 리코더, 합기도에서는 줄넘기, 섬마실에서 천연비누, 지역아동센터에서 라면냄비, 섬사무에서는 유물만들기 세트를 준비했다. 다른 단체는 포장을 해오셔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2개씩 준비해 주셨다. 각기 단체별로 선물1~2개를 부탁드렸는데 2~4개 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선물은 주민들에게 응모권과 진행시 퀴즈를 내서 선물을 나눠 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준비한 보람이 있었고 마무리후 6시에 활동가들이 모여 간단히 차와 치킨을 먹으며 섬마을 어울림 한마당 평가회를 하였다. 행사후에 다시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모임을 진행했다 모두 만족한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내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젠 매년 행사로 자리잡은 어울림 한마당은 다양한 색깔로 모든 주민이 함께 하고싶은 행사로 자리잡은 듯 하여 더욱 뿌듯했다. 이제는 어디서 준비하느냐는 의미없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두 만족하는 행사가 의미 있음을 느꼈다.





서현1동

Seongnam-si
Seohyeon1-dong

함께 행복한

서현1동 마을문화 만들기

1. 서현1동의 소개
2. 서현1동의 마을커뮤니티
3. 성남문화재단과의 만남
4. 마을커뮤니티 활동
5. 종합평가 및 비전
6. 행복마을회의 대표 인터뷰

1. 서현1동의 소개

마을의 유래와 현황

서현동 마을의 역사를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고을의 명칭이 통로골(通路谷)과 양현(陽峴), 돈서촌(遡書村)의 세 개 마을로 형성 되어 있었다. 돈서촌(遡書村)에는 그 옛날에 한 선비가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글만 읽다가 후학을 가르치던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부쳐진 이름이라고 하며, 양현은 햇빛이 따사로운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통로골(通路谷)은 백제 불교의 성지이며 불교도들의 요람이었던 울리(栗理)로 넘어가는 통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울동(울리)에 있는 금강사 터에는 기와 파편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마을 명칭 또한 온통 불교 이름들이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명칭이 서현(書峴)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돈서촌(遡書村)에서 서(書)자를 따고 양현(陽峴)에서 현(峴)자를 따서 서현(書峴)으로 이름지었다. 그 후에는 광주군 돌마면 서현리이었다가 1971년도에 경기도성남출장소로 편입되었다.

1973년에 성남시 승격과 동시에 서현동으로 승격되고 1975년 성남시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어 이매동 관할이 되었다. 그 당시 돌마 출장소 위치는 이매동에 있는 현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자리이다. 1989년 중원구(中院區)에 편입되었다가 분당신도시로 개발되면서 1991년 9월에 분당구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료제공 : 서현1동 주민자치위원 한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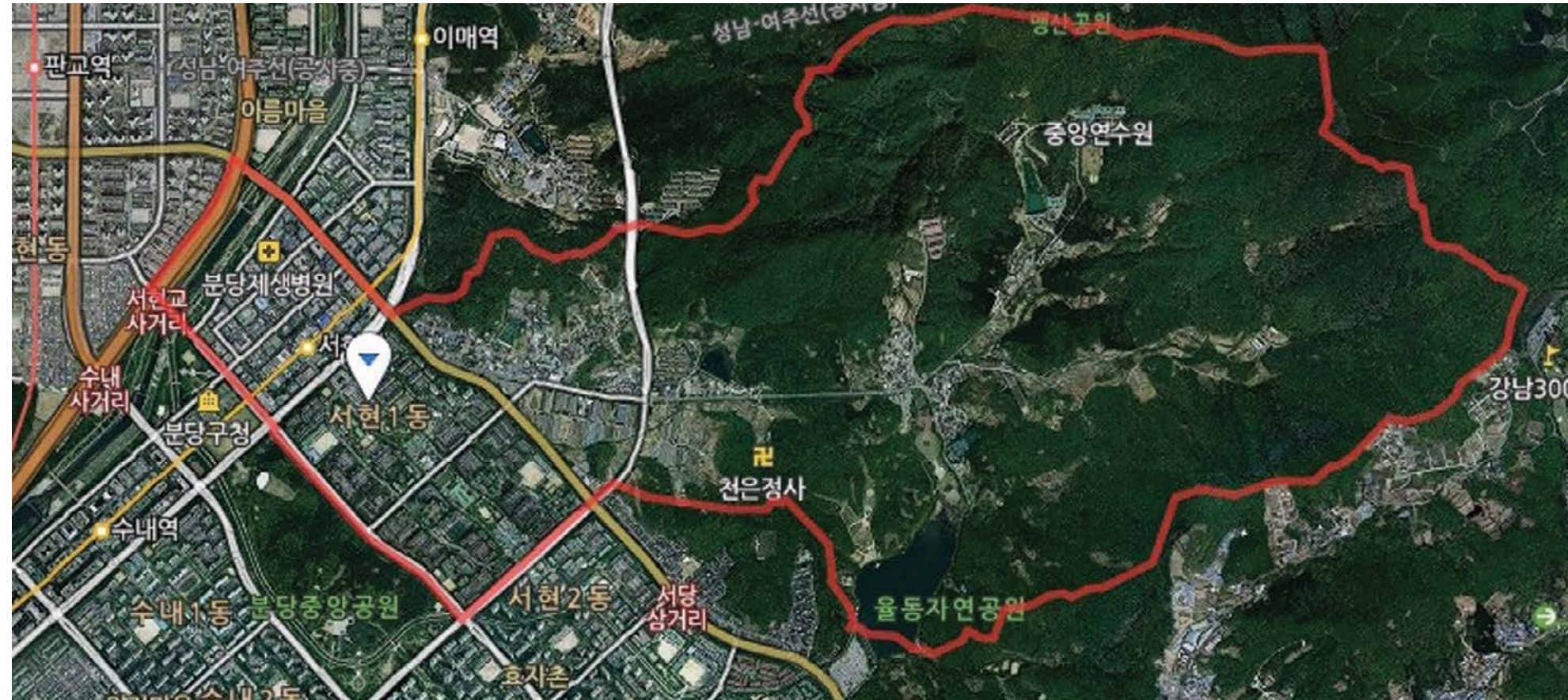


서현1동은 울동까지 관할하며 약 12,000세대, 32,6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울동공원을 비롯한 4개의 공원과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성남교육 지원청, 서현 지구대, 서현 문화의집, 분당소방서, 분당우체국, 새마을운동중앙연구소, 국군통합병원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종합병원, 올림픽스포츠허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과 자연부락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자연적으로도 영장산을 중심으로 울동공원, 서현 저수지 등 풍부한 녹지가 있다.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가 마을의 중장기 과제를 주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2014년 12월 15일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분당이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마을토론회에서 발제자 단국대 김현수 교수는 분당이 도로, 공원 등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가지고 있고 강남 접근성 양호, ICT 등 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재건축, 리모델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 공공기반시설 확보 등 다양하고 폭넓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토론자중 윤정중 LH 도시환경연구실장은 향후 10년이 되면 전면적인 도시재생이 현실화 되므로 지금부터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향후 서현1동이 대면해야 하는 주요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주민의식

2014년 11월 마을커뮤니티의 활동 방향수립을 위해 성남시의 후원으로 서현1동 거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주민 간 친밀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반면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지역의 불만족 사항으



로는 교통주차, 지역의 노후화, 높은 거주비용이 많았다. 한 달에 하루는 마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5%가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 참여에는 응답자의 6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서 마을커뮤니티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민의식이건만 현실적으로 서로 낯선 마을분위기는 마을의 지도자 및 관계자들이 많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며 마을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구성된 행복마을회의 임원들의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서현1동의 마을 커뮤니티

서현1동의 마을 커뮤니티 활동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현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성남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하고 달리 서현1동에서는 마을커뮤니티 활동을 처음부터 관내의 모든 단체들이 합심하여 하자는 뜻이 있었다.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의 출범

2013년 안영학 동장(현재 성남시 녹지과장)이 앞장서 주신 덕분에 행복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마을주민 7명이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유관단체들이 모여 행복마을만들기의 필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의 창립총회

요성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2013년 12월 13일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행복마을회의의 창립식을 가졌다.

마을에 대한 비전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채택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 고향 마을 (마을문화, 마을회의, 마을축제, 마을학교, 마을봉사단)
- 생태공원마을 (생태공원 마을, 걷고 싶은 마을)
- 아름다운 마을 (디자인 마을, 옥상과 벽면녹화)
- 후손을 생각하는 환경마을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에너지 절약)

초창기에는 통장협의회장도 행복마을회의의 임원으로 같이 활동하였으나 2014년 동장이 바뀌고 나서 통장협의회장은 행복마을회의에서 탈퇴하고 2016년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석공동대표를 맡고, 3인의 공동대표, 기타 부대표, 운영위원 등 11명의 마을임원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서현문화의 집 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행복마을회의의 수석대표이셨던 김학수 전 유엔사무차장님은 지금도 칠순의 나이이시면서도 활발하게 국제활동에 여념이 없으셔서 비록 한 해만 수고해 주셨지만 참으로 감사한 마음 그지 없다. 오랜 국제사회 수장으로서의 경륜으로 한 해 동안 갖난 얘기 같은 초창기 마을회의를 잘 이끌어 주셨다.

종전의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의 활동

2015년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이라는 개념이 없는 마을에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의 주관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왔다.

마을임원회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의다. 여기서 모든 사항들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생각과 취향이 각양각색인데 이런 마을에서 마음을 합쳐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비전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서현1동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선 이름부터 행복마을회의라고 했다. 현재는 회원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임원급들로 구성된 마을임원 11명이 매월 3번째 수요일 저녁시간에 주민센터 회의실을 빌려 개최하고 행복마을 관련 모든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관심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커뮤니티 활동

이와 같은 마을임원회의에서의 뜨거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성남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마을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모든 활동이 서현1동이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라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꽃마을 가꾸기를 위해 50여개의 가로수 밑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조성 당시에는 참가자, 주민들 모두 너무 좋아했었지만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꽃마을 가꾸기** : 2014년 4월부터 주민 50여명 참여
- 마을가드너학교** : 2014년 6월부터 15강좌 개설 주민 16명 수료
- 마을가족캠핑** : 2014년 6월, 2015년 10월 각각 13가족 참여
- 마을신문** : 2014년 11월, 2015년 8월 각각 4,000부 발행
- 작은 음악회** : 2014년 9월 주민 200여명 참여
- 마을토론회** : 2014년 12월 서현동 및 성남 주민50여명 참가



마을임원회의



마을가드너학교



작은 음악회



마을가족캠핑



마을토론회



꽃마을 가꾸기



3. 성남문화재단과의 만남

2015년의 성남문화재단 마을커뮤니티 지원사업 공모가 있기 훨씬 전부터 수정구의 원마을, 논골마을 등 성남의 주요 마을들이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을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다. 마을만들기가 한 번의 사업과 행사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반영하여 수년간 평가하고 지원한다는 문화재단의 취지는 훌륭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 2015년 마을문화공동체 지원 공고 때 적극 참여하기로 서현1동 마을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마을커뮤니티 교육과 사업계획

성남문화재단의 2015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4개 마을이 응모하여 6월 4일부터 4회차 회당 오전 3시간 합계 12시간 교육에 최소 4명 최대 6명이 최소10시간 이상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마을도 있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최대 참석인원 규정을 살짝 어기고 마을임원들이 뿔뿔 뭉쳐 8명이 참석하여 7명이 이수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요구조건을 훌륭히 충족했다.

한편으로 마을만들기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심사를 받는 방식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년 초에 일 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터라 성남문화재단에 우리 마을이 2년차 마을커뮤니티 활동에 이르러 가장 역점으로 잡고 있는 마을학교와 마을축제를 “함께 행복한 서현1동 마을문화 만들기”의 사업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마을커뮤니티 교육에 대거 참여한 마을임원진들

교육과정 마지막에 교육진행자에 의한 평가가 있었고 이후 별도로 정식 사업계획서 제출과 심사위원에 의한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의 사업계획이 주민의 절실한 욕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보인다는지 마을학교의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는 친환경비누, 향초 만들기 강좌는 생뚱맞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활동 2년차의 서현1동경우 앞에서 언급한 주민의식조사 결과처럼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 마을이 생긴 이래 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주민들에게 마을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활동에 일반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마을학교, 마을봉사단, 마을축제를 활동 내용으로 성남문화재단에 최종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

4. 마을커뮤니티 활동

마을 간담회

마을학교 및 마을축제 등 전반적인 마을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2015년 8월 10일 마을의 모든 단체들과 협의코자 현재 행복마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외의 유관단체와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주민센터도 초빙하였으나 행복마을회의 임원들과 주민센터만 참석한 가운데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의하였으며 그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지속적인 마을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단체들의 참여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 마을간담회 회의록

일 시	2015. 8. 10.(월) 15:00~16:30	장 소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참석자	(주민자치위) 이현용, 이기영, 우승욱, 신윤애 (새마을지도자회) 이종원 (우성아파트) 황택순 (성남녹소연) 김시형, 이희예 (마을기자단) 지속희 (주민센터) 이관우		

초청인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현용 대표가 사회를 보다.

1) 경과보고

김시형 부대표가 경과보고는 임원들은 모두 아는 내용이므로 생략할 것을 제안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다.

2) 2015년 행복마을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①이번에는 동체육대회가 10월 17일 개최가 확정(이후 10월 3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을 서현1동 시민체육대회 및 제1회 행복마을축제로 정하다.

②행복마을회의의 축제 개최안을 동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먼저 전달하였으나 휴가로 인하여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하다.

③축제추진위원 구성을 지역의 단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도 방안이나 현재 상황이 초대해도 응하지 않는 형편이므로 올해는 행복마을회의가 단독주최가 되어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다. 다만 유관 단체들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넣기를 원하면 응하기로 하다.

④추진위원은 공동주최 참여 희망 단체장과 행복마을회의 임원으로 구성키로 하다. 그리고 공연마당 분과위원장에 이종원, 위원에 우승욱, 이영희, 먹거리장터 분과위원장에 신윤애, 위원에 신덕희, 벼룩시장 분과위원장에 이희예, 체험마당 분과위원장에 김시형, 위원에 안현미를 비롯한 체험마당 참여자로 정하다.

⑤홍보에 있어 초청장은 주민센터가 일괄하여 발송하기로 하다. 전단지 1차 섭외용, 2차 협찬명단 포함한 행사용으로 준비하기로 하다.

⑥향후 축제준비를 위하여 2주마다 회의를 실시하며 차기 모임은 8월 26일 수요일 오후6시에 주민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다.

3)마을학교는 원안대로 8월 22일 및 9월 19일 추진키로 하고 기타 내용 중 작은음악회 관련하여 앓은 사물놀이, 플루트 참가를 희망하다.

기타 안건이 없어 이현용 대표가 16시 반에 폐회를 선언하다.



마을커뮤니티 활동내용

1) 서현1동 행복마을학교

마을에 정기적인 강좌 개설을 통하여 마을문화와 마을봉사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형성하고 향후 마을문화 창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을학교를 개설하여 마을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을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014년도에는 마을과 연고가 있는 강사들의 무료봉사와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마을가드너학교를 운영한 바 있기도 하지만 참여자가 소수였고 교육 이후에 지속적인 모임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 향후에 마을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학교를 고민하다가 문화재단의 도움으로 마을문화 만들기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주부와 가족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비누, 소이캔들 만들기 강좌를 2회 실시할 수 있었다.

높은 만족도

1회차 강좌인 8월의 친환경 비누만들기의 경우 25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였으며 2회차 강좌인 9월의 소이캔들 만들기 때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55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강좌가 지속되기를 많은 참가자들이 희망하였다.

마을문화만들기에 적극 참여

참가자들 중 17명의 주민은 10월 3일 개최된 마을축제 운영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향후 마을문화만들기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이 행복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현1동 행복마을학교 내용

1 회 차 강 좌	-내용 : 친환경 비누 만들기	2 회 차 강 좌	-내용 : 소이캔들 만들기
	-일시 : 8월 22일(토) 오전10시부터 12시		-일시 : 9월 19일(토) 오전10시부터 12시
	-장소 : 서현1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장소 : 서현1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
	-참석 : 마을주민 가족 25명		-참석 : 마을주민 가족 55명



1회차 강좌 천연비누 만들기



1회차 참가 가족



1회차 단체 사진



2회차 강좌 소이캔들 만들기



2회차 참가 가족



2회차 단체 사진

2) 행복마을봉사단

한 달에 하루 마을봉사하기 캠페인 실시

행복마을학교 친환경 DIY 강좌, 마을축제를 통하여 “한 달에 하루 마을봉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마을축제에 17명의 일반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마을화단 가꾸기, 마을신문 제작 등 “한 달에 하루 마을 봉사하기” 캠페인에 주민 20명의 참여 신청이 있었다. 지속적인 마을문화 만들기 활동과 더불어 마을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비누, 향초 노인정 기부활동

2015년 12월 초에 마을임원들이 친환경DIY강좌 때 만들어 놓았던 비누 100개와 향초 90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서현1동의 6개 노인정에 전달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손수 만들고 포장하여 선물을 가져오는 일은 없었기에 노인정 어르신들이 모두들 놀라시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사진을 마을의 여러 밴드에 올렸더니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다.

행복마을봉사단



주민들이 만든 천연비누와 소이캔들을 포장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율동 노인정 방문 전달



시범단지 아파트 노인정 방문 전달



주민 여러분들이 정성들여 만들어 주신 천연비누 100개와 향초 90개를 마을 임원들이 이쁘게 포장해서 지역의 노인정 6곳에 전달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을학교를 통해서 뜻 깊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요.



김00

추운 날씨에 애쓰셨네요~, 花香百里, 人香萬里~~ ^ ^



루비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행복마을이네요~ 주는 분들도 받는 분들도 비누방울처럼 날아 올라 행복하세요~ ^ ^



조00

굳 멋져요



이00

넌 수고많으셨습니다.~~ ^ ^

3) 서현1동 행복마을축제

2015년도에는 성남시의 시민체육대회가 동단위로 개최되는 해로서 행복마을축제와 같이 10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 끝에 함께 지역의 역량을 모아 동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0월 3일 토요일 서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축제

가급적 외부 초빙은 줄이고 마을주민과 마을단체들에 의한 마을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일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마을자원 발굴, 비용절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공연의 경우는 이웃 마을과 외부 초빙이 많았으나, 체험마당은 마을에 소재한 공방, 미술학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벼룩시장은 전체가 마을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도 지역 업체와 단체들 중심으로 참여하였다.

서현1동 최초의 마을축제

행복마을축제는 서현1동 최초로 개최되는 마을축제로서 8,000세대 아파트 단지들 한 가운데에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는 이웃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하는 정겨움이 별로 없다는 통념을 깨고 체험마당,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공연, 대동제 등 마을축제의 요소 하나하나를 통해서 가족단위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가능하며 정겨운 마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주민센터가 주도하는 동단위 시민체육대회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나 2016년도의 마을축제는 주민참여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더 많은 주민과 지역단체들이 참여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 벼룩시장

마을축제의 한 요소였던 벼룩시장의 경우 지역 특성상 길거리에서 좌판을 펼칠 주민들이 있겠는가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40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축제 당일 벼룩시장을 보고 참여한 가족도 다수 있었고 오가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에 참여하여 주민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향후 축제 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감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현1동 행복마을축제 행사 내용

• **마을축제 주관** 서현1동 주민센터,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 **참가자** 서현1동 주민 4,000명

• **장소** 서현1동 서현초등학교 운동장 및 인접 인도

• **일정** - 8월 10일 마을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의
- 9월 1일 마을축제계획안 확정 및 홍보개시
- 10월 3일 마을축제 개최
09시 개회식 및 체육대회, 벼룩시장, 체험마당, 먹거리장터
14시 공연마당
17시 폐회식

• 주요 프로그램

- 벼룩시장 (40가족)
- 주민작품 전시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40점)
- 먹거리 장터 (파전, 커피 등 7개 팀)
- 체험마당 (자연물 공예 등 5개 팀)
- 주민장기자랑 및 동아리 발표 (라인댄스 등 4개 팀)
- 초청공연 (대동제 등 6개팀)
(대동제, 우크렐레 합주, 힙합댄스, 각설이 타령, 통기타 앙상블, 플룻합주)

이번 마을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서현1동 사랑모임이라고 주민센터에서 개설한 밴드에 올라온 댓글들을 통해 본다.

서현1동 사랑모임

서현1동 체육대회, 행복마을축제 사진을 올립니다.



대동제



체험마당



전시회



공연마당



벼룩시장



먹거리장터



마을봉사단



남녀노소 모두모두 강강수월래



루비

모두들 행복마을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한 숨은 장기자랑들을 펼쳐 모두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모두들 프로들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행복마을 서현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조00

멋지네요 서현동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파이팅!!!!❤



정00,00맘

서현동 주민들 모두 화합된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 ^ 내년에도 꼭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 ^



김00

애쓰시고 고생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즐겁고 유쾌한 하루였어요 ^ ^ 잔잔한 물살을 가르느 백조처럼 행사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물갈퀴질이 있었는지...



유00

덕분에 즐거운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지00

오랜만에 서현1동의 큰 행사!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즐긴 모습에 멋졌습니다. ^ ^

5. 종합평가 및 비전

종합평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마을학교, 마을봉사, 마을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은 고향같은 마을이 배드타운이라 공동체가 어렵다고 자조하는 아파트단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2014년 주민의식조사에서 주민의 25%가 한 달에 하루 마을을 위하여 봉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 허수가 아니고 실제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내년에는 더욱 마을공동체가 살아 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이상 더 큰 성과가 어디 있을까 싶다. 아직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진 이외에는 마을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하지만 다른 마을의 사례도 그렇거니와 마을커뮤니티 활동이 지속되면 참여가 점차 확대되리라고 본다. 선배들이 마을활동은 5년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뢰 쌓기에 3년, 마을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 갖기에 2년이 걸린다는 말이 아닐까 추측한다. 금년도의 마을학교, 마을봉사, 마을축제 모두 미완성이라 할 수 있다. 마을학교는 매월 개최하지 못하고 2회 차에 그쳤고, 마을봉사는 참가희망자 명단은 수십 명 확보하였으나 정식 마을봉사단 발족은 아직 못했고, 마을축제는 시민체육대회와 섞여지면서 집중을 하지 못했다.

비전

평소 마을주민이 모일 수 있는 마당 조성

마을학교와 마을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당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2015년의 서현1동 마을문화만들기 결과를 놓고 볼 때 배드타운 아파트단지라 일컬어지는 서현1동에서도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년 중 행사로서 뿐만 아니라 월례 행사와 같은 정기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축제 중에서 벼룩시장, 주민장기자랑의 요소와 마을학교, 마을봉사, 마을회의 등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가는 요소들을 엮어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이 또한 마을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축제이며 마을주민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마당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을봉사의 날 제정

이를 위하여 매월 1회 마을봉사의 날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2014년도에 서현1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의 1/4이 한 달에 하루 정도의 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고 마을학교와 마을축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문화만들기를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마을봉사단의 구성과 활동을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남녀노소, 가족들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작은 마을축제로서 마을 봉사의 날을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이러한 방향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의 이해와 지원이 요망된다.



6. 행복마을회의의 대표 인터뷰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을 꿈꿔요.”

서현 1동 행복마을회의의 2015년 결산 인터뷰

질문자 우승욱 행복마을회의의 운영위원,

답변자 이현용 행복마을회의의 대표

서현1동 행복마을 회의 대표이자 주민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주민자치 위원장인 이현용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은 성남의제 21운영위원장과 성남시 고문 변호사 그리고 청소년 문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 등 성남시를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을임원들의 마을 영장산 등반
(왼쪽 앞이 이현용 대표, 오른쪽 앞이 우승욱 운영위원)

Q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가 출발한 지 2년이 되었고, 그 동안 공동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당초 행복마을회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A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면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니 우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복한 곳에서 더 행복해 지자면서 행복마을회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곳 서현1동에 살면서 이곳도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이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과 유관단체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일부 상승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생

각 속에서 주민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이러한 마을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기억의 고향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마을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그 동안 행복마을회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A 행복마을회의가 출발한 지 2년이 되었고, 마을 꽃길 가꾸기로부터 시작하여 반딧불이 마을 캠핑, 마을 소식지 발간, 주민의식조사, 마을 토론회, 마을 돌아보기, 작은 음악회, 마을 축제, 마을 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하는 일반적인 활동을 우리 마을에서도 해 보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행복마을회의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행복마을회의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행복마

을회의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현1동만을 위한 고유한 사업, 특색 있는 활동은 별로 없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직 면에서는 기존의 유관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이 주축이 되고, 주민들 일부가 참여하여 행복마을회의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른 마을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행복마을회의의 공동대표가 되어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은 다른 마을 만들기 단체에서 유관단체와의 관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가 행정기관, 유관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고, 하향식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상향식 조직인 마을 만들기 단체 사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그 동안 행복마을회의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A 그 동안 행복마을회의에서 한 사업들은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은 일정한 기간,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기에 꾸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했던 사업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과 아쉬웠던 것은 모두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제1회 서현1동 행복마을 축제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후원을 받기 위해 7명의 회원들이 4일간 교육도 받고 사업계획도 세웠는데, 이는 어느 단체도 따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행사 당일 서현1동 주민체육대회와 함께 하다 보니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었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베풀기, 체험행사, 먹거리 등과 함께 하다 보

니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서현1동이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주민이 참여한 행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은 만큼 주민들에게 행복마을회의의 존재감을 많이 주었고, 다음에는 올해의 경험을 살려 다른 마을에서는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축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서현1동 행복마을회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A 서현1동은 공동주택, 자연부락, 상업지역이 함께 있는 매우 큰 마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을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복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능한 영역부터 행복한 마을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 11월에 실시했던 주민의식조사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현1동은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조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현역 주변은 성남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장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현 1동 주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현1동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현1동 주민 모두가 이웃과 인사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열정과 마을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대표님과 함께 하는 서현1동 행복 마을 회의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며 가슴 따뜻해지는 고향 마을을 마음에 품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마을임원들의 마을둘러보기

상대원동

Seongnam-si
Sangdaewon-dong

상대원동 마을 커뮤니티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1.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소개
2. 상대원 소개
3. 함께하는 우리
 - 1) 부모, 우리들의 이야기
 - 2) 아이, 우리들의 이야기
 - 3) 우리들의 이야기
4. 2015년의 새로운 시작을 돌아보며...

1.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소개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최근 “마을이 학교다!!”라는 기치 아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서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절박함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동청소년친화마을도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각 단체 간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원에 위치해 있는 대원초등학교 교육복지부 제1복지회관, 제2복지회관, 맑음샘지역아동센터, 꿈공작소, 굿패밀리상담센터, 대원초등학교부모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드림스타트등의 기관 및 단체가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2000년 ~ 2015년)

-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동(洞) 참여 - 시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자치마을 만들기학교 운영)
- 삶터 가꾸기 상대원 주민회 (이숙희, 권금숙, 장원정) 조직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소모임) 활동 (상대원 2동 3동 복지회관 3곳, 대원초운영위원회, 상대원2동주민자치위원회, 아이솔 어린이집, 상대원어린이집, 대원어린이집, 상원어린이집)
 - 야외 영화 보여주기, 고구마 캐기 가족나들이, 마을문화 예술인 발굴 (판소리꾼 등)
- 상대원2동 주민자치위원회 짚지공원 축제 실시 이후



- 상대원2동 자원봉사협의회 조직, 짜투리 땅 화단 조성
- 마을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 지역주민 착한 장터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예술 벼룩시장(다목적복지회관 릴레이장터)
- 상대원 3동 행복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문화예술인, 체육인 재능기부, 재가노인음식지원 프로그램지원)
- 마을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
 - 월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
 -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인터넷 방송국 원다방 아나운서 및 활동가 교육” (상대원 2동제2복지회관, 사회복지협의회 공모사업)
 - 마을 상인회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원상인회, 희망로상인회, 금상로상인회, 협동희망로 골목 주민노래자랑 등)
- 상대원동 아동·청소년 친화마을을 활동가 1,2,3차 회의 (매월 1회)
 - 민·관 아동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정보 교류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
 -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현재 현황을 공유
 - 아동 청소년과 함께 하는 마을 축제 기획 및 개최
 - : 아동청소년 친화마을 협의회 주최
 - : 상대원 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 참여기관 및 후원단체 : 상대원 2동 1, 2 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굿패밀리상담센터, 대원초등학교 교육복지부,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상대원3동 복지회관, 청소년지도위원, 복지위원, 아동위원, 통장 등
 - : 마을 문화 및 복지 자원 발굴(재능기부 인력 D/B 구축)
 - : 마을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 진행
- 2015년 5월 16일 ‘온가족이 함께 하는 우리 마을 축제 개최’

2. 상대원 소개

상대원의 연혁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초면 지역으로 대야원(하대원동) 위쪽에 있으므로 웃대원 또는, 상대원이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통골- 중간말과 군내면의 사기막골을 병합하여 상대 원리(上大院里)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어 상대원동(上大院洞)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에 상대원1-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에 상대원1동은 1- 3동으로 분동되었 다. 1989년에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상대원지명의 유래

상대원동이 명칭 유래는 송언신(1542~1612)의 서원이 있는 곳을 상대원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을 하대원이라했다는 설과 이 지역에 있던 역원인 대야원의 윗동네라 웃대원(상대원)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상대원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윗말, 송촌, 아랫말, 황천마을, 황촌, 작은밭골, 안산, 능골, 셋개, 원답골, 마흔쟁이, 새터말, 아랫말, 보통골, 윗말, 중시랑골, 은골, 큰골, 작은골, 중간말, 사기막골, 사기막골사거리 망덕산 등이 있었다고 한다 .

행정구역

면 적 : 0.31km²(시 면적의 6.6%, 중원구 면적의 35.6%)

인원 및 가구

통 반 : 19통 117반

가 구 : 6,47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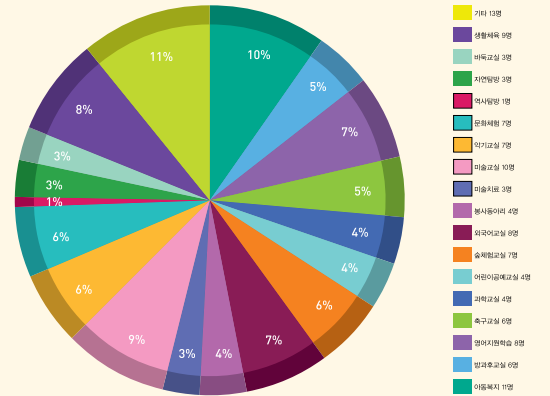
인 구 : 총14,770명(남7,639명, 여7,131명)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분석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아동독서가 11% 로 공통으로 진행 하였고 미술교실10%, 외국어, 외 국학습 지원이 각 8%로 나타났다.

기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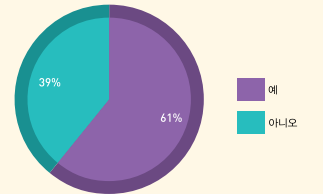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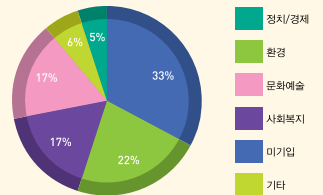
각 기관들은 현재 마을 공동체 활 동을 계획 하거나 활동 중인 기관 들은 61%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49% 계획 중이지 않거나 활동 중 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활동에서 강화, 확대 가 필요한 분야는 22%로 환경, 사 회복지, 문화예술이 각각 17%였으 며 미기입이 33%로 응답했다.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활동에서 강화, 확대가 필요한 분야



3. 함께하는 우리

1) 부모, 우리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1. 2015년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2015년 5월 어느 날, 마을커뮤니티교육이 있기 2주일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해보지 않을까요?”.....

평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던 나였기에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전화가 설레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을 했지요...“네!, 좋습니다.”

교육 일주일 전 함께 교육을 받을 5명과 마을만들기를 같이 할 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대표님, 각 복지회관 관장님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협의회의 취지와 함께 어떻게 아이들이 즐거운 마을을 만들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곳! 바로 여기!! 바로 우리!!

프로젝트 2. 마을커뮤니티 교육

2015년 6월 마을커뮤니티 사업을 위한 생각정리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전과 목표 공유, 사업의 배경과 과제 도출의 과정까지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왜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생각의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PPT자료를 통해 듣는 수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된 방법이었다면 포스트잇과 펜을 통해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성 등을 함께 적어 나가며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맞춰 나가는 방법은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회의 교육을 받으며 우리 구성원들은 해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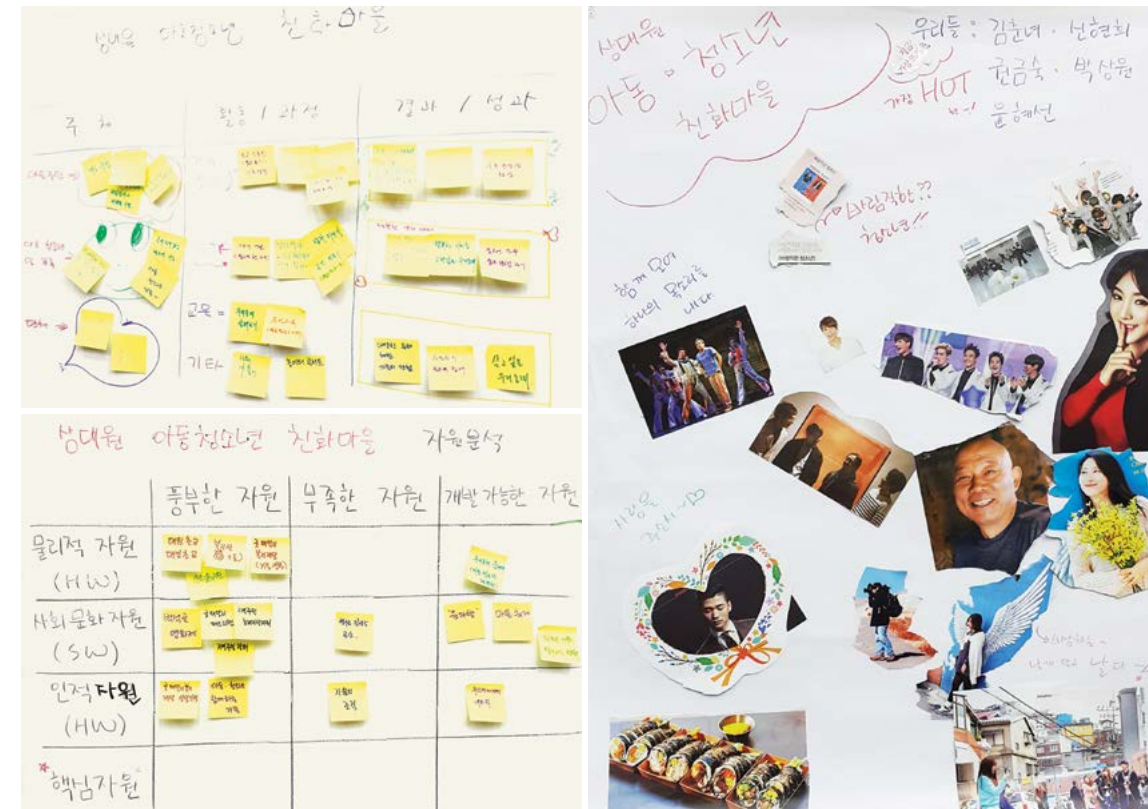
하고 싶었던 우리들에게는 터무니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으며 구성원들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상대원에 둘레길이 있는 거 알아요?” 주민들의 섬터가 되고자 둘레길을 공원화 하여 잘 정리해 놓은 곳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주말에도 평일에도 비가와도 툼툼이 둘레길을 살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따져보고 회의를 거쳐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 둘레길에서부터 아이들의 꿈을 만들고 키워나가자!!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갔습니다.



7월.....드디어 마을커뮤니티 교육을 마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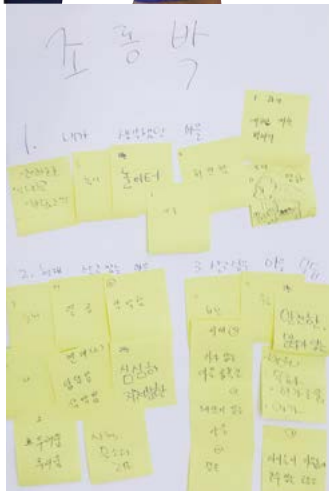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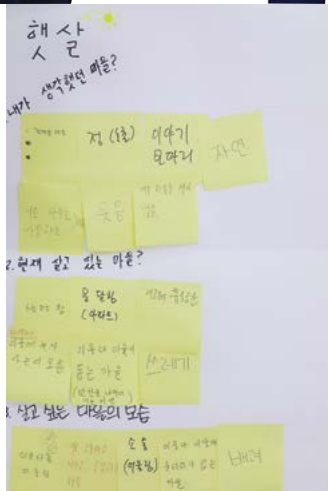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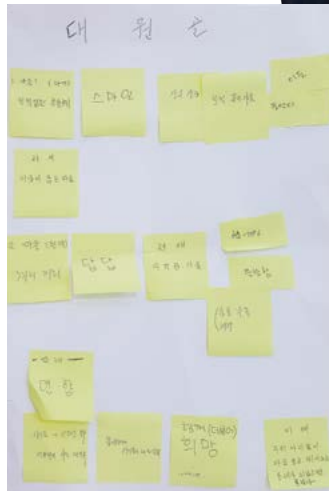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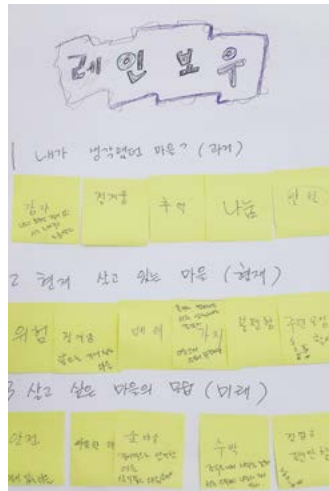
사람들 앞에 나가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을 잘 못하는 저에게 구성원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발표를 잘 못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심사위원님들은 아실거니 걱정말라고...괜찮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발표 하는 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설레임을 느끼는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애들아, 마을에서 놀자!”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3. 참여자 및 마을활동가 교육

교육 1

-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10:00~12:00
- 장소 : 굿패밀리상담센터 교육실
- 강사 : 김미영
- 참가인원 : 30명
- 주제 : 마을 만들기
- 내용 : 마을에서 주민들의 역할과 주민 참여를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왜 관심을 갖아야 하는지 팀을 만들어 '마을'하면 생각나는 연상단어, 모습 등 팀별 활동 후 팀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활동가로 참여한 분들이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이였습니다.



교육 2

- 일시 : 2015년 8월 7일(금) 10:00~12:00
- 장소 : 굿패밀리상담센터 교육실
- 강사 : 김미영
- 참가인원 : 26명
- 주제 : 마을 만들기
- 내용 : 활동가로 참여한 한분 한분에게 요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시며 서로가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또 팀을 만들어 도화지를 주시며 살고 싶은 마을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을들을 생각하며 팀별로 발표를 하고 또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만들기 수업을 들으며 옛 상대원의 모습과 현재의 상대원 모습,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듣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왓치 수업을 듣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3

- 일시 : 2015년 8월 14일(금) 10:00~12:00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강사 : 김종복
- 참가인원 : 24명
- 주제 : 숲 놀이 체험
- 내용 : 숲 놀이 체험 첫 시간...처음 만나는 시간이라 교육실에서 이론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해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의 첫마디....“나가서 직접 체험해 봅시다!” 이럴수가 교육 받으러 오신 활동가 어머니들의 복장이 숲에 가가 애매했습니다. 어떨까 고민하시던 어머니들.....“괜찮습니다. 이동하시죠...” 교육을 받으시는 어머니들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복장 썸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숲 길로 이동하였습니다. 숲 길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따라 가면서 나무의 이름과 쓰임, 구별법 등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며 숲에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직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던지기, 돌 맞히기, 여러 가지 곤충들이 살고 있는 자리와 나무이름과 나무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나무의 종류와 곤충의 이름들을 함께 배우며 즐겁게 자연과 함께 웃고 자유롭게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가 어머니들의 모습이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가 숲에서 노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교육 4

- 일시 : 2015년 8월 21일(금) 10:00~12:00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강사 : 김중복
- 참가인원 : 27명
- 주제 : 숲 놀이 체험
- 내용 : 비가 오는 바람에 먼저 굿패밀리상담센터에서 만나고 비오는 숲길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민둘레 길로 이동하였습니다. 다행히 비가 그쳐서 야외무대에 앉아서 박쥐놀이, 곤충숨기고 찾기, 루페로 곤충관찰하기, 조를 짜서 문제를 읽고 몸으로 곤충표현하기, 나뭇잎찾기, 독고마리열매 던져보기 등 숲에서 다양하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 이였습니다.



교육 5

-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2:00
- 장소 : 굿패밀리상담센터 교육실
- 강사 : 조동균
- 참가인원 : 27명
- 주제 : 마을(공공)미술
- 내용 : 유명한 화가들과 그림들에 대한 설명과 조각, 조형들을 보여주며 다양한 미술 분야의 변화와 예술을 통해 분위기 또는 마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 새로운 분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을 만들기에서 조형과 미술그림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실제 지도맵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실제 마을만들기의 예를 들며 진행하는 수업이 이해가 쉽기도 했지만 여러 미술 분야의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며 볼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교육 6

-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0:00~12:00
- 장소 : 굿패밀리상담센터 교육실
- 강사 : 이종림
- 참가인원 : 30명
- 주제 : 의사소통
- 내용 : 판교수련관 이종림 관장님이 오셔서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연계사업과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판교수련관이 어떻게 지역 상가들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효과와 앞으로 무엇을 발전시켜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원구에 많은 공장형 아파트들을 청소년들과 잘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설명도 해주시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변화도 쉽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활동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료식

-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2:00~
- 장소 : 굿메일리상담센터 교육실
- 수료인원 : 22명

드디어 마을 활동가 교육이 끝나고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매 주 금요일 10시가 되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리하고 부랴부랴 오신 분들도, 일하시다 말고 시간 맞춰 오느라 뛰어오시는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번 활동가 교육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마을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것,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옛날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마음.....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프로젝트4. 상상골목 속으로....

- 일시 : 2015년 10월 7일(수)
- 장소 : 은평구 갈현2동 상상골목
- 참가인원 : 18명

• 답사내용 : 대조동 꿈나무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던 7명의 엄마들이 갈현동에 공동일터 '마을엔 카페'를 열고, 지역의 청소년, 다문화여성들, 예술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새로운 골목문화를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마을예술인들이 '아트마켓'이 갈현2동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지원을 받아 '재미난장'이라는 이름으로 확대운영 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상상골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갈현2동에는 16개의 기관과 단체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엔 카페를 중심으로 바느질 모임, 논어강독모임, 책읽기 모임, 꿈꾸는 합창단 등의 모임이 재밌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간 '작공'은 마을엔 문화예술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사는 요즘 이 시대에 상상골목은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은 청소년 아이들을 품은 어른들이었습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현장 답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원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불편함과 애씀 그리고 마음이 없이는 작은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시간 이였습니다.

잘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기에 잘할 수 있는 마을.

함께 하기에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나누고 성장하면서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스스로가 알아가는 삶.

아마 우리는 이제 시작의 첫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우리의 이웃들(어르신, 아이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행복 마을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2) 아이, 우리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1. 민들레 숲길 체험

활동 1

- 일시 : 2015년 8월 22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15명
- 내용 : 그룹 활동 2가지



아동들이 주도하고 교사가 보조해주며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유놀이를 통해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숲의 요구가 무엇인지, 자연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경계가 있음을 깨닫고 배운다. 9약 20~40분 동안 교사가 동화를 들려주거나 자연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여주며 설명해준다. 혹은 공작시간을 갖는다. 익숙해지면 그룹 활동으로 들어가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한다.



활동 2

- 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6~7세 / 29명
- 내용 : 1. 숲 체험 활동 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2. 숲에서 놀고 싶은 활동을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3.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돋보기, 루페)
4. 숲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풍경 위주로)

활동 3

-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20명
- 내용 : 1. 숲의 안전한 넓은 공터에 두 명씩 짝을 지어 선다.
2. 한 친구는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준다.
“눈을 가리니까 느낌이 어때요?” “친구가 손을 잡아주니까 느낌이 어때요?”
3. 함께 걷게 될 목표지점의 나무를 알려준다.
4. 눈 가린 친구를 가리지 않은 친구가 손을 잡고 인도해 간다.
5. 천천히 목표지점의 나무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친구를 격려한다.
6. 모두 도착했으면 느낌이 어떤지 물어본다.
7. 역할을 바꾸어 활동해본다.
8. 눈을 가리고 따라 갔을 때와 가리지 않고 친구를 안내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활동 4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6~7세 / 19명
- 내용 : 똑같은 나뭇잎 두 개씩 준비하기
1. 숲길을 건다가 똑같은 같은 종류의 나뭇잎 두 장을 뜯어온다.
2. 두 장씩 뜯어온 나뭇잎들을 천위에 올려놓는다.
나뭇잎의 다른점과 같은 점을 찾아본다.
3. 두 팀으로 나누어 제한시간 내에 본인의 팀 보자기 위에 놓인 나뭇잎을 잘 살펴보고 상대편 팀에서 찾아 짝을 찾는다.
4. 게임종료 후 많은 짝을 찾은 팀이 이긴다.



활동 5

- 일시 : 2015년 9월 5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23명
- 내용 : 돌 던지기
 1. 목표물을 세우고 주변의 작은 돌을 찾아 목표물을 맞춰본다.
 2. 목표물을 쓰러뜨리기 : 대상의 목표물을 쓰러뜨리는 맞히기를 해본다.

활동 6

-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10~12시
- 장소 : 상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40명
- 내용 : 1. 거울체험
 - 거울을 코 위에 얹어본다.
 -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둘러본다.
 -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를 본다.
- 2. 단체경험 : 한손으로는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는 거울을 코 위에 얹고 한 줄로 서서 천천히 걸어본다.(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경험해 본다)
 - 상대방을 믿고 천천히 걸어본다.
 - 걸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하늘을 들여다본다.
 - 느낌을 서로 이야기 나눈다.



활동 7

-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25명
- 내용 : 곤충숨기기
 1. 두 팀으로 나눈다.
 2. 각 팀별 한 줄로 선다.
 3. 곤충주머니 속에서 곤충을 꺼내어 갖고 있다.
 4.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곤충을 알아보고 곤충을 숲속에 숨겨본다.
 5. 다른 팀은 숨겨진 곤충을 찾아본다.
 6. 서로 반대로 다시 경험해 본다.



활동 8

-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23명
- 내용 : 곤충흉내내기
 1. 색깔별로 종이에 곤충설명을 적어 준비한다. 분홍, 노랑, 파랑, 연두, 빨강등
 2.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종이를 선택하라고 안내한다.
 3. 같은 색깔종이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인다.
 4. 팀이 구성되면 종이를 펴서 설명을 서로 읽고 어떤 곤충을 설명한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눈다.
 5. 정답을 찾으면 동그랗게 앉는다.
(상대팀에게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몸으로 표현하는 계획을 세운다)
 - 파리, 벌, 개미, 등

활동 9

- 일시 : 2015년 10월 3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10명
- 내용 : 박쥐가 되어보기(눈 가리고 소리로 듣고 찾기)



- 박쥐는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초음파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
- 박쥐가 되어 눈을 가리고 친구들을 찾아내본다.
- 우리는 초음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눈 가린 박쥐에게 박수로서 우리의 위치를 알린다.
- 동아줄을 4명이 잡고 서서 링을 만들고 그 외 친구들은 링 안에 들어가 박쥐에서 손뼉을 치되 잡히지 않도록 잘 피해본다.
- 잡히면 술래를 계속 바뀔 모두가 경험해 볼 수 있게 한다.



활동 10

- 일시 : 2015년 10월 10일(토) 10~12시
- 장소 : 민 . 돌 . 레 숲길
- 참가인원 : 8~12세 / 15명
- 내용 : 동물, 곤충들이 어디에서 살까?
- 나무 스크린을 바닥에 펼치고 모형 동물, 곤충이 살고 있을 위치에 놓아본다.



프로젝트 2. 민들레 숲길 가꾸기

- 일시 : 2015년 10. 04 ~ 10. 24 (3주간)
- 장소 : 대원웰빙공원 내 민 . 들 . 레 숲길
- 참가인원 : 마을 커뮤니티 활동가 20명
 숲 속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50명
 마을 주민 및 가족 20명
 성남미술가협회 회원 10명
 기타 숲길에서 운동하러 나온 주민 등 100여명



숲길 가꾸기를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활동가분들과 미술가협회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숲길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아이들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숲길 가꾸기에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상대원의 모습, 숲길의 모습을 맵핑을 통해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숲길을 걸으면서 분포되어 있는 나무 수종을 조사하여 나무에 이름을 달아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종의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고 미세한 차이를 몰라 같은 종이라고 생각한 나무가 많았습니다. 나무 이름 달아주기를 통해 나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이 끝나고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모여 숲길 내 있는 소공연장 컬러입히기와 단청입히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컬러입히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과 아이들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연장의 모습은 변해갔고, 무대 가운데 있는 나무는 무대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으로 나무 자체가 무대배경이 되었습니다. 컬러입히기가 끝나고 나니 모두 뿌듯한 표정으로 함께 했다는 기쁨이 가슴 한 켠에 자리잡았습니다. 장난치며 뛰어노는 아이들 곁에서 아빠, 엄마가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 시간들은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함께 해주신 주민들과 미술가협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 3. 동아리 활동

💡 목공체험 1차

- 일시 : 2015년 11월 4일(수) 19:00~21:00
- 장소 : 대원카페 프로그램실
- 강사 : 서지혜
- 주제 : 나만의 거울 만들기
- 준비물 : 젯소, 아크릴 물감, 제단 우드, 붓
- 참가인원 : 15명
- 진행내용
 1. 제단 우드 조각 12개의 앞, 옆면에 붓을 이용하여 젯소를 바른다.
 2. 1의 젯소가 건조되면 다양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덧바른다.(채색)
 3. 우드 판 위에 건조시킨다.

• 평가

ㅋㅋ밥차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목공체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처음 배워 보는 목공예에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완성작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표현하기도 하고 물어보는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마음열기에 중점을 두며 진행하였고 차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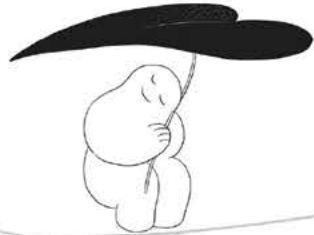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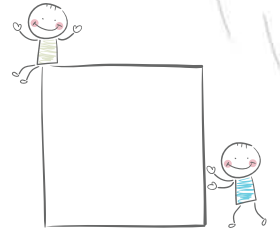


💡 목공체험 2차

-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9:00~21:00
- 장소 : 대원카페 프로그램실
- 강사 : 서지혜
- 주제 : 나만의 거울 만들기
- 준비물 : 아크릴 물감, 제단 우드, 붓, 네임펜
- 참가인원 : 6명
- 진행내용 : 1회차에 이어 12조각의 우드판에 네임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넣고 건조시킨다.

• 평가

지난시간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만의 거울 만들기는 이어갔습니다. 12조각의 우드판에는 그리고 싶은 모양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꿈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으며, 색칠하는 색상과 글로 표현되는 자신의 마음을 강사선생님과 활동가 선생님들이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공예분야에 흥미를 보이며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마음을 열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니 체험 프로그램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목공체험 3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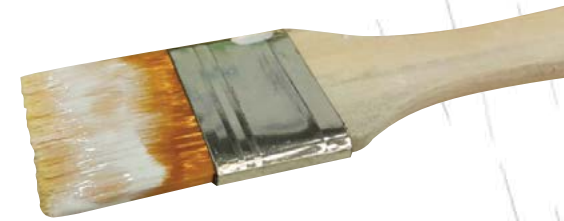
-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19:00~21:00
- 장소 : 대원카페 프로그램실
- 강사 : 서지혜
- 주제 : 나만의 거울 만들기
- 준비물 : 아크릴 물감, 제단 우드, 붓, 네임펜, 거울, 접착제
- 참가인원 : 8명
- 진행내용
 1. 거울과 우드 12조각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접착제로 붙인다.
 2. 바니쉬로 우드 표면을 골고루 펴 바르고 건조시킨다. (3회 반복)
 3. 거울을 붙인다.
- 평가

수업에 계속 참여한 친구들과 잠시 방황하다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수업에 잘 따라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선생님들과 청소년 아이들은 편하게 대화하며 질문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목공체험 4차

- 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19:00~21:00
- 장소 : 대원카페 프로그램실
- 강사 : 서지혜
- 주제 : 나만의 거울 만들기
- 준비물 : 젯소, 아크릴 물감, 제단 우드, 붓
- 참가인원 : 15명
- 진행내용 : 거울을 붙인 우드 한 쪽 면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목과 고리를 고정시킨다.
- 평가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매주 꾸준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드를 직접 못으로 고정시키고 완성작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공예를 매개로 참여자와 선생님이 더 쉽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참여자가 직접 무엇인가를 공들여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 및 만족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며 풀어나가는 과정이 진행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1. 2주 참석하고 완성을 못한 학생이 있어 아쉬웠지만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끝내며 참여한 청소년들과 기타 배우기 소모임을 통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집과 밖에서 할 일이 없어 떠도는 친구들, 학원가기 싫어 잠시 머무는 친구들,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찾아오는 친구들.....다양한 이유로 밖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며 느끼는 소중함 마음입니다. 함께 목공 체험을 한 친구들....다음에 또 만났으면 합니다.



3) 우리들의 이야기

숲 속 작은 음악회

- 제목 : 민들레 숲속 작은 음악회
- 일시 : 2015년 10월 23일(금) 15:00 ~ 20:00
- 장소 : 대원웰빙공원 내 민들레길 소공연장

• 목표 :

- 1) 숲속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친해진다.
- 2) 숲 놀이로부터 모인 상대원의 아동, 청소년들을 기본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재능 보유자를 함께 조직하여 숲속 콘서트를 준비하고, 숲 가꾸기 (칼라 입히기, 나무 이름 달기 등) 활동을 통해 조성된 숲속 소공연장에서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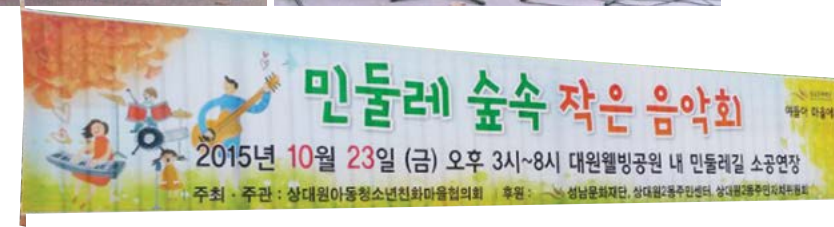
• 순서 :

- 1) 숲속 체험프로그램 (15:00 ~17:00) : 5명 정도를 조로 짜서 1-4구간의 체험 활동 (1구간-사방 치기 전래놀이, 2구간-나뭇가지 던지기, 3구간-거울체험, 4구간-보물찾기)을 다하고 오면 소공연장에 준비된 체험활동(인디언 머리띠 만들기, 나뭇가지 집 만들기, 곤충 숨기고 찾기, 손수건 물들이기 등)을 하고 간식을 먹도록 한다.

*** 참여인원 : 7조 36명

- 2) 식전공연(17:00~17:20) : 성남시립교향악단 금관악기양상블
- 3) 식전행사(17:20~17:40) : 내빈소개/ 개회선언/ 대회사/ 기념사/ 축사/
- 4) 공연(17:40~18:20) : 소리친구회 심선영 우리소리/ 대원초등학교 리코더연주단/ 꿈꾸는 오케스트라/ 중원청소년수련고한 댄스동아리 EMJ/ 대원골 어린이기자단 합창.
- 5) 숲 영화제 (18:20~19:40) : “애들이 마을에서 놀자” 영상 가족과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상영(제목 : 인사이드 아웃)

- 참여인원 : 숲속체험 프로그램 참가아동 50명/ 공연팀 50명 / 지역주민 155명 /자원봉사자 15명
아동, 청소년 진화마을 진행요원 30명, 총 300명



아이들의 숲속체험 프로그램 이후에 음악회가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일찍 오셔서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숲 속 소공연장은 평소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장소로 지속적인 공연들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기며 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장소였습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장소였기에 공연하는 동안 불편함 점과 미흡한 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만들어 가다보면 상대원 주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악회로 함께 했던 모든 활동가 분들과 주위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주민들,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이 있었기에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2015년의 새로운 시작을 돌아보며

1) 마을 활동가 후기

상대원아동청소년친화마을협의회 박진영 대표

애들아! 마을에서 놀자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문제를 고민하며 마을안에서 대안적 문화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생각속에서 마을을 돌아보며 숲길을 발견하고 그곳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서툴고 힘들었지만 장소가 꾸며지고 아이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아닌 사람이 먼저 되는 사업이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스스로 움직여 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머리는 사람, 힘은 사람 따로 두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함께 안되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말고 내가 먼저 하는 마을사업의 본을 세우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 권금숙 활동가

애들아, 마을에서 놀자!

문화재단에서 교육받고 일정상 바쁘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평가조차 제대로 못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동네 마을길 민·돌·레 숲길에서의 체험놀이 때는 어른·아이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休)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 박문숙 활동가

마을만들기를 통해 나무나 곤충에 대해 조금 알게되어서 감사하구요 아이들이 좋아하는걸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바쁜 시간에도 오셔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걸 보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체계적으로 각자 나누어서 부담안되게 교육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 고헌기 활동가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교육참석하라고해서 시작한 아동청소년활동 이었는데 재미있을 만하니 마무리가 된 듯하다. 활동가들의 스테디를 통해 재미있고 흥미있는 놀거리를 연구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함께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행복마을 디자이너 김수정 활동가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나부터도 마을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데 활동을 하면서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모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어렵지만 보람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을만들기가 많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데 일로 시작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작이었지만 사람들이 남았다면 적어도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겠지요^^



행복마을 디자이너 윤혜선 활동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 마을에 공동체들이 생기면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바쁜 엄마들이 그래도 조금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터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행복한 곳.....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앞으로도 꼭 진행했으면 합니다^^

2) 이제 시작입니다.

2015년 숨가쁘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사건으로 마을커뮤니티 교육이 지연되면서 사업의 시작은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주1회 진행되는 팀장회의와 활동가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을 조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 구성원들과 행복마을 디자이너 활동가분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보듬어주는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2015 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선 단계였다면 앞으로 16년, 17년에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키며 교육복지와 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만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은단풍나무 잎 은단풍나무 시과



은단풍나무 수피



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났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1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숲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팀장 회의를 통해 다음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의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비전을 보며 살아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배워가며 성장하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여서 시작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금광2동

Seongnam-si
Geumgwang2-dong

금광2동 마을 커뮤니티 - 금빛마을문화공동체

장점다리

1. 마을 커뮤니티 교육
2. 선정 그리고 활동의 시작. 2015년 여름... 첫 만남, 어려움을 겪다.
3. 2015년 가을... 방향 전환.
4. 2015년 늦은 가을... 마을 기획단의 작은 발걸음.
 - 1) 마을탐방
 - 2) 우리 마을 파파라치
 - 3) 우리 마을 멘토 만나기
 - 4) 골목대장 소식지 & 시나리오 만들기
5. 2015년 겨울의 문턱에서... 결과 발표회. '시작'이라는 또 다른 이름.

금광2동 마을 커뮤니티 - 금빛마을문화공동체 **징검다리**

우리가 문화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이웃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마을커뮤니티의 징검다리로
발돋움 해보려 합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 금광2동 전경 -

마을 커뮤니티 교육

2015년 6월.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 우리 마을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여 터전을 이루어 살아가고 지금.

내가 자라온 곳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주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내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소통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마을 커뮤니티 교육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이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매일 매일 새로운 활동으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할 만큼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성남'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하는 이웃들이기에 정말 보기 좋았



고,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우리 마을을 걱정하고 해결하려는 좋은 어른들이 많아 다행이구나 라는 안도가 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금광2동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문화 기획단을 결성하고 활동해보는 것을 목표로 첫 발걸음을 해보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구도심 중에도 구도심인 우리 마을, 점차 노화되어가는 마을 풍경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선배 주민들..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활동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람찬 '역할'을 찾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세대 간, 이웃 간 관계의 회복을 기대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의 노인전문시설 효순효식과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등의 시설의 도움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진행을 해주셨던 김현정 대표님께도 배울 점이 많았는데,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주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어 감사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제시해주고 행동을 촉진하는 명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기뻐했으며, 선배 시민으로서 한명의 여성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교육 이 전과 이 후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와 이웃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할 금광2동의 문화기획단을 모집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선정 그리고 활동의 시작. 2015년 여름

첫 만남, 어려움을 겪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여름.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기획단을 만들어보자’라는 꿈은 주변의 우려처럼 쉽지 않았습니
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로 단체 활동을 꺼려하시던 어르신들.. 만나 뵙기조차 어려웠으며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집 / 홍보

• 기간 : 2015년 8월~ 2015년 9월

• 대상 : 금광 지역 청소년(송신여자중학교 학생 등)

당초 어르신들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짝꿍활동에 참여를
원하였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체 전환하였다.

사업 초반 지역 단체들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마을의 성공사례는 부러워하며 마을기획
단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었고 관심을 보였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모습이였다. 무엇보다 함께 활동을 약속했었던 단체들의 비협조와 ‘메르스’ 사태로 마을 기
획단 프로젝트를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어려워졌고, 활동 대상이 (지역 청소년으로) 변경되게 된 것
이다.

2015년 가을

방향 전환.

마을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좌절감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쯤, 새로운 주체자들과 활동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관내 교사들의 도움과 ‘어르신들과의 짝꿍 활동’을 대기 중이던 학생들의
의지가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 내용 : 금광2동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주민 커뮤니티 활동(소공연, 축제 등)에 대한 계획을 직
접 세우며, 실행하는 우리 마을의 문화공동체 징검다리 (청소년 마을 문화 기획단) 발굴 프
로젝트.
- 추진방법 : 금광2동 동중학교, 송신여자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포스터 및 홍보물 배부.
학교 방문 - 담당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학생 추천 및 동아리 추천 요청.
- 초기활동: 청소년마을기획단에게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며 회의와 놀이, 토론허동을 통해 우리마을 문화 기획자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2015년 늦은 가을

청소년 마을 기획단의 작은 발걸음

마을의 꿈나무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골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 늦은 출발인만큼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다양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어느 덧 나이가 지긋해진 마을을 바라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문제점투성이인 우리 동네, 좋은 것이 거의 없는 우리 동네.... 그러나 '이 곳'은 우리의 고향이고, '이 곳'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하루하루 점점 알아갈 수록 우리 골목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1. 마을탐방

- 우리 마을의 숨겨진 명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 탐방을 나선다.
-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마주하고 애정의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 마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기록한다. (마을을 배경으로 작은 공연의 시나리오로 반영한다.)
- 동네 명소, 인물 사진 찍기 : 우리가 좋아하는 비밀 장소, 골목에 오래 된 낙서, 옆집 사는 아줌마, 수다 친구, 앞집에 새로 태어난 아기 등 좋아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는다.

촬영한 사진으로 금광2동 엽서 제작 - 전시회 활용



마을탐방 활동일지<1> 11월 5일 목요일 (16:00~18:00) / 14명 (기록자: 최세웅)

1) 주제 : 우리 마을 파파라치, 사진 촬영 기법 연습하기

2) 활동계획

- 무엇을 프레임 안에 담을 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 마을의 모습 중 기억에 남는 풍경, 순간, 인물,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사진 촬영 기법, 구도에 대하여 배우고 기기 작동 법 익히기

3) 활동내용

여러 골목사진, 인물 사진을 보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고, 그 이유를 함께 찾았으며, 좋은 예, 나쁜 예 사진을 공유해 느낌을 이야기해보았다. 빠르게 익숙한 나이라 정적인 느낌에 대하여 깊이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다. 마을 기획단은 큰 관심을 보이며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시선이 나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을 이야기하며 골목사진을 찍을 때 최대한 우리 마을이 주는 이미지를 한 것으로 잘 담아낼 것을 강조하였다. 일주일 간 골목을 탐방하며 미리 답사하는 것도 좋고, 동네 곳곳을 미리 촬영해보는 것도 좋으니 마음껏 구경해오기로 약속하였다.

마을탐방 활동일지 <2> 11월 12일 목요일 (16:00~18:00) / 15명 (기록자: 최세웅)

1) 주제 : 마을 탐방, 골목사진전 준비

2) 활동계획

- 조별로 인원을 분배하여 구역을 지정, 촬영 후 다시 모여 서로의 사진을 감상하고 피드백하기
- 골목사진전에 전시할 개인 사진을 고르고 제목 만들기
- 마을 엽서로 제작될 최고의 사진 2장 고르기
- 마을 탐방 후 인터뷰

3) 활동내용

비가 와서 야외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사진 찍기에는 분위기도 있고, 좋은 날씨였다. 마을 기획단도 불평 없이 우산 쓰고 신나게 동네를 활보했다. 구석구석 돌아보며 각자의 프레임에 내가 생각하는 마을의 모습을 담느라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생각보다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 평소에는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에도 오늘은 관심이 많이 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참여자가 우연히 찍은 할머니의 옆모습이 우리 동네의 세월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밖에도 서로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위대한 골목사진전이 될 것 같다.

마을탐방 사진작품



마을탐방 활동후기 익숙한 골목의 설렘

추적추적 비가 오던 어느 날, 다함께 금광동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분들에게 드릴 작은 선물을 고민하다 우리 동네 사진이 담긴 엽서를 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사진이 엽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더욱 설렘했습니다.

다함께 구역을 나눠 동네 곳곳을 카메라 렌즈에 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없이 걸었던, 너무나도 익숙했던 골목길은 새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2층 연립주택 한편에 걸린 마늘대도, 언제부터인지 공사 중인 옛 건물도, 지붕을 뚫고 자란 큰 나무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던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느새 눈 감고도 훤히던 우리 동네 골목길은 여행 중 만난 작은 골목처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이나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다시 만난 친구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것 보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집이 있었어요!”

“여기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각자 카메라에 담아 온 우리 동네의 모습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매일 같이 걷고, 보던 우리 동네 골목길, 그래서 특별할 것이 무료했던 그 곳이 마을기획단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을 뿐인데 말입니다.



2. 우리 마을 파파라치

- 우리 마을의 문제점(위험요소 등)을 고발하고 해결하는 파파라치단 활동
 - 사진 촬영도 하고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한다.
 - 이웃 간 갈등이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개선 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은 뮤지컬의 시나리오로 반영한다.
- (예 : 쓰레기 대란, 금광동 좁은 골목길 주차 시비, 신구대- 단대오거리 사이 유흥가 등)



우리 마을의 문제점(위험요소 등)을 고발하고 해결하는 파파라치단 활동

우리 마을의 고민거리는 무엇이 있을까. 귀를 기울여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웃 간 배려하지 않는 것에서 생기는 불화, 노후 된 시설 등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금광동은 좁은 골목, 골목 사이로 주차를 하다 보니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차가 나가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이 주택간 사이가 비좁아서 새벽에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아저씨들과 옆집에서 악기 연주하는 소리 때문에 소음 피해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창문을 통해서 남의 집을 엿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대고 이야기했다가는 괜한 불상사를 만들까 걱정되어 SNS를 통해서 우리의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화가 끊긴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 보안용 CCTV와 가로등이 부족하여 어둡고 음침한 골목이 기다립니다. 요즘 세상도 흥흥한데 우리 마을에서도 사건 사고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TV 속에서도 인터넷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소통'을 갈구합니다. 정작 내 옆 이웃에게 말 조차 거는 것은 불편하면서도 말이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우리 마을의 최대 고민거리를 '단절'로 정하고, 그 이야기를 마을 뮤지컬에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3. 우리 마을 멘토 만나기

- 우리의 꿈은 가까이에 있다. 마을에서 자라고 배울 수 있는 성장.
- 마을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훗날, 청소년 기획단도 성공한 선배시민이 되어 멘토링 해줄 수 있도록 동기부여.
- 멘토를 인물화하여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은 공연의 시나리오로 반영. (* 발표회 공연)

4. 골목대장 소식지 & 시나리오 만들기

- 마을 탐방, 마을 파파라치, 마을 멘토 만나기 등으로 수집이 된 이야기와 이미지를 활용 하여 소식지와 시나리오(발표회 때 공연)를 만든다.
- 문화기획단이 우리 골목의 골목대장이 되어, 소식을 접수
 - *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추후 마을 신문으로 발전 가능성.
- 주민 커뮤니티 등 문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행복한 마을이 만들어 진 흥미로운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 마을 문화 기획단이 하고 싶은 활동, 우리 마을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부하기.
- 금광2동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탐방 하며, 마을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활동일지 <1>

11월 3일 화요일 (16:00~18:00) 12명 / (기록자: 이슬지)

1) 주제 : 우리 마을 스토리텔링

2) 활동 계획

- 사건의 해석 (우리 마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우리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캐릭터의 재발견. (왜 일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둘러싼 이야기에 대하여 고민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는 활동.

그동안 조사했던 마을의 모습을 펼쳐놓고 자유 토론.

3) 활동 내용

우리가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 단편적일 것이라 예상되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로 모두가 성숙한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에 대하여 무심해보였던 몇몇 사람들도 '나'에서 '우리'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에 잘 동반되어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시선. 마을 밖 사람들이 '금광2동'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는데 그 부분이 나름 흥미로웠다. 다들 입을 모아 우리 사는 곳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금광2동의 대표적인 인물 구성원을 만들어 보고, 큰 사건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마을의 분위기와 비슷한 작품을 배경으로 각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좀 더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활동일지 <2>

11월 10일 화요일 (16:00~19:00) 15명 / (기록자: 이슬지)

1) 주제 : 마을 스토리 뮤지컬 '시나리오 제작'

2) 활동 계획

- 뮤지컬 '빨래' 각색하여 시나리오 작업
- 빨래의 음악과 금광2동의 이야기를 조화시켜보기.
- 초본 만들어 연습해보고 적절한 인물 캐스팅, 구체화하기.
- 사건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실제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기.
-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

3) 활동 내용

'왜'를 놓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에서, 공연이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독창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다만 너무 많은 의견이 나와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주제의식을 찾는 과정이 어렵기도 했다.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우리 마을, 이곳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으로 큰 틀을 잡고, 이웃 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걸어 참군 문 밖으로 한 걸음씩만 나와 준다면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그려냈다. 장면을 만들며 다함께 머리를 모았다. 다소 왜곡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시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동네의 따뜻한 개념,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의 의미,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의 작은 뮤지컬에서 그려낼 수 있길 바란다.



우리 마을 뮤지컬 시나리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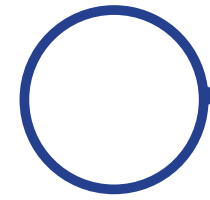
흠어져있는 여러 생각과 이야기를 하나의 줄기로 연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만 해도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보자. 이 스토리는 꼭 넣자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막상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제외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캐릭터를 정리할 때에도 서로에게 당위성이 부여되고 팽팽하게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혼란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기획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후 저녁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매일 모여 회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 또 고민하고 의논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음에도,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과정과 모든 길이 이미 해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띤 토론이 절정을 향해 가고, 어느덧 시나리오 그림이 정리되어 갑니다. 문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전문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15년 겨울의 문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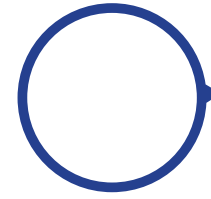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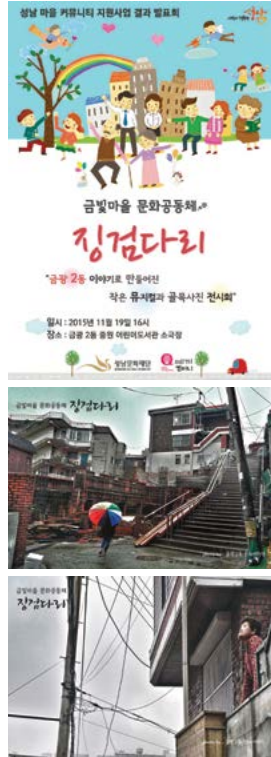
결과 발표회. '시작'이라는 또 다른 이름.

결과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미미한 우리의 발자취, 우리가 그려낸 금광2동에 대한 솔직한 시선.... 꺼진 가로등, 녹이 슨 철문도, 주차문제로 싸우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걸어 잠근 현관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웃'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서로 보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은 변화...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웠던 올 한해 발자취와 앞으로의 마을 활동에 대한 숙제를 담아냈습니다. 금광2동 마을 기획단이 만들어 본 우리의 '골목사진전시회'와 '작은 동네 뮤지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발표회

- **일정** : 2015년 11월 19일
- **장소** :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극장
- **목표** : 마을탐방에서 수집한 내용으로 전시회를 개최 (공연 발표), 우리 마을의 모습을 담은 골목사진 전시회 - 더욱 많은 주민에게 소식을 알리기. 커뮤니티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다음 활동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마을기획단으로서의 성취감 (자부심)도 느낀다.
- **내용**
 - 동네를 탐방하며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 인물 사진 등을 모아 전시회 및 공연을 개최하였다.
 - 가족과 친구, 마을 이웃들을 초대하였으며 활동이 성사되지 않은 산성경로당 등 마을 어르신들 초대.
 - 전시회장에 기획단 결성 및 활동 과정 모습을 담은 스케치를 상영하였다.
 - 기획단 활동을 하며 수집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로 마을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연 (징검다리)을 발표하였다.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마무리하며 다양한 의견들

자체 평가 - 계획 관련

- 첫 시작부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대상 선정과 모집 과정)
- 대상 변경 이후 활동 과정을 대체적으로 유연하게 진행되었으나 발표회에 많은 예산이 차중되면서 초반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결과 피드백

- 단기적인 마을 활동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여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것들이 많았다.
- 한 번의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어떤 곳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하고, 예산을 계획 및 집행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사용된 곳이 다소 발생했다고 생각이 된다.
- 기록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무리 시점에서 더 많은 기록과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응과 변화를 면밀히 체크하고 기록하여 마을의 성장과정을 지켜봐야하는 중요성을 느낀다.
- 보수적인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를 유도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으나 지역 단체와의 협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좀 더 노력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 활동과 과정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활동 참여자들의 느낌

마을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는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마을에 사진 찍을 게 과연 있을까? 하고 기대도 안했는데, 예상외로 찍을 것이 많았고 예쁜 모습이어서 놀랍고 좋았다. (마을 탐방 후 소감문- 김민)

처음 찍기 전에는 별로 기대도 안하고 예쁘지도 않을 거 같았는데, 촬영할수록 예쁜 곳도 많고 평소 자주 지나가는 길도 새롭게 보였고, 뭔가 사진작가가 된 기분이라서 좋기도 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을 한 뒤부터는 지나가는 골목길마다 쳐다보게 되었다. (활동 마무리 후 소감문 작성 - 기윤아)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지나다닐 때에도 우리 동네를 유심히 보게 될 것 같다. (마을탐방 후 인터뷰 중 - 오수빈)

내가 찍은 골목 사진이 염서가 되고, 전서가 되니 신기하다. 작가가 된 것 같다. (골목사진전 - 황소희)

우리가 조사하고 회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재미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다 끝나고 난 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을뮤지컬 발표 후 인터뷰 중 - 안소희)

뮤지컬은 처음이어서 긴장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게 되어 기뻐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하고 전부 다 친해져서 좋았다.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다. (활동 소감문 - 기윤아)

공연을 마친 후 마음이 후련하고 실수한 게 많아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큰 일을 해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여러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활동 마무리 후 소감문- 김민)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하면 더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다. 뿌듯하다. (마무리 인터뷰 중 - 김보현)

또 해요. (마무리 인터뷰 중 - 신수민)

다음에 또 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마무리 인터뷰 중- 김민)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낯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다가가기 어렵긴 했지만 활동의 필요성(중요성)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체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송영은)



마을 기획단의 활동을 바라 본 주민들의 이야기

동네에서 논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다. 동네에 사람이 안보여서 썰렁한데 애들이 웃고 있으니깐 듣기 좋아서 나와 보았다. (마을 탐방 중 만난 할머니 의견)

노인들이 이젠데 오면 안 될 거 같은데 불러줘서 고맙다. 도서관에서 자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 발표회 중 삼성경로당 어르신 의견)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 보 우리 사는 곳의 이야기가 신선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마을 발표회 후 안소희 아버지 인터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다음에는 엄마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공연을 봐야할 사람들이 안 오 것 같다.

(마을 발표회 후 신수민 어머니 인터뷰)

이젠 뜻 깊은 행사는 주말에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웠다. 홍보가 부족했다.

(도서관 방문 주민 인터뷰)

개인주의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송신여중 교사 우대권)

활동 후기 - 김희정

10년 넘게 성남에 살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수두룩했다.

대부분이 무심히 지나갔던 것들이 아닐까 싶다. 성남 주민으로써 몹시 부끄러웠다.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또래 친구들, 중고생,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뵈는 때면 더욱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이웃끼리 정도 많고 하나가 되어 지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시골벽적했던 우리 동네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없고 각자 살기 바쁜 모습들, 사람하나 없는 쓸쓸한 동네였다.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이 그림과 속상하다. 물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낯설기만 한건 아니었다. 마을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수선했던 공사장, 벽화, 집 밖에 나와 계시는 할머니,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동네 등. 심지어 길가에 강아지 똥마저도 아름다웠다. 카메라에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발판 삼아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극을 만들어 보았다. 우리 동네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개선할 점, 우리 동네 사람들의 특징 등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좋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을 징검다리 뮤지컬, 준비기간에 아이들의 처음과는 다른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회 당일엔 주민 분들과 가족,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다. 아직 서툴러 실수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서 이번처럼 극을 만들거나 동네잔치처럼 장르별 장기자랑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을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밝고 신나는 흥미 있는 분위기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동안 우리 마을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며 우리 마을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졌다.



활동 후기 - 송영은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마을 사업이 선정이 되고 부푼 기대를 안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주체로 삼은 마을 사업은 모두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젊은 세대 뿐 만아니라 더불어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해야 이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하는 마을활동에 우리 동네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마을 커뮤니티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 망설이시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시는 등..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에 - 하지만 지역 단체들은 이미 마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일을 같이 시작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우리의 꿈이 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많이 왔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 하고 다시 고민했습니다. 방향을 조금 전환하니 길이 보였습니다. 마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늦게 다시 시작된 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은 호기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험에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마을의 모습은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을 다시 바라보고, 몰랐던 장소도 알게 되고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도 작성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공연에 올려진다고 하니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우리의 공연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마을 분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혀도 쉽게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고 차가운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좋은 점은 함께 공유하고.. 작은 시작에서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일이 아닌 조금씩 스며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년 내 후년 앞으로도 마을 일은 항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을이라는 자부심과 내가 살아온 이곳이라는 점에서 시작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부러워할 금광 2동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치는 글

마을 공동체... 열정 하나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하듯, 원손쓰기를 하듯, 조심스럽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 더뎠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은 주민 분들의 점차적인 관심과 작은 박수로 화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마을 기획단이 함께 하였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왔기에,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한 땀 한 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도를 열정적으로 뛰어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징검다리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과 응원을 기억하며 웃음이 피어나는 금광2동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마을문화공동체 [징검다리] 공연 대본

(뮤지컬 빨래 각색)

등장인물

빛나	시골에서 올라 온 여학생. 밀린 방세로 여러 번 쫓겨 다닌 신세
민	공단에서 일하는 베트남 아가씨. 민('빔다'라는 뜻)
만해	육아와 가사, 직장까지 힘들게 사는 워킹 맘
주인집 아줌마	동네 터줏대감으로 심술로 유명하다
일진	주인집 딸, 빛나와 같은 반, 시골에서 온 빛나를 괴롭힌다.
작업반장	공장 관리자
꼬봉	일진 무리. 싸움을 잘하는 일진의 오른팔
로안	외국인 노동자 '민'의 친구
할매	골목을 다니며 폐휴지를 줍는 할머니, 날강도에게 당한다
날강도, 나기자, 기타 마을 사람들	

장소

이들 사는 동네는 언덕이 비탈졌으며 골목마다 다가구 주택이 들어차 있고, 시장과 가깝다. 대부분 옥탑과 반 지하 방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다. 이 작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1장

BGM과 함께 마을 사람들 각자의 목소리

마을사람1	(빗자루로 골목을 쓸며) 아니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이라도 좀 쓸자고, 사람들이 왜들 그려..
고시생	(머리 싸매고 공부하다가 펜을 내려놓으며) 아 윗집 너무 시끄러워요. 날이면 날마다 쿵쿵쿵쿵. 얼마 전 부터는 개 짖는 소리까지 덩달아 나더군요..... 오우... 스투웬스....
차주	누가 또 여기다가 차를 대놔어!!!! 5082!!!!!! 5082!!!!!! 당장 차 빼요!!!!!! 남의 집 앞에다 왜 차를 대요!!!!!! 진짜.. 짜증나게.....
아줌마	할머니 여기다가 쓰레기 좀 모아놓지 마세요!!!! 병이며 박스며 정말 드러워 죽겠어.
할머니	이년아 그거 다 돈이여.

아줌마 참나... 늙으면 죽어야지..
아가씨 아니 남의 집 창문은 왜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빠 죽겠어..
아저씨!!! 담배 연기 들어와요!!!!

빛나 박스 하나 들고 등장.

빛나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외면하고 퇴장.

빛나 성남에 온지 1년이 됐는데.. 새로 온 이곳도 역시 이웃 간 다정하지 못하네요... 제가 살 던 곳은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식구 같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마음을 닫고 문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무언가 외로움이 느껴지는 겨울의 시작입니다.

골목길에 트럭이 정차하는 소리

이삿짐아저씨 학생, 차 오래 대기 힘드니까 얼른 갔다 와.

빛나 네

일요일 오후. 좁은 골목.

빛나는 이삿짐을 옮기고, 주인집 아줌마는 빛나의 짐을 이리 저리 살펴본다.

퇴근하던 민은 빛나가 떨어뜨린 일기장을 주워준다.

민, 이삿짐을 나르는 빛나를 바라보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간다.

#1. 성남 살이 몇 헉가요?

(모두) 성남 살이 몇 헉가요? 성남 살이 몇 헉가요?
언제 어디서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나요?
성남 살이 어떤가요? 성남 살이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주부) 금광2동 10 년, 세 번째 적금 통장 해지
어디 어디 살아 보셨나요? 태평동, 단대동, 하대원, 양지동
다니고 다니다 깨진 건 적금통장 그리고 부부금실

(만해) 금광2동 육 년, 네 번째 직장. 최저임금액 육십오만원이면 말 다했죠
생리휴가, 육아휴직 없죠.
짤리고 짤리다 늘어난 건 딸래미 동 기저귀..
(빛나) 집 떠난지 1년, 다섯 번째 이사
낡은 책상, 삐걱이는 의자, 보지 않는 소설책, 지나간 잡지
고장난 티비, 기억이 가물가물한 편지
이런 것들은 버리고 와요
버리고 버려도 늘어난 잡동사니, 그리고 엄마 생각.

(모두) 얻어갈 것이 많아 찾아왔던 여기
잃어만 간다는 생각에 잠 못 드는 우리
당신과 내가 만나고 헤어지는 동안 성남 살이 늘어갑니다.

(빛나) 집 떠난지 1년, 열한 번째 알바. 아니, 열 두 번인가
부당해고 두 번. 짤린 거 한 번, 심하게 짤린 거 한 번
이제 와서 남은 건 났고 났은 신발
성남 올 땐 꿈도 많았었는데 일이년 돈 벌어 학교도 가고
하지만 멀리 사는 엄마한테 편지 한 줄 못 쓰는
내 꿈은... 내 꿈은... 나의 꿈 닳아서 지워진 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부부싸움 소리가 들린다. 빛나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도 없다.
방문을 꼭 잠근다.

암전.

2장.

육아와 가사, 직장생활까지 책임져야하는 워킹맘 '일만해'이야기.

아기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 분유를 타면서 출근 준비를 하는 분주한 만해의 모습.

만해 (방에 있는 아기를 향해) 으구~ 어떻게 해~ 많이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맘마 만들어 줄게요. 맘마~ 맘마~
(전화벨이 울린다) 아~ 진짜 미치겠네.... 자기야 !! 나 늦었어 먼저 나간다!!! 애기 감기 때문에 이따가 병원 예약 잡혀 있는거 알지?
(대답이 없다) 응??? 듣고 있어???!!
(전화를 받으며 친절한 목소리로) 네~ 사장님!!! 그 손님 어제 제가 계산해드렸는데 뭐 잘못됐나요? 네??? 아는데... 그릴 리가 없어요...
(무언가 잘못된 듯) 일단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귀와 점점 멀어지는 수화기) 제가 가서 설명 드릴게요. 사장님 !!!
(급하게 수습) 지금 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퇴장)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빛나.

일진들이 빛나의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뒤따라 들어오는 빛나

빛나 이리줘.
일진 뭐??? 아~ 촌년 많이 컸네.
빛나 아니 그제..
일진 (가방을 뒤지며) 어제 내가 시킨 숙제 했냐?
꼬봉 (뒤에 숨어 간죽대며) 했냐?
빛나 내가 할려고 했는데..
일진 그랬는데?
빛나 어제 이사를 하느라.....

일진, 꼬봉에게 싸인을 보낸다.

일진 돈 있나 봐봐.
빛나 안 돼. 그거... 진짜...
꼬봉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오호 득템.
일진 마침 잘됐네. 옷이나 사야겠다. 가자
빛나 안돼.....

일진 무리 퇴장.

빛나 안 돼 !!!!! 그거... 이번 달 방세란 말이야...

공장에서 부당대우 받는 외국인 노동자 ‘민’ 이야기.

민 안녕하세요?
로안 안녕하세요?
민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로안 날씨가 좋습니다.
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로안 나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민 학생입니까?
로안 네. 아니오, 공장에 다닙니다.
민 잘 했어, 로안
로안 (웃음)
민 자, 다음엔 한글 공부하기가 어떻습니까?
로안 한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민 그래, 어려워. 하지만 너는 아주 잘 하고 있어. 일하기가 어떻습니까?
로안 개 같습니다.
민 (다그치며) 로안!
로안 나 한국 말 다 알아.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민 알았어, 그만하고, 어서 일하자 혼나겠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서 이 장면을 지켜 본 작업반장.

작업반장 잘들 논다. 일들 하기 싫지?
로안 아닙니다.
작업반장 오~ 말대꾸 하는거야?
로안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민 (로안 옆구리를 찌르며) 췌. 조용히 해.
작업반장 이 새끼 봐라. 야... 너 정신줄 났냐?

공포 분위기.
로안의 머리를 때리는 작업반장.

작업반장 너는 입을 닥치고 일만 죽어라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입은 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다물 때 쓰는 거야 알았냐고!
로안 네....
작업반장 (더 심하게 폭행하며) 대답도 하지마. 아예 주둥이를 열지 말라고

작업반장의 손을 막는 민.

작업반장 뭐야?
민 그만하십시오.
작업반장 다시 말해봐. 이것들이 다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폭행 당하는 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퇴장하는 작업반장.

작업반장 에잇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는 민과 로안.

로안 (민을 부축하며) 괜찮습니까?
민 응...
로안 왜 맞고만 있습니까. 바보 같이.
민 참아야 돼요. 우리... 경찰서 가면 안 됩니다.

#.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1

(민) 참아요, 외로워도 나를 기다리는 가족 때문에
참다 보면 가끔 잊어요, 우리도 사람이란 사실을.
반말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 주먹 쥐고 일어서고 싶지만
고향 형제 때문에 한국 오느라 진 빚 때문에

(빛나) 참아요, 참다보면 사람들은 잊어요. 우리도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도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는 사람인데
참았어요. 외로워도 달리 기댈 곳이 없기에
잊었어요. 참다 보면 가끔 잊었어요. 나도 사람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수근 대고, 쉽게 무시하는 친구들 앞에
큰 소리치고 욕하고 싶었지만
이번 달 방값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하시는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참다보면 잊어요. 나도 꿈을 가진 아이란 걸
잊는 게 잊는 게 두려워요 꿈을 잊고 사는 게

노래 fade out.

옥상으로 올라가는 빛나와 민, 그 곳에서 둘은 만나게 된다.

민 안녕하세요.
빛나 아... 네... 안녕하세요.
민 어제 이사 왔지요? 그 때 봤어요.
빛나 네.. 이사도 이제 지겹네요.
민 여기는 좋아요. 그래도. 주인집 아줌마 성격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빛나 아..... 전 빨리 다시 이사 가고 싶어요. 나중에 알바해서 돈 모으면요.

빨래 걸으러 올라오는 만해.

민 이제 퇴근하셨어요? 언...니?
만해 안녕~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누구야? 못 보던 얼굴이네?
빛나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왔어요.
만해 반가워요. 나는 101호. (나란히 앉으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요즘 운동하니?
민 (숨기며) 넘어졌습시다.
만해 으이구.....모지리.....나도 밤공기 씌면서 보면서 숨 좀 돌리자. 볼 건 없지만.
민 그래도 우리 동네 이빠요.
만해 무슨~ 밤에만? 히히히 그래도 성남이 한 눈에 다 보이지.
빛나 진짜 야경이 예뻐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분도 이상하구.
민 (무언가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 내 발 밑에 있습니다.

만해 그래 니가 왕이다.
민 아주 짓밟아버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이 때, 귀가하는 여학생 지나간다.

민 어??? 밤길이 너무 깜깜해서 위험합니다.
만해 그러게..... 시간이 몇신데.
빛나 그러고 보니 꺼진 가로등이 많네요..
만해 문제야... 딸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니까...
 길 건너에서는 작년에 흉측한 사건도 일어나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
빛나 맞아요. 너무 으스스해요.
민 이야기해야합니다.
만해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민 아니요. 이야기해요 우리! 가로등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빛나 잘을 모르겠는데.. 아마 시청 홈페이지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데다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학생이 컴퓨터 잘하니까 하면 되겠네.
빛나 에이... 막상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 쫌... 소심해서... 아니면... 동네 반상회 같은 데에 참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건 어때요? 전 그럼 먼저 들어가볼게요..

- 암전

반상회. 부녀회장이 주인아줌마. 아주머니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주인아줌마 뭐?
민 안되겠습니까?
주인아줌마 (한숨을 쉬며) 그건 우리도 이미 다 ~ 알고 있는 사항이야. (혼잣말로) 어디라고 나서거야 짜증
 나게..
만해 아니~ 길이 점점 으스스해요. 밤길이 위험해도 너무 ~
주인아줌마 (말을 자르며) 아니. 됐고. 그건 우리 선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보자고.
민 언제 됩니까.

주인아줌마 으..응? 뭐야? 뭘 안다고 난리야?
민 죄송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주인아줌마 진짜 피곤하게 하네.... (세 명을 밀어서 쫓아내며) 그건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동네 일
 꾀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쳐대고 난리야. 주제넘게....

문전박대 당하는 세 사람. 빛나가 크게 넘어진다.
민과 만해 부축하는데..

민 괜찮습니까...
빛나 아...예...
민 미안합니다.. 괜히 같이하자고 해서...
만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민 주제넘게라네요...
만해 허구헌날 무시하고.... 모르면 끼어들지 말어라? 예휴~
빛나 이제 우리 그만 돌아가요....
민 네. 하지만 우리도 말할 권리 있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 2

(모두) 아 -
 우리도 때리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 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모른 척 하죠. 모른 척 눈감고 살죠.
 모른 척 눈감고 귀 막아도 우린 숨 쉬며 살죠.
 같은 하늘 아래 아프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요.

암전-

3장.

방법 조끼를 입고 모인 빛나. 민. 만해.
어색한지 쭈뼛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빛나.

성남문화재단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만해	아무도 안도와주면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뭐!	
민	우리 골목 밤길 지킴이!!!!!! 지킴이!! 지킴이!!!	
빛나	좋았어!!	
민	언니. 아기는요?	
만해	간신히 재워놓고 왔지롱. 우리 신랑도 몰라 우히히.	
빛나	(자신 없는 모습으로) 저기..... 저는..... 그냥 안할래요.	
만해	아이 ~ 갑자기 왜 또 그래	
빛나	저 알바도 해야 되고... 좀.... 그래요..	
민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빛나	(조심스럽게) 괜찮을까요?	
민	용기를 내요 우리!	
동네 순찰을 돌고 있는 3인방. 관객석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한다. 이 때, 무대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급하게 뛰어 들어온다. 뒤 따라 오는 할머니 소리 지른다.		
할머니	도둑이여!!! 도둑!!!! 아이고 내 돈 !!!!!	
3인방 호루라기를 부르며 날강도를 향해 뛰어 간다.		
- 암전.		
용감한 시민상 수여 장면. 카메라 셔터		
기자	오늘 성남 중원경찰서에서는 용감한 시민상 수여가 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골목 방범 순찰을 돌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밤길지킴이’ 시민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만해	아유~ 뭘 부끄럽게 이런 걸 다~~~ 우리 딸래미들의 밤길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힘들지 않지요. 딸들~ 걱정 말고 집에 편하게 들어가~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하면 이 엄마가 지켜줄게 ~~	
228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금광2동		
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여자라서 어쩔 땐 무섭지만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민도 쓸모 있습니 다.	
빛나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외로웠어요.. 슬프고 아픈 기억들 투성이지만 이제는 아니예요. 앞으로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예쁜 동네가 될 거예요.	
#. 슬플 땐 빨래를 해		
(함께)	뭘 해야 할 지 모를 만큼 슬플 땐 난 주위를 봐	
(만해, 민)	일만하다 하루 갈 때	
(빛나)	집 떠나 고생할 때	
(함께)	내 인생이 요것 밖에 안 되나 싶지만 희망이 남아 있는 나를 돌아보지. 살아갈 힘이 남아있는 우릴 돌아보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혼자 일 수 없어 때로는 이렇게 기대는 거야. 서로 보듬고 달래주고 힘을 내고 나를 되찾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 거야. 난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난 지치지 않을 거야. 자 힘을 내 어서.		
암전-		
4장. 어느 때와 같은 일상,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		
흐린 날 아침, 대문 앞. 빛나가 등굣길에 나오다 공중전화에서 통화 중인 민을 발견한다.		
229		

성남문화재단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민	네 달입니다. 아니요, 세 달 아니고 네 달입니다. 저 번 달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돈 주세요. 갑자기 공장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돈 못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로안은 아파도 병원 못가요. 반장님! 반장님! 참고 일하라고 해서 참았는데... 돈,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개자식, 개자식, 개자식	
민은 공중전화부스를 발로 세게 찬다. 민은 빛나와 마주친다.		
빛나	안녕하세요? 언니..	
민	아, 학교 갑니까..	
빛나	개자식은 좀 그렇다, 개새끼도 있고, 미친놈도 있고 또...	
민	...나 괜찮습니다.	
빛나	나도 괜찮습니다. (같이 웃는다)	
주인집 아줌마와 일진 등장		
일진	다녀오겠습니다.	
주인집 아줌마	잘 갔다와 공주님~~~	
일진	아 귀찮아.	
주인집 아줌마	으이구 이빠 죽겠어 ~	
일진	(빛나를 발견) 어? 촌년 너 왜 여기있냐?	
빛나	어.....? 그게....	
주인집 아줌마	(빛나를 발견하고) 어이, 학생	
빛나	안녕하세요....	
일진	엄마 애 알아?	
만해도 출근길에 대문을 나서며 등장.		
만해	(집을 향해 소리 지르며) 자기야~~~ 이따 애기 젖병 좀 삶아~~ 알겠지??? 야!!!!!!!	
주인집 아줌마	(빛나에게) 저기... 방세 내는 날인 거 알지? 밀리면 방 뺄 때 돈 못 받아.	
빛나	아, 예....	
일진	헐..... 애 우리집 셋방 살아? 대박... 특종이네 특종. 엄마 나 간다~ 키키키 (퇴장)	
230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금광2동		
주인집 아줌마 공주~ 뛰어가지마 넘어져~ (퇴장) 만해, 빛나를 챙겨준다. 민도 곧 다가와,		
민	그럴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만해	에휴.... 딱하지....	
빛나	(잠시 생각하다 애써 웃으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후 퇴장)	
# 비오는 날이면		
(민)	한국 온지 5년. 다섯 번째 공장 받은 월급보다 더 쌓인 밀린 월급	
(만해)	비 오는 날이면 가족 생각에 온 맘이 저리고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서 와요.	
(민)	친구는 아파서 누워있고 병원 갈 돈 없어 빚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로안)	나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떠나지 못해요. 돈을 벌어 꿈을 이루겠다는 텅없는 희망 때문입니다.	
(민, 만해, 로안)	텅없는 희망 때문입니다.	
사람들 등장.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질없는 희망 때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내 꿈을 쫓아가 보지만 남는 건 허탈한 마음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우산을 펴는 사람들.	
(빛나)	누가 안쓰러운 우리 삶을 위로해줄까요 누가 서글픈 우리 삶을 위로해줄까요.	
(함께)	비 오는 날이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 우산 하나 받쳐 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요 비 오는 날이면 떠나고 싶은 마음 우산 하나로 가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요	
-암전.		
무대로 걸어 나오는 빛나.		
빛나	우리의 삶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 게 추억으로 자리 잡더군요. 아! 기쁜 소식! 밤길 지킴이 멤버로 5명 정도가 더 지원을 한 상태 구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일을 계기로 가로등이 천천히 교체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231		

요... 이 세상에 커다란 변화, 작은 변화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직 행동만 있지요.

일진의 등장.

일진 야.... 저기.....(봉투를 내밀며) 이거....

빛나 (봉투를 받으며) 이게 뭐야?

일진 이거 니꺼잖아... (뒤돌아서서 가려다) 아.... 그리고 미안했다... (퇴장)

빛나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린 어쩌면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 않은지, 남이 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이제 함께 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아요. 우린 금광의 지붕 아래에 사는 한 가족이잖아요.

#. 성남 살이 몇 헨가요? 2

(모두) 성남 살이 몇 헨가요? 성남 살이 몇 헨가요?

언제 어디서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하나요?

성남 살이 어떤가요? 성남 살이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만해) 금광2동 십년, 네 번째 적금통장 해지

남편 위해 자식을 위해,

또 한 번은 나를 위해 방을 옮겼죠.

이제는 날 위해 내가 살기 좋은 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할머니) 성남 살이 45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 마음에 두고 사나.

그냥 마음 가는 데로 살아들.

(빛나) 집 떠난지 1년, 내 첫 번째 친구.

민이 언니, 또 ‘일만해’ 언니,

혼자라고 느낄 때, 한숨만 날 때,

할 일 없을 때, 웃음을 점점 잃어버렸던

슬픈 기억은 버리고 와요.

버리고 버려도 잡동사니, 그리고 엄마 생각 들어가지만

내가 만날 사람도 함께 늘어 갑니다.

(민) 한국 온지 오년, 첫 번째 터전

내가 들었던 말 / 돈 없다, 빨리해라, 냄새 난다.

내가 배운 말 / 아파요, 돈 줘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함께해요.

(만해, 민, 빛나) 나 너 우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요?

그대 눈물, 그대 웃음이 담긴 사연 새겨질 방 찾아 떠돈 시간 얼마나 되나요?

그대와 나 여기 살아 온 시간만큼

살아갈 시간들

그대 잃어버린 꿈 그대 두고 온 꿈

다시 꾸어요. / 다시 꾸어요.

(모두) 성남 살이 여러 해, 당신의 꿈 아직 그대론가요?

나의 꿈 닳아서 지워진지 오래

잃어버린 꿈 어디 어느 방에 두고 왔나요?

낙엽처럼 흔들리다 떨어질 우리의 희망이지만

당신의 힘든 마음 이제는 함께 해요.

서로가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당신의 아픈 마음 꼭 참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지친 마음 툭툭 털고서 일어나

우리가 지켜 줄게요.

당신의 아픈 마음 우리가 지켜줄게요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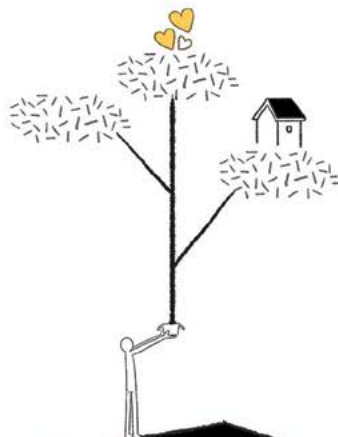
(함께) 우리가 함께 할게요

안전-

끝.



성남문화재단 2015 마을커뮤니티 사업 프로젝트북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비매품



9 788994 964188

ISBN 978-89-94964-18-8